제3판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관찰

– 부 록 –

김희진 · 박은혜 · 이지현

• 이 파일은 저자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다. 저작권자와 창지사 양측의 승인 없이는 파일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사용 또는 기록할 수 없다.
• 이 부록 파일을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교사 및 학생 여러분께서는 참고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창지사

-부록-

교사 및 유아 행동 관찰 자료 전사본의 예

» 교사 행동 관찰 전사본 / 5

이 자료는 교사를 하루 종일 관찰하면서 교사가 한 행동과 말을 모두 표본식으로 기술한 것이다. 책의 본문에 제시된 교사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연습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유아 행동 관찰 전사본 / 62

이 자료는 유아 1명을 하루 종일 관찰하면서 그 유아의 모든 행동과 말, 그리고 그 유아와 상호작용한 유아나 교사의 행동과 말을 표본식으로 기술한 것이다. 책의 본문에 제시된 유아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연습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1 교사 행동 관찰 전사본

- 관찰 장소 파랑유치원 만 5세 구름반
- 관찰 일자 2008년 4월 6일
- 관찰 시간 09 : 00 ~ 13 : 30
- 관찰 대상 담임교사
- 날 씨 맑고 따뜻함
- 진행 중인 생활 주제: 봄－계절
- 원아 수: 30명(한 명 결석하여 관찰 시 총 29명)
- 교사 수: 담임교사 1명, 보조 교사 1명
- 일과 활동(원 계획표에 시간은 적혀 있지 않았음)

09 : 20 ~ 09 : 30	등원
09 : 30 ~ 09 : 50	이야기 나누기
09 : 50 ~ 10 : 00	새 노래
10 : 00 ~ 11 : 00	미술 활동
11 : 00 ~ 12 : 00	과학 활동/바깥놀이
12 : 00 ~ 13 : 15	점심시간
	자유선택활동
13 : 15 ~ 13 : 30	평가 및 귀가 지도

- 관찰 시 특이 사항
  - 주 교사가 한 명 있으며, 보조 교사 한 명이 두 반을 맡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들어와 도와준다.
  - 교실은 계단을 올라와 2층에 위치, 나무반과 출입문이 가까이 있고, 복도에 있는 옷

장의 문 앞에 출석표와 겉옷을 거는 옷걸이가 있다. 유아는 등원 시, 유치원 현관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올라와 옷장에 가방과 모자를 넣고, 교실 문 앞에서 겉옷을 벗어 걸고 출석표에 사진이 부착된 이름표를 붙이고 교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 화장실에 갈 때는 문 옆 음률 영역 바구니에 있는 화장실 목걸이를 걸고 간다.
- 과학 활동은 꽃씨 심기 활동으로 바깥놀이 시간에 세 집단으로 나뉘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 간식시간은 없고 점심시간에 교실 내에서 급식을 먹고, 교사의 점심도 이것으로 함께 해결한다. 급식 당번이 물과 행주질을 책임지고, 자기 분단의 모든 유아의 점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주전자를 정리하고, 행주질을 해야 한다. 식사 시에는 정해진 그릇 세팅 방식이 있다.
- 가희는 나이에 비해 발육이 느려 키가 작고, 다리를 절며,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단단한 것으로 보호하고 있다. 소변을 볼 경우에는 집으로 전화를 하여 엄마가 와서 눕혀 놓고 호스로 빼낸다. 이동 시에는 언제나 맨 앞에서 교사의 손을 잡고 다닌다.

○ 관찰 내용 기록 및 표기의 참고 사항

- 주 교사의 이름은 T자에 명암을 주어 표기했다.
- 유아의 이름은 가명으로 '이름'만 표기했다.
- 유아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유아'로 표기했다.
- 보조 교사의 경우에는 '보조 T'로 표기했다.
- [ ]는 관찰자의 의견을 기록할 때 사용했다.
- ( )는 관찰 대상의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했다.

○ 본 교사 행동 관찰 전사본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김은정 학생이 '유아 관찰' 시간에 제출한 과제물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시 간	내 용
09 : 05	(교사는 보조 교사와 교실 안에서 수업에 맞추어 교실 정리를 하며 일찍 온 유아들을 맞이해 주고 있다. 교실에는 여아 성희가 책방에서 책을 읽고 있고, 남아 영재는 컴퓨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 [교사는 30대 후반으로 웨이브 있는 긴 머리에 165cm가 조금 넘는 키다.] (책방에서 책 『엄마 무슨 소리인가요』를 읽고 있는 성희에게 『우리 모두 나무를 가꿔요』를 들고 간다.) T : 성희 잘 읽는구나. 이거 한번 봐. (책상 위에 책을 놓고 교실 밖으로 나간다.) 성 희 : 네. (계속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한 후 책을 계속 소리 내어 읽는다.) 엄마 곰이 계속 대답하고 있다. T : (교사 커피 잔에 커피를 담아 교실로 들어온다. 수·조작 영역 자료장 위에 올려놓는다.) (보조 교사를 향해 말한다. 보조 교사는 긴 생머리에 하늘색 니트, 검정 무릎길이 치마를 입고 있고 책상을 정리하고 있다.)
09 : 09	보조T : (주 교사를 쳐다보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한다.) 혜 리 : (교실 안으로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오며 교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손으로 플라스틱 용기를 내민다.)
09 : 10	T : 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하며 내민 용기를 받는다.) 두 손으로 줘야지. (플라스틱 용기를 쳐다보며) 구멍이 너무 조금 있구나. 혜 리 : (교실 밖으로 나간다.) (교사는 플라스틱 용기를 문 옆 바구니에 담아 놓는다. 다시 교사장으로 가서 나무 상자에 담긴 비닐봉지에서 새 노래 자료를 꺼내 본다.) T : (보조 교사를 향해) 선생님, 이거 찍찍이 붙여서 다시 갖다 놓으세요. (비닐에서 꺼낸 울타리 그림을 보조 교사에게 준다.) 보조T : (받아 든다.) T : (다시 교사장 쪽으로 가서 자료를 비닐을 접어 챙긴다. 서랍장에서 새 노래 악보와 교구를 꺼내어 악보를 눈으로 읽는다. 융판 사이에

시 간	내 용
	서 앞치마를 꺼내어 교사장 위에 올려놓는다. 새 노래 자료를 수업에 용이하도록 융판 사이와 교사장 위에 나누어 올려놓는다. 커피잔 쪽으로 가서 서서 커피를 마신다.)
09 : 13	(교실에 들어온 혜리를 한 번 쳐다보고, 커피잔 옆의 급식 당번표를 만지작거린 후 다시 커피를 마신다. 문 쪽으로 가서 '생각하는 의자'를 들고 두리번거리다 피아노 의자 옆에 집어넣고 나간다. 교실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잡고 서서 들어오는 유아들을 맞이한다. 복도에는 옆 반 교사 한 명과 교생 한 명이 서서 삼삼오오 들어오는 유아들을 맞이하고 있다.) T : (들어오는 다른 반 유아들을 향해 머리 숙여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옆 반 나무반 유아 : (바닥을 가리키며 자기 반 교사에게) 선생님, 여기 물이 있어요.
09 : 14	T : (옆 반 교사에게 다가가며) 물이 어디 있어? (바닥을 살핀다.) 물이 여기 있었구나. (바닥을 만지며 손으로 닦아 본다.) 유 아 : (교사에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T : (문 앞에서 들어오는 유아가 출석표를 붙이고 옷걸이에 겉옷을 거는 것을 팔짱을 끼고 바라보다가 옷장에 가방 정리하고 있는 서우(여아)에게 다가간다.) 서우야, 너 누구하고 왔니? (다정하게) 서 우 : 할아버지요. T : 할아버지하고 왔구나. (머리 쓰다듬어 주며 함께 교실 쪽으로 간다.) (서우가 관찰자를 물끄러미 보기만 하자)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드려야지. (관찰자에게 인사시킨다.) 서 우 : (관찰자를 향해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T : (도와달라는 듯 물끄러미 쳐다보며 옷을 벗는 남아에게) 잘 안 되니? 할 수 있어? [바로 돕지 않고 혼자 할 것을 유도한다.] 남아는 잠시 후 혼자 단추 푸는 것을 성공한다.) 혼자 잘하네. (남아와 서우가 옷을 벗어 혼자 옷걸이에 걸어 놓는 것을 바라본다.) 나무반 유아들 : 안녕하세요.

시 간	내 용
	T : (한꺼번에 맞이한다.) 안녕하세요. (인사 후 교사실로 들어간다.) T : (다시 교실 앞으로 와서 서 있다. 계단을 올라오는 유아들이 인사하면 함께 계속 인사해 준다.) 안녕하세요. (현우가 들어온다. 어깨를 잡고) 어제 아프더니 괜찮니? 현 우 : 많이 아팠어요. T : 많이 아팠구나. 유 아 : (교사에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T : (어깨를 만져 주며) 어, 안녕하세요. (다시 현우에게) 밥 먹었어? 현 우 :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간다.) (유아들이 2, 3명씩 짝지어 많이 오기 시작한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인사로 맞이한다. 가까이 있는 유아들은 어깨, 등을 만져 주며 반긴다.)
09 : 15	T : (인사를 잘 못 하는 남아에게) 똑바로 서서 하는 거야. (다시 인사시킨다.) (유아들이 옷을 거는 것을 보다가 잘 안 되는 남아에게) 뭐 안 돼? (무릎 꿇고 앉아 키 높이를 맞추고 옷을 만져 준다. 지퍼를 풀며 옷자락을 빼 준다.) 이게 끼었지? (옆에서 옷을 걸던 여아, 남아 한 명씩 쳐다보다 간다.) 유 아 : 고맙습니다. 유 아 : 안녕하세요. T : 안녕하세요. (또 옷 벗기 힘들어하는 여아에게) 잘 안 돼? (보조 교사가 와서 돕는다.)
09 : 15	T : (신발을 그대로 신고 오는 현성이를 발견한다. 다가가며) 실내화 신어야지. 실내화 안 가져왔어? 신발 넣는 칸에 있잖아. 보고 와. 네 서랍에 있지는 않았어? 위 칸에 있나 보고. 현 성 : (말없이 다시 내려간다.) T : (옷걸이를 다른 쪽에 거는 재민에게) 아니지, 아니지 재민아. 저쪽 먼저 다 한 다음에 이쪽에 하라고 그랬지. 재 민 : (그냥 건다.)

시 간	내 용
09 : 20	T : 아니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지? 밀어 줘야 다음 친구가 걸겠지? (옷걸이를 밀어 정리해 준다.) (그냥 들어가는 재민이를 불러) 재민아, '왔습니다.' 해야지. '왔습니다.' 재 민 : (출석표에 이름표를 부착하고 다시 교실로 들어간다.) 성 진 : (성진이 실내화로 갈아 신고 다시 올라온다.) T : 현성이, 있지? 아까 거기서 잘 갈아 신고 와야지. T : (교실로 들어가서 가운데에서 유아들을 한 번 둘러본다.) 오늘 첫 시간은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니까 준비하고, 먼저 온 사람들은 계획표를 미리 해 놓아도 좋아. (쌓기놀이 영역에서 블록을 꺼내는 한열이를 보고 간다.) 한열인 지금 할 수 없지? (블록을 같이 다시 정리해 넣는다. 다시 한 바퀴 둘러본다.) 혜민아, 앉아서 해야지. 유 아 : 선생님, 오늘이 6일이에요? T : (날짜가 쓰여진 판을 가리키며) 벽을 봐, 난 잘 모르겠어. 저길 봐. (말하며 입구 쪽으로 간다.) 유 아 : (교실로 들어오며) 어, 안녕하세요? T : 안녕하세요. (하루 활동 일과가 붙은 융판을 가리키며) 시간을 먼저 보면 뭐가 먼저지? 이야기 나누기 먼저 해야 하니까, (언어 영역을 가리키며) 책 보기나 뭘 한 가지 선택해서 해라. (명민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명민아, 명민아, 교실에서 뛰어다니면 되니? 명민인 무슨 시간이 맨 먼저 있나? 이야기 나누기 먼저 해야지? 그럼, 과학 먼저 하면 되겠다. 됐지? 그러면…. 유 아 : (블록을 꺼내며) 선생님, 이거 해요? T : 너 지금 가져온 게 뭐지?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유 아 : 선생님, 과학방 되나요? T : 그럼. 유 아 : 책방도 돼요? T : 그럼.

시 간	내 용
	한 열 : (쌓기놀이 영역에서 낮은 책상에 블록을 꺼내서 놀고 있다.) 쌓기놀이 영역은 되나요?
	T : 네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서 모르나 본데, 쌓기놀이 영역은 안 된다고 약속했지?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맨 먼저 있을 때는 쌓기놀이는 빼고 노는 거다.
	현 성 : (옆에서 장난친다.)
	T : (단호한 목소리로) 현성아, 말씀하실 때는 들어야지.
	유 아 : (옆에서 들어오며) 안녕하세요?
	T : (쳐다보지 않고) 그래. (한열에게) 수·조작방도 안 된다. 알았죠?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만 하는 거야.
	유 아 : (교사에게 무엇을 건넨다.) 선생님~.
	T : (받으며) 계란 노른자 줄 거야? 그럼 두 손으로 줘야지. 고마워. (수·조작방 자료장 쪽으로 가서 급식 이름표를 살핀다. 과학방으로 간다. 과학방에는 1명의 남아와 2명의 여아가 올챙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09 : 25	유 아 : (뚜껑이 열린 올챙이 수조를 보며) 올챙이 열어 놨다!
	T : 선생님이 열어 놨어.
	재 희 : (교실로 들어온다.)
	T : 어, 재희 왔구나? 안녕하세요.
	재 희 : (말없이 자른 페트병과 커피믹스, 소금을 내민다.)
	T : 이거 가져왔어? 고맙다. (페트병은 바구니에, 커피믹스는 교사장에 놓고 나간다.)
	T : (문 앞에 서서 유아들을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유 아 : 안녕하세요? (인사 후 옷장과 옷걸이로 흩어진다.)
	T : 안녕하세요. (남아 준석에게) 다쳤니? 주말에? 어디 어디 갔다 왔는데? 어? (등을 토닥이며)
09 : 26	준 석 : 앵무새도 잡고요, 소라도 보고요.

시 간	내 용
	T : 앵무새도 잡고, 소라도 보고? 재미있었겠구나. (들어오는 유아마다 등을 다독거려 준다.) 유 아 : 선생님, 우리도 올챙이 샀어요. T : (무릎 굽혀 눈높이 맞추고) 뭐 사 왔어? 어디서 샀는데? 유 아 : (말이 없다.) T : 문방구에서 사 왔어? 유 아 : (가만히 있는다.) T : 얼마 줬는데? 잘 몰라? 유 아 : (고개를 끄덕인다.) T : 몇 마리 샀는데? 유 아 : 다섯 마리요. 유 아 : (옆에서 자기 옷을 붙잡고 교사 보며) 이거 안 벗고 들어가도 돼요? T : 추우면 안 벗어도 돼. (함께 교실로 들어간다.) T : (손에 트라이앵글을 들고 블라인드로 햇볕을 가린다.) 얘들아, 양쪽에 의자 놓고 모여 앉자. (수·조작 놀이를 하는 여아 7명들에게) 이거 정리하기 힘드니까 다음에 하자. (함께 쭈그리고 앉아 조각 퍼즐을 맞춘다. 재희가 기웃거리고 온다.) 재희야, 이거 함께 하자. (재희를 도운 후 일어나 의자를 갖다 놓고 이야기 대열을 만든다. 교실문을 닫고 음률방에 있는 남아 3명을 부른다.) 현성아, 이리 오너라. 기훈아, 오너라. (기훈이가 고무줄로 장난치며 교사에게 보인다.) 기훈아, 그거 놔두고. (융판을 갖다 가운데에 놓는다.) 유 아 : (교사에게 와서 엉킨 화장실 목걸이들을 보여 준다.) 선생님 이거…. 09 : 29 T : (목걸이를 들고 음률방으로 가서 풀어 놓고 하나를 남아에게 걸어 준 뒤 제자리로 돌아온다. 남아는 화장실로 간다.) (퍼즐을 맞추는 남아 5명, 여아 1명에게) 그냥 가져오세요. (완성된 퍼즐을 받아 제자리에 넣는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다시 다른 쪽 블라인드를

시 간	내 용
	조절하여 햇빛을 가리고 융판 자료를 옮기고 교사 의자를 갖다 놓고 앉는다.「우리 모두 나무를 가꿔요」책과 자료를 갖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다. 다른 자료는 상자에 담아 바닥에 놓고 트라이앵글을 손에 들고 있다.) (19명이 의자에 10명가량이 카펫 바닥에 두 줄로 앉아 있는 상태이다. 남아 여아가 자연스럽게 섞여 몰려 앉아 있다.) T : (트라이앵글을 치며 노래를 시작한다.) 좋은 새싹들이 자라서 넓은 잔디… 1절만, 새싹… 재민아(중간 중간 장난치는 유아에게 주의를 주며 노래를 계속하고 유아들은 따라 부른다.) 파랑유치원… (교사, 유아 모두 다 함께) 야!
09 : 32	T : (늦게 들어온 지아가 앞을 가로질러 가려 한다. 무릎에 손깍지 끼고) 지아야, 이렇게 늦게 왔으면 어디로 가야 하니? 이 앞으로 지나가야 해? (손으로 휙 지나가는 시늉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바닥에서 장난치는 기훈이에게) 기훈이 일어나라. 정수 일어나라. (의자에 앉은 정수를 향해) 정수 바꿔 주자. 정수가 잘 앉아 있으니까 양보해 주자. 한열아, 한열인 한 번 양보하면 안 되겠니? 기훈아, 기훈인 뒤로 가 앉아. (기훈 머뭇거린다.) 기훈이 뒤가 어디야? 그건 앞이지, 잘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지금 세 사람은 자리 바꾸고 나머지는 의자에 잘 앉아 보자. 혜린이는 의자에 잘 앉아 있네. 박수 쳐 주자. (유아 모두 박수) 은주야, 네가 그러면, 뒤에 사람이 힘들잖니? 선우야, 지연이 가세요. 그 담에 재민이 가세요. 옳지. 그런데 이게 누구니? 은주는 너무 힘든 모양이다. 자리를 바꿔야겠는데? 나현아, 너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려앉고 도와주자. 나현아 일어나라. 자, 아침에, 너희 놀고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지? 얼굴이 굉장히 기쁜 얼굴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그전에 너희가 왔을 때 인사하는 모습부터 얘기해야겠어. 현성아, 와서 인사 나와서 해라. (손짓하며 나오도록 한다.) (현성 인사한다.) 선생님 보고

시 간	내 용
	인사해야지. (현성이 인사한다.) 옳지, 너무 굽히면 안 되고. (등을 만져주며) 자리에 들어가라. (현성 들어간다.) 어떤 친구는 층계 올라오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한테 가까이 와서 인사해야겠지? 너무 멀리 있을 땐 기다리다가 선생님 앞에 와서 인사하도록 하자. 정규 한 번 해볼까? (손짓으로 정규를 부른다.) 어디까지 나와서 인사해야지? 정 규 : (정규 걸어 나와 교사 옆에 서서 고개 숙여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T : 옳지, 그렇게 하는 거야. (정규의 등을 만져 들여보낸다.) 너희들이 잘하면 동생들도 앞에 나와서 보고 인사를 잘할 거야. 오늘 아침에 인사 잘한 사람은 현우다. 그다음에 집에 갈 때는, 인사하는 사람이 화요일 날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 다 그냥 갔어. 선생님 거기 나와 계시지? 갈 때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가야겠다. 또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께 인사 잘해?
09 : 35	유아들 : (모두 함께) 네. T : 응. 갔으면,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께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 잘해야지? (자리에서 일어나 당근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들고 와 자리에 앉는다.) 오늘 토끼 식구 한 마리가 새로 왔지? 너희들 먹이 가져와야 하는데 가져온 친구가 있어? 나와라. 얘들아, 성희가 가져온 거 뭔지 물어보자. 얘기해 줄래? (성희를 불러 교사 옆에 세운다. 한쪽 팔로 안아 준다.) 유아들 : (산발적으로) 당근! 토끼! 당근! 당근! T : 이상하다. 성희가 많은데. (성희를 향해) 성희야,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성희야, 이거 이따 어떻게 줘야 해? 혼자 줘? 같이 줘? 성 희 : (교사를 바라보며) 친구들하고 같이…. T : (대견하다는 듯한 억양으로)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유아들 : (모두 함께) 네. T : (유아들을 향해) 오늘 다 줘야 할까?

시 간	내 용
	유아들 : (산발적으로) 한 개씩! 두 개씩! T : 한 개씩, 두 개씩? 잘라서? 유아들 : 얇게 썰어서! 조그맣게! T : 어, 그래. 있다가 칼을 가지고 나갈 테니까 잘게 잘라서 한 3개만 주도록 하면 좋겠지? 성희에게 고맙다고 박수 쳐 주자. (성희 들어가고, 유아들 박수를 친다.)
09 : 38	T : (트라이앵글을 한 번 친다.) 너희들 숙제해 오기로 약속한 거 있지? 뭐에 대해 알아오기로 했더라? 유아들 : (산발적으로) 개구리! 올챙이! 꽃! 나무! 나무! T : (유아 대답에 한 번씩 따라서 반문한 후) 나무? 나무 심는 날이 뭐라 했지? 유아들 : (모두 함께) 식목일! T : 어, 식목일에 대해서 알아오기로 했었지? 어디 알아온 사람 손들어 보자.
09 : 39	T : 승수 알아왔어? (승수가 나온다.) 지금 뭐 갖고 있지? (급식 당번 목걸이를 본다.) 그거 갖고 있는 것 아니다. (승수는 교사 옆에 나와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다.) 승수가 식목일을 지내고 와서 식목일이 뭐였다는 것을 얘기해 줄 거야. 식목일이 뭐야? (장난치는 지아 발견) 지아야, 들어 보자. 승 수 : 물을 줘요. T : 뭐에? 승 수 : 꽃에. T : 꽃에 물을 잘 줬어. 어떻게 하라고? (교사는 승수 손을 주머니에서 빼 준다.) 승 수 : 키가 쑥쑥 자라라고. T : 잘 자라라고? 그거 알아왔어? 훌륭하구나. 박수 쳐 주자. (유아들 박수) (손깍지하고 앉은 상태에서) (손든 기훈이 발견) 기훈이 알아온 거.

시 간	내 용
	기 훈 : 꽃에 물을 주고요, 예뻐하고요, 그러면 크게 돼요. T : (모두에게) 꽃을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는 뜻이구나. 그걸 알아왔구나. (유아들 박수) 또, 또, 정현이 알아온 거. (유아 몇 명 손을 든다.) 정현이 나와 봐라. 다른 친구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하다. (손깍지 무릎에 놓고) 송기훈 바로 앉으세요. 신발도 바로 신고. (정현이에게) 어제 어떻게 지냈어? 얘기해 봐. 정 현 : (한참 말 못 하고 가만히 있다가) 밥 먹었어요. T : 식구만 간 것 아니고 누구랑 같이 갔어? 왜 밥 먹으러 갔지? (장난치는 승수에게) 승수야, (정현이 말 못 하니까 웃으며 안아 준다.)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몰라? (다시 정현에게) 아빠도 어제 쉬셨어? 정 현 : (아주 조금만 목소리로) 잠잤어요. T : 어제 교회 안 나가셨지? 정 현 : (고개만 끄덕끄덕) T : 왜 안 나가셨지? 정 현 : 쉬는 날이라. T : 왜 쉬셨는데? 정 현 : 식목일…. T : 그래서 식구끼리 밥 먹었어? 정 현 : 아뇨. 아빠의 형…. T : 아빠의 형? 그럼 큰아버지? (전체 유아를 향해) 아빠의 형님은 뭐라고 하지? 얘들아? 유아 몇 명 : 큰아버지! T : 큰아버지가 돼. 유아들 : (모두 함께) 큰아버지!
09 : 42	T : 정현아, 큰아버지랑 밥 먹으러 갔었니? 잘 생각 안 나? 넌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래? (주머니에서 손을 빼 준다.) 손 빼고, 뭐 먹었니? (정현이 대답 못 한다.) 다음엔 생각해서 오자. 또 '식목일에 무

시 간	내 용
09 : 44	엇을 했어요.' 하는 사람 손들어 보자. (유아들 손든다.) 호선이 나와. 식목일이 무슨 날이지? (깁스한 호선이 나와서 교사 옆에 선다.) 식목일에 부모님이랑 뭐 했어? (장난치는 승수를 발견) 승수야, 승수 일어나야겠다. 아주 방해돼. 일어나세요. 지연이랑 자리 바꿔야겠다. 호 선 : 시골 갔다 왔어요. T : 시골? 왜 시골 갔다 왔어? 호 선 : 제사 지내고 왔어요. T : 어디에서 제사 지냈는데? 호 선 : 산에요. T : 누구 무덤에서 제사 지냈는데? 호 선 : 할아버지요. T : 할아버지 무덤에서 뭐했지? 제사 지내고, 또 풀도 뽑아 주고 그랬어? 호 선 : 아뇨, 그건 안 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비빈다.) T : 안 했어? 그럼, 어떤 마음으로 했어? 호 선 : 좋은 마음으로요. T : 그래? 어제는 식목일이기도 하고. 은주, 네 자리가 아니다. 네 자리로 가 앉아. 호선이 자리로 가고, 어제 호선이가 산에 갔다 왔거든. 산에 가서 제사 지내고 왔다고 했는데 할아버진 돌아가시고 누워 계시지? 조상님이라고 해. 다 같이 '조상님' 유 아 : (모두 함께) 조상님. T : 봄이 되었잖니? 봄이 됐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누워 계신 무덤에 가서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잘 봐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무덤도 돌보고 제사도 지내는 날이에요. 어제가 한식이에요, 한식. 승 수 : 나는 어저께 못 갔어요. T : 그래, 못 간 사람도 많겠지. 어제 할아버지 할머니 산에 가서 제사 지

시 간	내 용
	냈어요 하는 친구들 손들어 봐. (유아 몇 명 손든다.) 어제는 안 갔지만, 그저께, 주일날 산에 갔다 왔어요. 하는 사람 손들어 봐. (다른 유아들 몇 명 손든다.) 승 수 : 난 다음에 갈 거예요. T : 그래. 한식날이라 가는 거야. 다음에, 식목일에 대해 얘기하다 말았는데, 식목일은 왜 만들었지? 어제 너희들 뉴스 안 봤어? 유아들 : (모두 함께) 봤어요! T : 어, 현성아. 얘기해 보자. 현 성 : 사람들이 나무 베어가서 나무 심는 거예요. T : 박수 쳐 주자. (모두 함께 박수) 어제, 뉴스에 산불이 난 게 났더라. 유 아 : (제각기 시끄럽게) 저도 봤어요! 저도요! 봤어요! T : 자, 그만, 그럼 산불은 왜 났대? 유 아 : 산불이 그냥 났어요. 유 아 : 저요! 저요! T : 공기가 (손드는 승수를 보고) 승수야, 아무 때나 손드는 거 아니잖아?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시간이야. (승수 손 내린다.) 공기에 물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조심 안 하고 조금만 있어도 금방 불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담뱃불 조심해야 하고, 때로는 나무가 저절로 부딪쳐서 산불이 나기도 해. 그래서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데 나무를 왜 심는 거야?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는다.) 유 아 : 공기가 좋아지라고. T : 오, 공기가 좋아지라고. 또, 나무가 어떻게 하니까 공기가 좋아지는 거지? 나무가 숨을 쉬나 보지? 어떤 공기가 우리에게 좋은 거야? 유 아 : 공기! 공기! T : 그럼 나무가 좋은 공기만 줘? (손든 기훈이를 지적) 송기훈. 기 훈 : 나무는 좋은 공기도 주고요, 나쁜 나무는, 썩은 나무는요. 나쁜 공기도 줘요.

시 간	내 용
	T : 좋은 나무 얘기하는 거야. 자, 아까 정성희가 이거 읽는 거 봤는데, 이거 봤지? (책을 유아들 앞에 들어 보여 준다.) 아까 뭐 봤지? 지 은 : 선생님, 나는요, 아까 이거 봤어요. T : 응, 현성아, 나무가 왜 우리에게 좋은 거지? 현 성 : 나무가 많으면요, 새가 많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T : 나무가 많으면 새가 둥지를 틀어서 새도 많고 햇빛도 많고 좋대. 또, 기훈이. 기 훈 : 나무를요, 다 베면요, 우리 집도 만들 수 있고요. T : 어, 집도 만들어 줄 수 있어? 기 훈 : 비도 막아 주고요. T :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지, 집도 떠내려가지. 유 아 : (다 함께) 네. T : 그런데, 나무가 많으면 뿌리가 비를 다 빨아들여. 그래서 물을 빨아들여서 홍수를 막아 줘. 너희 다 잘 알고 있구나. 기훈이 오늘 잘 앉아 있으니까 좋은 생각 많이 나오네? 준 희 : 나무로요, 다리도 만들 수 있고, 길도 만들 수 있어요. 건너는 다리도 만들 수 있어요. T : 징검다리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책을 펼쳐 그림을 보여 주며) 나무가 많으면 이렇게 경치도 좋고, 더울 때는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지? 유 아 : 그늘. T : 그늘, 좋은 공기, 모든 동물도 나무가 많으면 같이 살 수가 있고, (책장을 계속 넘기며) 비가 오면 홍수도 막아 주고, 이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유 아 : 사과! T : 과일도 만들어 주고, (책장 그림을 가리키며) 이게 뭐야? 유 아 : 피아노! 휴지!

시 간	내 용
	T : 피아노, 책상, 의자,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든 거야?
	유 아 : 나무!
	T : 그래, 또 앞의 친구가 말한 휴지도 만들 수 있고, 또 너희들이 그림 그릴 수 있는 종이도 만들 수 있고….
	유 아 : 연필도! 의자! 책상!
	T : 그래, 그렇게 모든 것 만들 수 있고, 좋은 공기도 만들고 홍수도 막아 주고…좋은 게 너무 많네? 그리고 꽃을 많이 심으면 어떻지?
	유 아 : 아름다워요!
	T : 아름답고. 아름다운 꽃을 보니까 마음도 즐겁고, 친구도 사랑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기 훈 : 그리고요, 나쁜 공기를요, 다 마셔요.
	T : 어, 나쁜 공기를 다 마셔요.
	현 성 : 그리고 또 뱀도 있는 산도 있어요.
09:50	T : 그런데, '선생님, 전 꽃 심었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한 길 : 저요! (손든다.)
	T : 한길인 무슨 꽃 심었니?
	한 길 : 사루비아.
	T : 사루비아! (손든 기훈이 지적) 송기훈은?
	기 훈 : 해바라기.
	T : 해바라기. 선우는?
	선 우 : (수줍은 듯) 해바라기.
	T : 해바라기? 현성인?
	현 성 : 분꽃.
	T : 그런 꽃 다 심었구나? (바구니에 담겨 있던 노래 자료를 꺼내 융판에 붙인다.)
	유아들 : 다리다!
09 : 52	T : 이건 다리가 아니라 울타리야, 울타리. (한쪽 손에 개나리를 들고 있

시 간	내 용
	다.) 꽃은 왜 심어? 남 아 : 향기! T : 그래, 좋은 향기 맡게. 또? 여 아 : 공기도 좋고, 나비도 날아오고. T : 또 승수. 승 수 : 향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나비도 있고, 아름다우니까. T : 아름다우니까. (악보를 무릎에 놓고 보며 노래를 시작한다.) 개나리꽃 피우러 봄이 왔어요~ (떠드는 유아에게 '쉬' 손가락을 입에 대고) 담을 넘어 몰래몰래 넘어왔어요. (손에 든 개나리를 울타리 속에 꽂는다.) 살구꽃 피우러 봄이 왔어요. (유아들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냇가를 살금살금 걸어왔어요. (살구꽃을 꽂는다.) 자, 선생님이 지금 노래를 불러 주셨는데, 무슨 꽃이 나왔지? 유 아 : (모두 함께) 개나리꽃. T : 개나리꽃? 응. 개나리꽃하고…. 유 아 : (산발적으로) 분꽃! 울타리! T : 분꽃, 분꽃? 울타리? 자 그럼, 개나리꽃이 어디를 넘어왔대? 유 아 : 울타리! 울타리! T : 담을 넘어, 담을 넘어왔는데, 그다음엔 또 어디를 넘어왔데? 천천히 걸어왔다고 했니? 그렇게 왔대? 봄이? 봄이? (유아들 대답 못 한다.) 개나리꽃 피게 하고. 자, 개나리, 떠들지 말고, (떠드는 유아에게) 선생님 봐야지? (한 남아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교사와 유아들 사이를 가로질러 간다.) 너 왜 앞으로 나왔어?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자, 잘 앉고 한 번만 불러 볼 테니까 어떤 얘기할 수 있는지 들어 보세요. 개나리꽃 피우러~♬ (유아들 합창한다. 교사는 매체를 조작하지 않는다.) 아니, 들어 보세요. 나중에 이야기하라고 할 때 말하세요. 개나리꽃 피우러~♪ (생략)

시 간	내 용
10 : 00	T : 자, 노래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니? 은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은 주 : 얼었던 시냇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요. T : 얼었던 시냇물도 졸졸졸 흘러내린대. 너무 생각 잘했다. 박수쳐 주자. (함께 박수) 승수가 이야기해 보자. 봄이 무슨 꽃을 피우기로 했지? 승 수 : 개나리꽃. T : 개나리꽃. (기훈에게) 기훈아! 기 훈 : 살구꽃. T : 가사 한 번 따라 하자. 개나리꽃 피우러 봄이 왔어요. (악보 들고 손짓한다.) (유아 따라 하는 중 가사를 계속적으로 앞에서 반복하며 이야기해 준다.) 너희는 콧소리로 부르자. 개나리꽃~. 유아들 : (따라 부른다.) 개나리~. T : 너희는 콧노래로, 개나리꽃~. 유아들 : (흠흠흠~으로 따라 부른다.) T : 방해하는 친구가 있다. 승수야, 조용히 해보자. (가사 한 번 다시 읽어 주고 함께 따라 부른다.) 모두 함께 : 개나리꽃~. T : 선생님이 밖에 나갔는데, 길옆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더라, 노란 꽃이 뭐예요? 유아들 : 개나리! T : 그다음에 무슨 꽃이 또 피었지? 다시 꽃을 봤는데, 개나리꽃하고 살구꽃 말고. 개나리꽃 대신에 진달래꽃 할까? 그다음에 살구꽃 대신에 목련꽃 할까? 유아들 : 네. T : 그래, 시작. 처음에 개나리 말고 진달래꽃 ♬ (노래를 시작한다. 유아들 따라 부른다.) 유아들 : 진달래꽃 피우러 ♬ 그다음엔 목련, 목련꽃을 피우러 ♪

시 간	내 용
	(노래가 끝난 후 이미 모두 아는 노래를 교사 시작한다.) T : 싹싹 싹이 났어요, 꼭꼭 물을 주었죠. (손유희와 함께 노래 부른다. 모두 따라한다.) 지 아 : 우~, 우~. T : 얘, 누가 이상한 목소리 내니? 지아야,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자, 그러면 새 노래 다음에 미술 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저기 그림 보자. (뒷면 게시판을 가리킨다.) 화요일에 너희들이 오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지? 이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10:02	유 아 : 꽃이 진짜 같아요. T : 꽃이 진짜 같아? 또, 재희. 재 희 : 나비가 진짜로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유 아 : 길이에요. T : 그래, 봄길이야. 기훈이. 기 훈 : 진짜, 꽃이 나쁜 연기를 마시는 것 같아요. T : 공기를 맑게 해줘요. 현성이. 현 성 : 구름이 부메랑 같아요. T : (혼잣말처럼) 구름이 부메랑 같아? (웃는다.) T : 이제, 하나씩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계절인 것 같아? 유아들 : 봄! T : 이리 보면, 어느 계절 같아? 예 성 : 봄. T : 어, 봄 같다. 봄인데, 어떤 봄이야? 꽃피는 봄, 어, (손든 원희를 지적한다.) 원희.
10 : 03	원 희 : 맑은 봄. (교사, 손든 혜리를 지적한다.) 혜 리 : 봄. T : 혜리, 봄, 준호. (손든 준호를 보고) 준 호 : 아름다운 봄.

시 간	내 용
10 : 05	T : 아름다운 봄. 여기다 제목을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 아름다운 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자. 아름다운 봄, 한 번만 손드는 거야. 두 번 드는 것 아니야. (유아들 손들고 교사 센다.) 하나, 둘, 셋… 열 두 사람. 또, 꽃피는 봄, 자 (유아 손든다.) 하나, 둘, 셋… 여덟, 여덟 사람. 맑은 봄? (맘에 안 든다는 듯한 어조로) 맑은 봄. (손든 유아의 수를 세다) 두 번 들면 안 된다. 다섯. 또 무슨 봄이 있지? 자, 아까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아름다운 봄이 열 한 명이고, 꽃피는 봄이 여덟 명, 맑은 봄이 다섯 명이야.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것이 아름다운 봄이라고. 자, 아름다운 봄은 선생님이 붙여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아름답게 꾸밀 거야? 알았지? 유아들 : 네! T : 그럼, 아름다운 봄이라는 것을 꾸미는데, 아름다운 봄 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유아들 손든다.) 너무 많다. 잠깐만, 손들어 봐, 손들어 봐. 자, 정수 나와서 너하고 할 사람 한 사람만 골라봐. (정수 교사 옆으로 나와서 한 여아를 지적하고 불러낸다.) 남자 친구는 기훈이 나와 봐. 기훈이가 먼저 손들었거든. 기훈아, 넌 누구랑 할래? 제 문 : 강윤재. T : 강윤재? 그래, 윤재 나와라. (4명의 유아는 교사 옆에 앉아 있다.) T :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오늘 게시판에 봄에 대해 꾸미는데 어, 이 모루를 가지고, (융판 사이에 두었던 자료 바구니에서 모루를 꺼내 들고 보여 준다.) 이게 모루이거든, 모루를 가지고 잘라서 앞에 애벌레를 만들 수 있겠지? 나비도 만들 수 있겠지? 봄에 볼 수 있는 것을 여기다 꾸미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에게 가져오면 선생님이 다 꾸며 줄 거야. 그다음에 보자. (다른 바구니에서 비닐과 색종이를 꺼낸다.) 여기 비닐에 색종이 조각들이 있지? 이걸 여기다 넣어서(비닐에 색종이 조각을 넣는다.) 이걸 묶어서 돌리면 (빵 끈으로 가운데를

시 간	내 용
	묶는다.) 나비를 만들 수 있지? 유아들 : (탄성) 우와~. T : 너희들도 만들 수 있겠지? 나비만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만들 수 있어. 유 아 : 애벌레는요? T : 애벌레도 돼. T : 귀뚜라미도 되고. 유 아 : 지네도 돼요? T : 지네도 되지.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것, 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면 다 돼. (모루를 들고) 길면 어떻게 하지? 유 아 : 뱀! T : 뱀? 잘라야지. 잘라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럼, 모루로 작업할 사람도 생각해 두고, 선생님, 저는 어제 너무 재미있게 보내서 그림으로 그리겠어요, 하는 사람은 그림으로 그리고, (다른 자료 바구니에서 색종이에 원, 네모 모양으로 그린 자료를 꺼내 보여 주며) '줄 따라 그린 것 오려 보기 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오리고, '저는 점토로 봄에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어요.' 하는 사람은 점토할 거야. 자 이렇게, 점토, 오리기, 그림 그리기, 그리고 (색종이와 비닐이 있는 자료 바구니를 들어 보여 주며) 여기 만들기 이렇게 네 가지 할 거다. 오늘 점토는 세 사람이 할 거야. 잘 생각했지? '점토를 할 거예요.' 하는 사람 손들어 보자. (유아 몇 명 손든다.) 승수, 보람이…. (유아들 일어나서 나간다.) 갈 때는 의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아들 가다 말고 돌아와 의자를 옆 책상에 넣는다. 보람인 비좁은 쪽에 넣으려 애쓴다.) 보람인 뒤에 넣는 것이 좋을 걸 그랬구나. '색종이 넣어서 나비를 만들래요.' 하는 사람은 여섯 사람이다. (유

시 간	내 용
	아 손든다.) 혜리 일어나고, 재혁이, 정현이, 연진이, 애리, (일부 유아들 간다.) 아니, 일어나라고 했지, 가란 말씀은 안 하셨다. 이 사람들은 6분단에 가서, 6분단 어디인지 알지? 다음에, '저는 모루로 하겠어요.' (여러 유아 손을 든다.) 여덟 사람, 손든 사람 일어나서 가세요. (유아들 일어나 간다.) (한 남아에게 자료 바구니를 주며) 이거 하고 뭘 갖다 놓아야겠지? 유아들 : 가위. T : 가위통 갖다 놓고 2분단으로 가라. (주춤거리고 서 있는 보람이를 보고) 넌 뭐 하니? 저기 가야지. (점토방을 가리키며 머뭇거리는 다른 유아에게) 2분단이 어디 있지? (승수와 은주를 보고) 승수야, 은주야, 너희 아직 안 불렀어.
10:10	승 수 : 승수 아까 불렀는데요. T : (다른 분단에서 다른 자료를 갖고 하는 승수에게) 점토방에 불렀는데 왜 거기서 하는 거야? 자, 그다음, 색종이 오리기 하는 사람? (유아 손든다.) 가위통 갖다놔야 하겠지? 민섭이, 다 일어나 있어라. 가희, 선우, 지연이, 지아, 연정이 일어나세요. 유 아 : (모두를 들고 온다.) 선생님 이거 잘라요? T : 응. 잘라. 더 오릴 사람 있어? 지연이, 선우 일어나세요, 이 사람들은 3분단으로 가세요. 3분단. '저는 그림을 그리겠어요.' 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자. (유아들 3명 손든다.) 일어나서 가세요. (나머지 유아들에게) 너희들은 이 앞으로 와. 이리로 와, 의자 갖다 놓고 와. (돌아다니는 승수를 보고) 승수야, 넌 이쪽으로 가라고 했잖아. (남은 유아들에게) 너희 들어 봐. 너희는 어제 지낸 일 그림 그릴 거야? 나현인 뭐 할 거야? 그림? 나 현 : (고개 끄덕인다.) T : 그럼, 그림 그리러 가라. (나현 그림 그리러 간다.)

시 간	내 용
	T : 자 또, 은주는? 은 주 : 점토…. T : 점토는 갈 수 없고… (현우를 보며) 현우, 넌 뭐할래? 현 우 : 나비 만들래요. T : 나비는 안 돼.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넌 아까 손 안 들었잖아. 나비는 저거(모루 가리키며)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림 그리지 않을래? 현 우 : (고개 절레절레 흔든다.) T :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생각해 봐. (혜리를 보며) 혜리 뭐할 거니? 그림? 혜 리 : (끄덕인다.) T : 그림 그릴 사람은 한 줄로 서서 가자. (유아들 간다.) (원희를 향해) 원희는 뭐 할 거니? 그림? 원 희 : (고개 끄덕인다.) T : 저기 가서 해. 영재인 뭐 할 건데? 예연이도? 호선인 뭐 하니? 재희는 뭐 할 건데? 재 희 : 쌓기놀이요. T : 쌓기놀이? 지금은 선택 활동이 아니야. 미술 활동 시간이야. 오리기 할래? 재 희 : 점토…. T : 너무 많아. 저기 모루 할 거 있어. 넌 뭐 할래? 모루? 꽃? 모두 할래? 재 희 : (고개 끄덕인다.) T : 자, 재희야, 저기로 가라. (주미, 무릎으로 기어간다.) 미연이도 저리로 가라, 종이 내려놓고 모두 자르자. (모루 책상 쪽으로 남은 유아들을 데리고 간다. 장난치는 승수를 보고) 승수야, 뭐 하니? 장난치지 마라. 미연이도 여기 와서 서. (과학영역에 의자 놓아 주고, 책상 의자 세 개 꺼내러 간다.) 유 아 : 선생님 가위가 없어요.

시 간	내 용
	T : 가위? 거기 친구한테 빌려 달라고 그러자. (가위통을 집어와 가위를 꺼낸다. 나비 작업 책상으로 가서) 나비 만드는 사람, 가위가 너희는 필요하지 않지? 하나만 있으면 되겠는데? (가위를 꺼내 미연에게 갖다 준다.) 재 희 : 저도 주세요. (교사가 가위 가져다주고 다른 작업 책상으로 간다.) 현 성 : (울먹이며 교사에게 다가온다.) T : (유아를 붙잡고) 현성아, 자리가 모자라면 얘기해야지? 뚝! 현 성 : (계속 울먹울먹한다.) T : (빈 책상을 가리키며) 저기 있네! 기훈아! 저기 많네. 빨리 가. 현 성 : (기훈 손잡고 오리기 하는 책상으로 간다.) T : 사람 불러 줬거든. 그러면, (의자를 갖다 주며) 하고 싶은 것 골라 봐. 말을 해야지? 현 성 : (손으로 계속 눈물만 훔친다.) T : (오리기 종이를 골라 자리에 놓아 준다.) (혼잣말처럼) 가위가 남는 것 없나? (나비 만들기 책상으로 가서 가위를 가져온다.) 현 성 : (계속 눈물 닦는다.) 유 아 : (모루 작업 책상에 있는 유아, 모루를 들고 교사를 소리 질러 부른다.) 선생님! T : (모루 작업 책상으로 가서) 모루 잘라 줄까? 잘라 줄게. (모루와 가위를 들고 있는 한 여아에게) 어서 잘라. T : (장난치며 돌아다니는 승수를 보고) 승수, 앉아. 장난하지 말고. (모루 든 채로 처음 부른 여아에게) 얼마만큼 잘라 달라는 얘기야? 유 아 : (손으로 나비 만들어 보여 준다.) T : (재희에게도 모루를 잘라 주며) 이만큼 필요하니? (현우에게) 현우 너는 얼마만큼 필요하니? 현 우 : (가만히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T : 안 하면 안 되는데, 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니? 잘할 수

시 간	내 용
	있어, 어서 하자. (여아 한 명이 만든 나비를 들고 와서 교사에게 보여 준다.) T : 참, 예쁘게 잘했네, 나비를 게시판에 붙이자. (나비를 들고 함께 게시판에 간다. 교사는 교사장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찾는다.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압정을 들고 들어온다.) T : (기다리고 있는 유아들에게) 어디다 붙여 줄까? 유 아 :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T : 여기? 여기? 유 아 : (고개 끄덕인다.) T : 압정으로 나비를 게시판에 붙여 준다. 앞에서 '아름다운 봄'을 그리는 유아들에게 간다. 남아 두 명은 각각 도화지에 그림을 다 그린 후, 제목(한 명은 '아름다운', 한 명은 '봄')을 쓰고 있고, 여아 두 명은 아직 나비를 그리고 있다.
10 : 22 10 : 24	T : (잠시 들여다보다가) 잠깐만, 잠깐만, 그림을 사인펜으로 그리면 안 되지. '아름다운 봄'은 써서 붙이는 거다.
10 : 30	T : (교실 밖으로 나간다.) (보조 교사가 대신 들어온다.) (교사가 다시 들어온다.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다, 돌아다니는 유아들을 발견한다. 붙잡고 묻는다.) 넌 다 했니? 유 아 : (고개만 끄덕끄덕한다.) T : 다 한 사람은 책 읽어라. T : (만들던 것들을 들고 돌아다니는 유아들에게)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교실마다 책상을 둘러보며 유아들의 작업 현황을 본다. 잘못된 것은 알려 준다.)
10 : 37	T : (그림 그리는 분단에 가서 의자에 앉는다. 주변을 배회하는 유아들에게) 이름 써야지, 가위통 제자리에 놓고. 얘기 써 줄게. 이리와 봐. (유아들 모여든다.) (다른 분단에서 돌아다니는 유아들에게) 강원

시 간	내 용
	희와 선우는 (손에 든 작품을 가리키며) 여기다 놓고 책 갖다 놓고 보고 있어라. 그림 분단 유아들 : (그림 들고 온다.) T : (옆의 색종이 오리기 분단 유아들에게) 너희 색종이 오렸니? 유아들 : 네. T : 그럼 너희가 오린 색종이 정리하고, (어질러진 색종이 자료들을 가리키며) 이거 다 주워 넣고 책을 읽든지 컴퓨터를 해라. (유아들 정리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10 : 39	T : (그림 들고 있는 유아를 부른다.) 이리 와, 정인이하고. (유아가 내민 그림을 바라보며, 연필을 들고) 이건 뭐 그린 거니? 여 아 : 나비요. T : 나비? 나비가 뭐 하고 있어? 여 아 : (가만히 있는다.) T : 그래, 그럼 (써 주면서 말로 이야기한다.) 4월 6일, 나비. (그림을 건네준다. 여아 가지고 간다.) (남아 정인이를 향하여) 너는 뭐라고 써 줄까? 한 길 : (손 다치고 피 난 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부여잡고 울면서 온다.) 옆의 유아들 : (놀라서) 피 났어~! 피! 한 길 : (선생님에게 피 난 손가락을 보여 준다. 옆에서 승수가 한길이의 눈물을 휴지로 닦아 준다.) T : (정인이의 그림 뒤에 이야기를 써 주다가 한길이를 보고, 교사장에 가서 면봉과 후시딘, 일회용 반창고를 꺼내온다. 다시 제자리에 앉아 한길이의 손가락을 잡고) 한길아, 넌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한 길 : (울면서) 문에 찧었어요.
10 : 43	T : (약을 면봉으로 발라 주며) 문에 찧었어? 누가 나갔는데? (한길 울기만 한다.) 누구 다른 사람이 그런 거야, 한길아, 네가 그런 거야? 한 길 : 몰라요.

시 간	내 용
	T : 누가 그랬는지 몰라? 한 길 : (울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한다.) T : (일회용 밴드를 감아 주며) 네가 나가는데 누가 문을 닫았구나? 문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있으면 찧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렇지? (한길 계속 울먹인다.) [혼잣말처럼] 거기다 이름표를 놓아서 그랬나? (약을 다 발라주고 이야기를 끝낸 후 보낸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분단들과 교실을 살핀다.) T : (장난치는 동환 발견, 엄한 목소리로) 얘, 동환아. (대그룹 영역 가운데에 교사 의자를 놓는다. 컴퓨터 영역으로 가서 노는 유아들에게) 거기 컴퓨터 끄고, (점토방 남아 2, 여아 1명에게) 점토방 정리하고, 모두 정리하고 모이자. (쌓기놀이 블록을 꺼내는 미연 발견) 강미연, 모이라는데 그걸 왜 꺼내니? (미연 다시 집어넣는다.)
10 : 46	T : (점토방에 대고) 점토방 세 사람, 여기에 갖다 놓고 이름 쓰자. (쌓기놀이 영역을 향해) 쌓기놀이 선택 활동 시간에 하는 거잖니? (다시 점토방에) 다 정리하자, 점토방. 너희들은 다했지? (다 못 끝낸 유아 작업하며 교사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할 수 없다. 다음에 만들고 의자 정리하고 오너라. (화장실에 갈 남아가 엉킨 화장실 목걸이를 들고 와 보여 준다. 교사는 목걸이를 풀어 남아에게 걸어 준다. 남아는 화장실에 간다.) T : (다시 대그룹 영역 쪽으로 와서 앉아 있는 유아들에게) 미연이 일어나라, 여기도 일어나자. (의자의 배열을 다시 정리한 후 다시 유아들을 앉힌다.) (유아들이 서서히 정리를 하고 대그룹 영역으로 모여든다.) [매우 시끄럽고 2/3는 의자에 앉아 모여 있고 1/3은 정리하고 있는 상태로 매우 소란스럽다.]
10 : 50	T : (트라이앵글을 들고 교사 의자에 앉아 노래를 시작한다.) T : 꼭꼭 물을 주었죠~ (트라이앵글을 한 번 친다.)

시 간	내 용
	(유아 따라 하기 시작하며 소란이 정리되고 유아 모두 자리에 모인다.) [13명 의자, 19명 바닥] T :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은주를 보고) 은주야, 은주 때문에 선생님 기다리고 있거든? (은주는 얌전히 앉는다.) 자, 너희 얘기해 보자. (트라이앵글을 무릎 위에 놓고 손을 깍지 끼고 앉아서) 오늘 작업하고, 정리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참 없었어. 선생님이 다시 불러서 정리하자 그랬는데, 왜 정리는 못 해? 자기가 한 것 정리 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 것 정리 도와주면 되잖아. 오늘 정리 참 잘한 사람이 있었어. 예은이. 예은아, 고맙다. 색종이 또 누가 주웠지? 색종이 정리한 사람 누구니? 게시판 만들기 다한 사람들이 도와주었지? 애리, 지아가 마무리를 참 잘해 주었어요, 고맙다. (다시 은주가 장난치는 것을 발견) 은주야. (손가락으로 옆을 가리키며) 의자 갖고 저기 가서 앉아라. 선생님 보이는 데 앉아. 은 주 : (의자 갖고 자리를 옮겨 앉는다.) T : 옳지, 앉으세요. (다시 손깍지 끼고) 자기가 만든 것 다 하고 친구들 만드는 것도 보았지? 애벌레도 만들고, 나비도 만들고, '아름다운 봄'도 이렇게 잘 써 주었어요. (게시판을 가리키며) 하트는 왜 만들었지? (나무에 붙은 하트를 보고) 기훈이가 나무를 사랑하자고 해서 만들어 붙였어요. (게시판 앞 바구니에 넣어 둔 유아들의 작품을 일일이 이름과 함께 작품을 들어 보여 주며) 이건 성주하고 명민이가 했고, 이건 성희랑 지연이가 했어요, 이건… (중략) 자, 그럼 이 게시판을 잘 보고, 여기 다 뭐가 부족한지 생각해서, 선택 활동 시간에 자료를 줄 테니까 더 만들어 주세요. (바닥에서 오리기를 꺼낸다) 색종이 오리기를 했더니, (네모 오리기를 들어 보여 주며) 네모는 이런 모양이 생기더라. (원 모양을 들어 보여 주며) 원은 이런 모양이 생기더라. 다 한 것은 우리 방 어디다

시 간	내 용
	장식하면 좋을까? 모빌 만들어 걸어 줄 텐데…. 유 아 :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 위에 있어요! T :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 위에? 유 아 : 태극기 옆에! T : (태극기를 가리키며) 태극기 옆에? 또 다른 사람은? 유 아 : 저기요! (교사 쪽을 가리키며) T : (손든 원희를 시킨다.) 여기다? 원희는? 원 희 : 말없이 손으로 가리킨다. T : 여기다? 천장에? (유아들을 둘러보며) 그럼, 선생님이 한 번씩 걸어 보고 가장 어울리는데 해도 되겠니?
10 : 55	유아들 : (모두 함께) 네! T : 한길이 나오세요. (한길이 나가 교사 옆에 선다.) T : (한길이의 등을 감싸 안듯이 잡고) 한길이가 아까 손을 다쳤어요. 문 사이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문을, 다른 사람이 나가다 닫아서, 손가락을 찧었어요. (한길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한길을 바라보며 정답게) 컴퓨터 이름표 빼느라 그랬니? (한길 더 서럽게 운다.) (한길이와 함께 교실 문 쪽으로 간다.) (교사 문 사이에 손을 넣고) 여기 컴퓨터 옆에 서 있다가 손을 여기다 넣었지. (행동으로 보여 주며) 손을 이렇게 넣으면 돼? 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다 손을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 (유아들 신기하고 놀라운 듯 쳐다본다.) 유 아 : 안 아파요? T : 얼마나 아팠겠니? 문 닫는 사람은 알기가 어려워. (한길이 다시 울기 시작한다.) 한길이가 굉장히 아픈데 잘 참았다. 한길아, 괜찮다. 유 아 : 더 슬픈가 봐. 그렇게 말해서…. T : (한길이 들여보낸다.) 나현이 나오너라. (나현이 나온다.) 한길이가 어느 문에서 다쳤지? 전에 나현이도 그랬었어. (나현이를 잡고 바라보며) 왜 그랬었지? 이름표 떼느라 그랬어?

시 간	내 용
	나 현 : 그냥…. T : 그냥? 문 닫고 오다가? (유아들을 향해) 나현이도 저렇게 다쳤어요. 너희들도 조심해야 해. 잘 참았다. 나현인 참았는데, 한길이가 더 많이 아팠어. (나현이 들여보내고, 교사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교구장에 만든 작품들을 올려놓는다.) 이건 만든 거니까, 여기다 놓고, 이건 다시 게시판에 붙여 줄 거야. 한길인 다치고, 울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부족했어. (다시 의자에 앉는다.) 최예성인 오늘 앵무새를 그렸어. 두 마리, 호선인 과일을 사 먹은 이야기를 그렸고, (미술방 쪽을 가리키며) 점토는 저쪽에 놓아 줄게.
10 : 58	T : 자,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과학 활동하고 바깥놀이할 텐데, 바깥놀이하다가 '누구누구 오너라' 하면 꽃씨를 심는 활동하러 오는 거야. (꽃씨 바구니를 꺼내 들고 보여 준다.) 자, 선생님이 꽃씨 나눠줄 텐데, 꽃씨 심을 그릇 안 가져 온 사람은 나중에 하고, 꽃씨 심을 화분 가져온 사람 먼저 줄 거야. (페트병 바구니를 점토방 쪽에서 들고 온다.) 한길이 먼저 받고, (페트병 화분의 이름을 읽어 주며 차례로 부른다.) 맑은 반 김경선. (나와서 받아간다.) (계속 페트병 주며) 꽃씨 먼저 심을 사람이야. 김승수. 승 수 : (한 손으로 쓱 그냥 받아 나간다.) 네. T : (줄려다 다시 빼앗으며) 두 손으로, 고맙습니다. 승 수 : (두 손으로 받으며) 고맙습니다. T : (페트병 이름 부르며 나누어 준다.) 박한길, 전정민…. (먼저 그릇 든 3명이 문 앞에서 나가려 하자) 아니, 아니, 거기 서 있어. 허은주, (이름 읽으며) 미연인 오늘 아파서 못 왔다. 이혜민, 노재혁, [페트병 한 손으로 주며, 다른 손으론 페트병을 찾는다. 시선은 페트병에 고정되어 있다.] 나현, 대답해라, 김정수, 대답하고, 정성희, (나누어 주다 잠시 기다리고 서 있는 유아들 살펴본다.) 자 이 사람들은 먼저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 부르면 오는 거야. 한열아, 아니, 지금

시 간	내 용
	오지 말고, 저 친구 다 온 다음에, (바구니 보고 페트병 확인하며) 이거 누구 건지 아는 사람?
11 : 02	유아 2명 : 송기훈!
	T : 송기훈! 이리 오너라. (기훈이 온다.) 이명인, 김민섭, 안현성… (유아들이 가져온 페트병 화분을 모두 나누어 준 뒤 기다리고 있는 유아들에게로 간다.)
	자, 카펫에 있는 사람부터 현성이부터 차례로 나오너라. (앞치마와 장갑을 들고 일어서 앞장선다. 다시 교구장에 가서 페트병 바구니를 들고, 관찰자에게) 선생님 죄송하지만, 꽃씨 바구니 좀 들고 나와 주세요. 바구니 들고 나간다. (유아들 따라 나간다.)
11 : 08	(바깥놀이터 한쪽, 꽃밭 옆에 꽃씨 바구니와 페트병 바구니를 내려놓고, 교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먼저 부른 유아들을 모아놓았다. 처음 하기로 한 유아들과 구경하는 유아들 10명 – 혜리, 승수, 한길, 정규, 재혁, 성희, 애리, 정민, 재희, 지아가 모여 앉아 있다. 교사가 꽃삽을 들고 있다.)
	T : 각자 용기에 흙 담자. 흙 담고, 흙 담은 사람은 이리와.
	(꽃밭 옆에 유아들이 담을 흙을 모아 두었고, 유아들은 각자 꽃삽으로 흙을 페트병 화분에 담는다.)
	승 수 : (교사에게 와서 민들레꽃을 내밀며) 이거 받으세요.
	T : (승수를 보며) 이거 왜 뜯어 오니? 민들레 뜯지 마, 친구들 보게.
	승 수 : (교사 반응에 잠시 생각하다) 이거 묻을래요.
	T : 그거 묻어 준다고 살아날까?
	승 수 : (꽃밭에 민들레를 묻는다.)
	유아(남아) : (흙 담은 용기를 가져온다.)
	T : (목장갑 끼면서) 조금 더 담아와.
	유 아 : (흙을 담아 가지고 오며) 선생님 다했어요.
	T : (유아들의 자리를 잡아 준다.) 너 여기 앉고, 넌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여아 2, 남아 1명에게) 기다려. (화분을 들고) 여기 담은 사람은,

시 간	내 용
	(재혁이 오자) 재혁이 여기 앉고, (흙이 부족한 유아에게 꽃삽으로 담아 준다.) 이리 와서 앉아라. 재혁아, 이리와, 놓고 앉아 있어. (8명이 다 모이고, 2명은 서성이며 구경한다.) T : 자, 흙을 이렇게 고르게 했지? 흙에 구멍을 내고, 꽃씨를 가운데 넣고, (화분 하나에 꽃씨 심을 준비를 해서 설명하며 보여 준다. 삽을 뒤집고 하는 남아를 보고) 넌 삽을 참 이상하게 든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서성이는 승수를 발견하고) 승수야, 흙 담아오라니까. (흙을 만지고 장난치는 재혁에게) 재혁아, 그만 만지세요. 한길아 이리와, 재혁인 여기. (흙 담는 승수를 향해) 승수는 여태 하니? (유아 2명이 꽃밭에 들어가려 한다.) T : (꽃밭으로 들어가는 유아들 발견하고) 왜 들어가니? (승수를 향해) 승수 때문에 기다리잖아. (승수 흙을 담아 온다.) 승수, 이쪽으로 와서 앉아라. (옆에 자리를 내어 준다.) 친구들이 가져온 것 선생님이 줄게, 심는 거예요. (7종류의 꽃씨 바구니를 들어 보여 준다.) 자, 너희들 씨앗을 어디 꽂아야 한다고 생각해? 유 아 : (산발적으로) 가운데, 옆에, 끝에. T : 가운데? 또 옆에? 얼마나 파야 할까? 유 아 : 5cm. T : 5cm가 얼마만큼이니? 손가락으로 해 봐. (장갑 벗고 자신의 마디를 가리키며) 요만큼? 요만큼? 이만큼은 돼야 하겠지? (한 마디를 표시한다.) 한길인(한길이가 파는 것을 바라보며) 그럼, 너무 깊지 않게, 그래. 너무 깊으면 씨앗이 나오려 해도 힘들어. 손 한 마디만큼 이만큼만 1cm 정도만 파자. (옆의 유아가 깊게 파는 것을 바라보고) 너는 손마디 하나가 그만큼이니? 구멍은 몇 개를 심을 건지 봐서 파라. (다른 남아에게) 너는 (웃으며) 그렇게 해서 어디 되겠니? (봐 준다.) (꽃씨 바구니를 가리

시 간	내 용
	키며) 자, 여기 보면 이건 봉선화 씨고, 이건 백일홍이고, 이건 과꽃이고, 승수 머리 밀면 안 되지? 선생님에게? 이건 사루비아, 분꽃, 해바라기, 나팔꽃…. T : (남아에게) 넌 뭐 심을 거니? 유 아 : 해바라기.
11 : 12	T : 구멍 판 데 넣어 봐. (남아는 해바라기 씨앗을 들고 구멍 속에 넣는다.) 하나씩, 너무 깊게 파면 씨앗이 나올까? 씨앗이 보이면 안 되지. (하는 것을 본다.) 구멍을 더 파라. (하는 것을 도와준다.) 승 수 : 선생님, 이렇게요? T : (들여다보며) 잘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뭘 심는지 잘 알아 둬. 나중에 물어볼 거야. 물어보면, 써 줄 테니까 잘 알아 둬. 너무 많이 심으면, 나중에 뽑아 버려야 해. 물조리가 망가졌는데, 1시에 온다니까 물은 내일 주도록 하자. 정규는 무슨 꽃 심었니? 정 규 : 해바라기. T : 해바라기? 혜민이는? (혜민, 대답 없이 딴청 함) 혜민이 와라, 지금 물어보는 거야. 혜 민 : 꽃. T : (혜민에게) 분꽃 심었어? (승수에게) 너는 세 가지 심었어? 승 수 : (분꽃을 가리키며) 이거하고요, 해바라기하고요, (나팔꽃 씨앗을 가리키며) 이거요. T : 이건 뭐니? 승 수 : 나팔꽃 T : 그래, 이름은 알아야지. (한길이를 향해) 한길인 뭐 심었니?
11 : 16	한 길 : 과꽃. T : 과꽃? (여아에게) 그리고 넌? 어디 보자,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아야겠다. 그리고 내일 와서 물 줘야겠다. 유 아 : 오늘은 햇빛만 줘요?

시 간	내 용
	T : 아니, 오늘 물도 주어야 하는데, 물조리가 망가져서 내일 줘야 해. (유아들을 둘러보며) 얘들아, 씨앗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유아들 : 좋아해요. T : 좋아해? 왜? (유아들 대답 없다.) T : 흙을 만나니까. 거기가 어떻기에 좋을까? 유 아 : 따뜻해요. T : 선생님이 뭐 심었는지 예쁘게 적어 줄게, 페트병 예쁘게 해왔으니까. 너희들 물 줄 때, 씨앗이 튀어나오게 너무 흙을 얇게 덮으면 안 된다. (선반 위에 페트병 올려놓으며) 다음 시간에 할 유아들 오라고 해라. 이거 저기 갖다 놓고 오너라. (유아들 흩어지고 다음 차례 유아들 온다. 페트병을 챙긴다.) 재희, 재혁이, 원희…. T : 다음 아이 일어나 가서 흙을 담아 갖고 오너라. 승 수 : (토끼장 쪽에서 뛰어온다.) 선생님, 당근 주세요. T : 교실에 있다. 가져와, 3개만. (승수 교실로 간다.) (혼잣말로) 잘라 줘야 하는데…. (씨앗 구멍 내는 남아를 보다가) 더 파. 너, 흙을 담아 와. 여기 있다. (한 명이 흙을 담고, 옆의 유아는 삽이 없어 보기만 하자, 옆의 비닐 봉지에서 꽃삽을 찾아 준다.) 여기 있다. 또 어디 있지? 윤 재 : (꽃밭을 가리키며) 저기 있는데요. (예성이 먼지를 일으킨다.) T : 뭐 하니? (예성이를 야단친다.) 먼지, 선생님이 마시고 너도 마시게 되잖니? (남아가 온다.) 찾아보자, (페트병을 찾으며) 안 보이네, 안 가져오면 할 수 없어. 나중에 가져오면 그때 하자. (남아 다시 놀러 간다.) 재 희 : (흙 화분을 교사에게 보인다.) 11 : 22 T : 저기 더 담아와. 거기 앉아. 은 주 : (흙 화분을 내보이며) 선생님, 저도요.

시 간	내 용
	T : (지나가는 유아를 손짓하여 부르며) 가영이 오라고 해, 가영이. (연진이 지나가자 손짓하며 페트병을 주며) 연진이 와라. 가지고 앉아 봐. 윤 재 : 해요? T : 그래, 구멍 파고. (유아들 열심히 흙을 담는다.) T : 보람아, 현우야. (지나가는 유아들을 부른다.) 윤 재 : (흙 화분을 보이며) 선생님 이제 뭐 하나요? T : 넌 너무 많이 담았구나. 윤 재 : (흙을 덜어낸다.) 선생님 요만큼이요? (보람이 흙 화분 담아 보여 준다. 화분을 든 10명 모두 둘러앉았다.) T : (꽃씨 접시 바구니를 가리키며) 여기 보면 제일 큰 씨앗이 뭐지? (유아와 함께) 해바라기. (옆 유아와 바짝 붙어 앉은 윤재를 보고) 윤재야, 넌 보람이 쪽으로 더 가라. 승 수 : (당근을 들고 나타난다.) 가져왔어요, 세 개요. T : (승수를 향해) 당근 누가 가져왔지? 성희가 가져왔지? 성희 불러서 같이 줘라. 승 수 : (의아하다는 듯이) 왜요? T : 가져온 사람이니까 같이 해야지. 승 수 : 네. (바깥놀이터의 유아들에게로 간다.) T : (다시 유아들과 꽃씨 바구니를 보며) 제일 작은 씨앗은 어떤 것이지? 유아들 : 사루비아. T : 두 번째로 작은 것은? 유아들 : 과꽃. T : 세 번째로 작은 건? 유아들 : 봉선화. T : 네 번째로 작은 건? 유아들 : 백일홍. 두 번째로 큰 씨앗은? 유아들 : 콩.

시 간	내 용
	T : 세 번째는? 모두 함께: 분꽃. 승 수 : (선우와 성희를 데리고 다시 나타난다.) 선우도 한대요. T : 그래. 옆의 유아들 : 나도, 나도. T : 같이 가서 줘라. (승수와 유아들은 토끼장으로 간다.) 유 아 : 씨앗은 넣어야 해요. T : 그냥 넣어? 유 아 : 아뇨. T : 흙 속에 줘야겠지? 끝에 놓으면 씨앗이 나올 수 있을까? 유아들: 아뇨.
11 : 26	T : 그래, 나오긴 해도, 힘들고,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겠지? 너무 얕게 파면 물 줄 때 튀어나오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얼마나 넣어야 할까? (장갑 끼며) 흙을 다시 파세요. (남아에게) 팠어? 무슨 씨앗을 넣을까? 재 희 : 어떻게 해요, 선생님? (화분을 들어 보인다.) T : 다 너희가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재 희 : (토끼장에서 달려온다.) 선생님, 칼이 없어요. (꽃삽을 들고) 이걸로 자를게요. T : 안 돼, 위험해, 선생님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거야. 갉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줘. 유 아 : 무슨 씨 넣어요? 하나만 해요? T : 하고 싶은 것 해. 유 아 : 여러 가지 해도 돼요? T : 그럼, (화분을 살펴보며) 다했니? 두 개하고 싶은 사람 두 개하고, (앉아 있는 9명에게) 씨앗 구멍에 넣고 구멍 닫아라.

시 간	내 용
	유 아 : (화분을 보이며) 선생님 됐어요? T : 넌 두 개만 심을 거니? 유 아 : 네. T : 물조리가 없어졌거든, 그래서 부탁했는데, 오늘 1시에 온대. 그러니까, 내일 나와서 물 주도록 하자. 유 아 : (화분을 들이밀며) 구멍 뚫어 주세요. T : 자기가 할 수 있어. (부드러우면서도 엄한 어조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왜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해? 유 아 : (스스로 구멍을 판다.) T : 그럼, 선생님이 물어볼게. 윤재는 뭘 심었니? 윤 재 : 해바라기랑 땅콩. T : 땅콩이 어디 있어? (유아 콩 접시를 가리킨다.) 아니, 이건 콩 씨야. 그래, 이름을 알아야지. 유 아 : (화분을 보이며 자기가 심은 씨앗을 설명하려 한다.) 이건~. T : (말을 막으며) 기다려. 정현인 뭐 심었지? 정 현 : 나팔꽃. T : 현우는? 현 우 : 봉선화. T : 보람인 뭐 심었지? (보람,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얘, 보람아, 선생님이 못 할 사람은 해 주지만, 넌 못 할 사람이 아니야, 해봐. 해봐. 호선인 안 심었니? 호 선 : 심었어요. T : 그럼, 뭐 심었니? 호 선 : (해바라기 꽃씨를 가리키며) 해바라기? T : 나현인 뭐? 나 현 : 해바라기. T : 해바라기? 그것만 심었니? 재희는?

시 간	내 용
11 : 30	재 희 : 분꽃. T : 분꽃? 그래, 자기가 뭘 심었는지 잘 알고 있어야지? 은주만 심으면 되겠다.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꽃씨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윤 재 : 자기가요, 클 거라고요, 물줄 것 같다고요. 보 람 : 근데, 만날 물 줘야 해요? T : 비 오는 날은 줄 필요 없고, 그렇다고 너무 안주면 너무 말라서 안 되고, 너무 많이 주면 썩어서 안 되지? 재희야, 씨는 무슨 생각할 것 같아? (대답 없다.) 나현인? (대답 없다.) 몰라? 연진인? (역시 가만히 있는다.) 선생님 생각엔 그렇다. (웃으며, 예쁜 목소리로) 좋다, 흙을 만났네, 친구도 만났네, 물만 먹으면 좋겠네. 햇빛도 볼 수 있어. 난 키가 클 거야.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지…. 내일 물 주도록 하자. 일어서 선생님 주고 가라. (유아들 페트병에 심은 꽃씨 화분을 교사에게 주고 흩어진다.) (혼자 남은 은주를 향해) 다 심었니? 은주? (고개만 끄덕거린다.) 몇 개 심었어? 유 아 : (토끼장에서 오며) 선생님, 어, 어, 토끼한테, 어, 어, 모래 주면 안 되죠? T : 안 되지. 유 아 : 근데, 승수가 모래 줘요. T : 안 되지, 가보자. (일어나서 토끼장으로 간다.) 어, 정현아, (장난치는 정현이를 보고) 너 모래 위에서 장난치면 안 돼. (토끼장에 갔다 온다. 바구니 들고 나간다.) (바깥놀이터 유아들에게) 구름반 와 볼 거예요, 꽃씨 안 심은 사람, 지금 다 모이자. (놀이터에서 노는 유아들이 하나둘씩 모인다.) T : 기훈아 오너라, 가져온 사람 다 와. 재혁아, 너 이거 가져왔니? 아까 심었잖아. 이걸로 가져와. 다 주세요. (은주가 화분을 준다.) 은주야, 이렇게 잘하면서 못 한다는 말은 하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화분

시 간	내 용
	을 선반에 올려놓으며) 예연이 오너라, 박호선, 흙 담아 갖고 와. 유 아 : (손을 비비며 서서) 선생님 손 더러워요. T : 괜찮아, 안 씻어도 돼. 어차피 흙 묻을 테니까, 털지 마. 유 아 : (그러나, 남아는 씻으러 간다.) 한 열 : 저 왔어요. 조금 늦었지만요. 선생님, 왜 불러요? T : (한열이 불러온 유아에게) 얘, 선우도 오라고 해. 송영재도 불러와. 호 선 : 내가 찾아올게요. T : (옷소매가 젖은 현성이를 보고) 너 왜 그렇게 젖었니? (옷소매 걷어 준다.) (모래흙을 담는 유아들에게) 얘들아, 모래는 넣으면 안 돼. 은 주 : (토끼장에서 온다.) 선생님, 승수가 자꾸 모래 줘요. T : (토끼장으로 가서 승수에게) 너, 모래 주려면 나가야겠다. (다시 꽃씨 심는 곳으로 돌아가며) 지연아, 너 김정민 이리로 오라고 해. (주변에서 기웃거리는 남아에게) 넌 안 오고 뭐 하니? (자리에 앉히며 원래 자리에 쪼그리고 앉는다.) 한 열 : 선생님 이제 뭐 해요? (다 한 화분을 보인다.) T : (페트병 들고 서 있는 남아에게) 거기 놓고 앉아, 앉을래? 한열인 이가희 불러와. (아빠다리 하고 흙바닥에 철퍼덕 앉은 유아에게) 얘, 그렇게 아빠처럼 안 앉아도 돼. 기 훈 : (손 씻고 온다.) T : 기훈이 여기 흙 담아. 빨간 삽으로, 모래 만지지 말고. 선우야, 선우는 여기 앉아. 유 아 : 선생님 이 정도면 돼요? (흙 보인다.) T : (남아에게 고개 끄덕이고, 흙을 찾아 꽃밭으로 들어가려는 영재에게) 영재는 여기 흙 있잖아? 철퍼덕 바닥에 앉은 한열에게) 한열인 앉지 마, 철퍼덕 앉지 마. 민 섭 : 무궁화는 어디 있어요? T : 좀 기다려라. 기훈인 흙 담았니?

시 간	내 용
11 : 35	기 훈 : (화분 보이며) 담았는데요. 유 아 : 삽 어디 있어요? T : 친구들이 다 쓰면 써. (선우에게) 이건 (모래를 가리키며) 담으면 안 돼, 더 담아야지. (13명이 모였다. 많이 담은 민섭이의 흙을 다른 유아의 것과 섞어 준다.) 선 우 : (꽃밭으로 들어가려 한다.) T : 선우야, 여기 있잖니, (흙을 가리키며) 거기는 왜 들어가니? (선우 나오고, 교사가 직접 삽으로 모래를 빼고 흙을 담아 준다.) T : 민섭이 너무 앞으로 들어오지 말고, 너 이쪽으로 들어가고, (계속 자리를 만들어 준다.) 선우 이리와 앉아. (선우 앉는다.) 조금만 뒤로. (유아들이 작업을 한다.) T : 이제 선생님에게 얘기해 보자. 근데 이거 네 거니? (기훈이를 향해 화분을 가리키며) 기훈이도 이렇게 많이 담았다. (손으로 흙을 누르며) 이걸 이렇게 꾹꾹 다져. 재민이(아빠다리 하고 있다) 너는 이렇게 앉지 말고 (옆에 쪼그리고 앉은 유아 가리키며) 이렇게 친구처럼 앉아라. (여아들의 화분을 보고) 아이고, 너희들 너무 많이 담았다. 다 눌렀니? 눌러봐. (유아들의 화분을 돌아가며 다 눌러준다.) T : (꽃씨 바구니를 보이며) 조그만 이 씨가 뭐지? 유아들 : 사루비아. T : 이건? 작은 씨? 이건 해바라기. (씨들을 가리키며) 내가 뭐 심는지 잘 알아 둬야 해. 재 희 : (교사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 T : (남아의 화분을 보며) 구멍을 이렇게 깊게 파면, (나뭇가지를 들고 깊이 손으로 집어서 보여 준다.) 안 되지. (꽃씨 네 개를 한꺼번에 넣는 남아에게) 네 개 한꺼번에 넣지 말고 하나씩 심어, 하나씩. (예연에게) 너는 구멍이 너무 얕다. 좀 깊게 파라. 유 아 : 난 봉선화 심을래요.

시 간	내 용
	T : 선생님처럼 이렇게 넣고, 흙으로 덮어야 해. (씨앗을 넣고 흙을 덮는다.) 유 아 : 선생님, 저 여러 가지 할래요. T :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여아 3명, 남아 10명 총 13명이 화분에 꽃씨를 심고 있다.) 재 혁 : (여아와 함께 나타난다.) 정현이가 먹인다고 해서 줬는데, 안 논다 간다 그래서…. 유 아 : 선생님, 전 채소 가져왔어요. T : 가져온 건 여기다 놓고, 선생님이 오늘은 꽃씨 심는다 그랬지? (유아들 간다.) (화분을 교사에게 주고 가려는 예연이에게) 잠깐만, 예연아, 씨앗이 다 보여. (일어나는 원희에게) 앉아 봐, 앉아 봐. 예연아, 무슨 씨 심었니? 예 연 : 분꽃이요.
11 : 41	유아들 : 선생님! 선생님! T : 그래, 씨앗이 흙으로 들어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유 아 : 물 줘. 유 아 : 배고파. T : 또? 재 희 : (얼굴을 찌푸리고 다가오며) 선생님, 오줌 마려워요. T : (재희를 잡고) 그래, 그러면, 유치원에 들어가서 주방에 가서, 주방 아줌마한테 집에 전화해 달라고 해라. (재희 간다.) T : (다시 유아들에게) 겨우내 서랍 속에 살다가 햇빛을 만났어. 유아들 : (다 함께) 좋아요.
11 : 45	T : 또? 행복해. 점점 커져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유아들을 향해) 이제, 소원이 뭘 것 같아? 유 아 : 물! 꽃 피워요!

시 간	내 용
11 : 50	T : 그래, 꽃 피워서, 민섭이, 한열이 보여 주고 싶겠다. 다른 친구, 다른 꽃들을 보고 싶다. 물조리가 언제 준비된다고 그랬지? 내일. 그러니까 내일 물주기로 하고, 화분 두고 가자. (꽃씨를 받아 바구니에 담는다. 선반 위의 화분과 아직 심지 않은 페트병 바구니 정리한다.) (마당에는 옆 반 유아들과 주 교사 한 명, 교생 한 명이 나와 있다.) T : 구름반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자.
11 : 55	(유아들 한 줄로 줄 세운 뒤, 맨 앞줄의 유아 손 잡고 교실로 올라간다. 교사 들어와 유아들이 웃옷을 교실 밖 입구 옷걸이에 걸고 들어오는 동안 낮은 다목적 책상을 그룹 영역 가운데 놓아 주고, 교사 의자를 갖다 앉는다. 유아 일부는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고, 일부는 교실에서 돌아다닌다. 정현이랑 정원이 앞에 나와 앉아 있다. 교사는 서서 식탁보를 들고 팔짱을 끼고 잠시 유아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자리를 정리한다.) T : 전정민, 정리하고 앞에 와서 앉자. 현성이 옆에 와서 나오세요. (지나가는 민섭이의 어깨를 잡고) 민섭아. 민 섭 : 네. T : '왔습니다.' 안 했지? 나가서 하고 와라. (출석표의 사진에 이름표를 붙이러 보낸다. 따라 나간다. 밖에서 우왕좌왕하는 유아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들, 줄 서서 들어가자. T : (다시 교실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노래를 시작한다.) 맨 처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 (유아들 따라 부르며 모여 앉는다. 나머지 남아들과 보조 교사 들어온다.) T : (노래를 부르며, 장난치는 유아들 데리고 와 교사 옆에 앉힌다. 손으로 6자 만들며) 여섯째 날 남자애 만드시고, 생명 주시어 ♪ (13명이 바닥에 앉고 16명이 의자에 앉고, 3명이 교사 앞에 앉아 있다. 일부는 아직 자리에 안 앉았다.)
12 : 00	T : 승수 일어나세요. 민섭이 일어나고. (교사 장난치는 유아들 자리를 바꾸어 주고, 그 사이 대열엔 1명 더 와 앉는다.) 현성이 여기 와서

시 간	내 용
	앉으세요. (교사 옆에 몇 명 앉힌다.) 여기 앉는 사람은 조금 잘하는 사람보고 배우라고 그래야겠다. (이때, 상희가 교사와 유아 사이를 가로질러 간다.) 상희, 어디 갔다 오니? 방해하면 안 되지? 이쪽으로 앉은 사람 (카펫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아빠처럼 앉는다. (교사 옆의 유아들에게) 잘 보고 앉아. (주방 아줌마가 급식 삼단 수레차를 끌고 온다.) T : 오늘은 간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먹는다. 은주 나와서 컵 갖다 놓아라. (은주가 나와서 컵을 놓는 시범을 보인다.) 정찬이가 나와서 집어봐. (은주가 나와서 컵을 놓는 시범을 보인다.) (유아들을 향해) 잘 보세요. 너희 가져갈 때 왼쪽부터 가져가야지, 제일 왼쪽. 왼쪽이 어디야? 손잡이는 어디야? (정찬이가 잘 못 하자 잡아서 교정해 준다.) 다음에 연정이 집어요. (연정이 나와서 한다.) 왼쪽부터 놓고 두 줄만 쌓는 거야. T : (승수가 장난치는 것 발견하고) 승수는 계속 앉아 있고, 나머지는 들어가라. (승수 빼고 두 명은 자리로 들어간다. 승수도 들어가려 한다.) 승수 앉아. (다시 유아들을 향해)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승수에게) 승수? 승 수 : 컵을 엎을 수도 있고, 보기에도 나쁘고, 방해가 되니까. T :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승수가 이렇게 생각을 잘하는구나.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자. (승수 들여보낸다.) T : (유아들에게) 자, 여기서 도시락 가져오면서 물도 가져오는 거야. 집에서 물 가져온 사람은 물컵 가져와야 할까? 유아들 : 아뇨. T : 그래, 물컵 가져올 필요 없고 물 가져온 거 먹는 거다. (자리 치우는 것을 도우며 급식 당번 명찰 바구니 들고 온다.) 점심 당번은 먼저 갈 거야. 한길이 얘기해 보자. 점심 당번은 무엇을 해야 하지?

시 간	내 용
12 : 04	한 길 : (일어나서 교사 옆에 서서) 물통 갖다 놓고, T : 물통 갖다 놓기 전에, 유 아 : 행주 갖다 책상 닦고…. T : 어, 지금 한길이가 말하는 거야. 한 길 : 행… 행주…. T : (단호하게 정리해 준다.) 행주, 물통, 선생님이 주시는 반찬 그릇. 한 길 : (자리에 들어가 앉는다.) T : 선생님이 밥이랑 반찬 주실 때, 요만큼 갖다 놓고, '선생님, 안 먹으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 조금만 먹으려면, '밥 조금만 주세요, 덜 주세요' 말을 하세요. '못 먹어요' 하는 건 안 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물도 남기면 안 돼. 물도 아깝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인데. 정말 못 먹겠으면 손 씻는 데 사용해야 해. 그냥 버리면 안 된다. 못 먹는 건 없어. 조금이라도 먹는 거야. 왜 점심을 먹어야 하지? 내 몸에 영양분이 되는 거니까. 눈도 좋아지고, 생각도 크고, 뼈도 튼튼해지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야 하겠지? 잘 못 먹으면 '조금만 주세요'라고 해. 아주 안 먹을 수는 없다. T : (당번 바구니에서 이름을 확인하며) 당번 나오세요. 진영재, 넌 1분단이다. 의자 치우고 나와라. 영재, 먼저 손 씻고. (의자 들고 갖다 놓으며) 김민섭 2분단. (당번의 목에 당번 목걸이를 걸어 준다.) (재희 들어온다. 문밖의 엄마와 창을 통해 안녕 인사를 손으로 하고 대열에 합류한다.) T : 송기훈 3분단. (기훈이 나온다.) 김원희 4분단, 5분단은 김명은(바구니에서 급식 당번 목걸이를 찾아 준다.) (다른 곳으로 가는 기훈에게) 얘, 너 거기 써 있잖아, 3분단. (원희에게) 원희야, 넌 몇 분단이니? 4분단인데 왜 3분단으로 가니? 두 번째 줄 있어? 봐. 그다음, 전정민 6분단. 너희들은 손 씻고, 행주질부터 해. 카펫에 앉은 친구는 도시락 갖고 오는 거야. 도시락 갖고 와서, 손부

시 간	내 용
	터 씻고. (카펫에서 일어난 유아들 일어나서 도시락을 가지러 밖으로 나간다.) T : 원희야. 너 어디 앉았니? 연정아, 카펫에 앉은 친구 다 일어나거라. 자, 승수 일어나서 가세요. 책상 치우고, 작은 걸상에 앉은 아이들도 이제 일어나세요. 자 이제 손 씻어요. (도시락 들고 돌아다니는 승수에게) 승수야, 도시락 놓고 손 씻어야 해. (유아들은 하나씩 손 씻은 후 물컵을 가지러 간다.) T : 그다음, (보조 교사에게) 행주 쟁반은 어디 있지요? (보조 교사 행주 쟁반을 찾아 준다. 장난치는 은주를 발견하고) 누구야? 은주야, (여아 5명이 물컵 가지러 오자) 너 물 가져왔니? 행주는? (늘어진 유아의 소맷자락 걷어 준다.)
12 : 08	지 연 : 선생님 도시락 안 가져왔어요. T : 다음부턴 잊어버리면 안 돼. (반찬 그릇 하나를 내어 주며) 이거 가져가. (남은 숟가락을 찾아주고 포크도 준다.) T : (컵을 그냥 잡는 민섭에게) 컵 손잡이가 있잖아? (정규, 한열 등 손 씻으러 화장실에 갔던 유아들, 한 명씩 들어오며 급식 수레에서 컵 가져간다.) T : (급식 수레차 옆에서 각 분단의 도시락 준비하는 유아들을 살핀다.) (물주전자 가지러 온 기훈에게) 행주질 했어? (기훈 고개 끄덕인다.) 재 희 :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선생님, 도시락 안 꺼내져요. T : (재희를 데리고 장으로 간다. 가방이 끼어 빡빡한 서랍에서 가방을 꺼내어 꺼내준다. 장 위의 선반을 가리키며) 도시락은 여기다 올려놨어야지. 자, 가도 된다. (옆으로 온 연정, 애리에게) 연정아, 애리야, 너희들은 도시락을 꺼내서 여기 놓는 거야. (연정, 애리 교실로 들어가고 재희 따라 들어간다. 교사도 뒤따라간다.) T : (교실로 들어와서 은주를 보고) 너 컵 안 가져도 되니? (물컵을 준다.) 은 주 : (컵을 받아 들고 자리로 돌아간다.)

시 간	내 용
	T : (손잡이를 안 잡고 컵을 잡고 가는 은주에게) 은주야. 손잡이야, 손잡이. (물컵을 다시 돌려놓는 남아에게) 왼쪽이라고 했지? 그건 오른쪽이야. (재희, 옆에서 넘어진다.) 남 아 : 선생님, 얘요! T : 왜 그래? 넘어졌어? 일어나 봐. (재희, 일어난다.) (앞서가는 승수를 부른다.) 승수야, 이리와 봐. (승수 온다.) 너, 재희 지나가는 거 몰랐어? 알았어? 승 수 : 몰랐어요. T : 그러면 얼른 일으켜 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승 수 : (재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미안해. T : (승수와 재희에게) 앉으세요. 승 수 : (교사에게 설명하며, 피아노 의자를 만진다.) 여기 부딪혔어요. 부딪히면 아픈데…. T :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승 수 : 네.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T : (교사 다른 점심 책상으로 간다.) 수민이, 기훈이 여기 앉아. 맡는 것 없어. (6명이 앉는 책상을 가리키며) 여기 옆에 앉을 수 있잖아. (다른 유아를 향하여) 네가 여기 앉을래? (기훈이가 자리 지나가고 수민이의 자리에 앉는다.) 너는 여기 앉는 게 더 좋겠다. (여분의 의자를 치운다.) T : (다시 밥통이 있는 급식 수레차 옆으로 가서 의자를 놓고 앉는다.) (주걱을 한 손에 들고, 유아들을 향해) 자, 밥 가지러 와라. (도시락 들고 유아들이 온다. 귀에 도시락을 대는 유아도 있다.)
12 : 14	T : 귀에 대면 씻어 와야지. 씻어 가지고 와. (밥통을 열고 주걱을 들고 줄 세운다.) 의자에 앉아라. (서서 장난치는 유아들에게) 도시락 들고 와.

시 간	내 용
	T : (줄선 유아들을 한 명씩 주걱으로 밥을 퍼 준다.) 됐지? 됐어? (남아 고개만 끄덕이다 그냥 간다.) '고맙습니다' 하고. 유 아 : 고맙습니다. T : (다음 여아에게) 다음, 됐어? 유 아 :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반복된다.) T : (준석에게 밥을 퍼 주며) [평소에 거의 밥을 안 먹는 유아임] 너 이건 진짜 다 먹어야 한다. (아주 조금 퍼 준다.) 준 석 : 네. T : (정규에게 밥을 퍼 준 뒤) 됐어? 정 규 : (안경에 김이 서리자) 선생님! 연기. T : 김이야. 김. (이와 같이 계속 반복된다.) 정 수 : 많이 주세요. T : (다정하게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밥 잘 먹네, 먹고 더 먹어. (재희에게) 아까 코피 난 거 괜찮아? 재 희 : 네. (밥 받아 갖고 간다.) T : (민섭에게) 민섭아, 아픈 거 다 났어? (이마 만져 준다.) 민 섭 : 아직 아파요. (이와 같이 계속 반복된다.) T : (트라이앵글 한 번 친다.) 얘들아, 준비되면 기도 먼저 하고 먹으랬잖아? (보조 교사 반찬을 덜어 나누어 주고 있다. 이 날의 식단은 보리밥, 감자국, 김구이, 김치, 고기산적이며, 밥과 국은 교사가 퍼 주고, 김구이는 도시락 김을 둘씩 나누어 먹으며, 김치는 분단별로 접시에 놓아 주어 각자 덜어 먹고, 고기산적은 네 개씩이다.)

시 간	내 용
12 : 26	기 훈 : 선생님, 기도 다 했어요, 먹어도 돼요? T : 그래, 기도 다 한 사람은 점심 먹어라. (분단별로 돌아다닌다. 2분단에게 가서) 너희들 왜 그렇게 시끄럽니? (유아들 바로 앉아 식사한다.) (3분단에 가서) 너희들은 책상이 왜 이렇게 비뚤어졌어? (책상을 바로 잡아 준다.) (수레차에 가서 일회용 김을 갖고 온다.) 김은 하나 갖고 둘이 먹는 거야. (김을 나누어 준다.) (4분단에 간다.) (보조 교사가 김을 반으로 잘라 준다) 승수야, 넌 똑바로 앉아 먹어. 자 이건 너희들이 먹고. (김을 반쪽씩 나누어 준다.) 2분단 유아 : 선생님, 저도 반찬이요. T : 기다려, 너희들도 주실 거야. 승 수 : (고기 산적을 가리키며) 몇 개씩 먹으면 돼요?
12 : 31	T : 네 개씩. (5분단으로 가서 둘러 본 뒤 다시 밥통이 있는 곳으로 가, 쪼그리고 앉아서 국그릇에 감자국을 뜬다.) (보조 교사 국그릇을 나른다.) (몇 명 유아들 직접 국을 받으러 온다.) T : 이거 먹을 수 있니? 유 아 : (고개를 젓는다.) T : 조금 먹을래? 유 아 : (고개 끄덕인다.) T : (국의 양을 조절하여 준다.) 유 아 : (국그릇 들고 자리로 간다.) (교사는 뜨던 국을 보조 교사에게 맡기고 각 분단별로 돌아다니며 그릇 세팅을 도와준다. 도시락 밥그릇, 반찬통, 수저통, 물컵 등의 위치를 하나하나 바르게 해준다.) T : (밥을 다 먹어 가는 민지에게) 민지, 맛있게 잘 먹네? 민 지 : (밥그릇을 내밀며) 더 주세요! (교사와 유아 함께 밥통 쪽으로 간다. 직접 유아에게 주걱을 준다.) T : 너 먹을 만큼만 가져가. 많이 가져가면 안 돼. (여아가 주걱질을 하

시 간	내 용
	나 주걱질이 서투르자 도와준다. 뒤따라온 남아 3명, 여아 1명도 같은 식이다.) (다시 분단을 돌아다닌다.) T : 태영인 이거 필요 없잖아? (빈 도시락 뚜껑을 책상 가운데로 치워 주며) 이거 여기다 놓지 말고 가운데 놓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왼편에 있던 국그릇을 밥그릇 오른쪽에 놓아 주며) 국은 여기에. 정규! 너는 이걸 접어서 (도시락보를 들며) 여기다 놓아야지. (책상 가운데에 놓는다.) 이건 밥 먹는 데 필요 없는 거잖아? (다시 다른 분단으로 간다.) 신애야, 이 김은 네 거니? 선 우 : (고개를 흔들며) 같이 먹는 거예요. T : 같이 먹는 거야? (옆의 물컵을 보고) 이건 누구 컵이니? 왜 물이 없어? 남 아 : (물주전자에서 물을 조금 따른다.) T : (자세가 불량한 남아에게) 넌 의자 끌어다 바로 앉아. (여아 1명, 남아 5명 있는 다른 책상으로 가며) 영재야, 넌 발 집어넣고, 원희야, 컵이 어디로 가야 하지? 국은? (그릇을 세팅해 준다.) 현우 아주 잘 놓고 앉아 먹었는데, 국이 바뀌었다. (국그릇 위치 잡아 준다.) 젓가락은 여기다 이렇게 놔야지. (젓가락도 바르게 해준다.) (6명 돌아가며 일일이 봐 준다.) (다음 2분단 5명이 있는 책상으로 간다.) 다 먹었니? 의자 바로 하고. (뒤 남아에게) 왜 먹다 말고 남의 것 장난치지? 호 선 : (밥 먹고 도시락을 그냥 놔두고 물컵과 국그릇을 들고 간다.) T : 호선아, 일어날 때는 네 것 다 챙긴 후 일어나는 거다. 호 선 : (다시 앉아 도시락 정리한 후 자리에서 일어난다.) T : 한열인 아주 잘 놓았는데? (머리 쓰다듬어 준다.) (다음 3분단, 남아 4명과, 여아 2명이 있다.) T : (기지개 펴는 기훈에게) 기훈아, 지금 운동하는 시간 아니야. 밥 먹는 시간이야. (현성이 옆에 바닥에 앉아 의자 들어 주며), 현성이 오늘 참 잘 먹네.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데?

시 간	내 용
12 : 40	기 훈 : (밥그릇을 내밀며) 더 주세요. 원 희 : 저도요. (교사와 유아가 함께 밥통 쪽으로 간다.) T : (원희에게 주걱을 주며) [밥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 네가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못 먹어. 먹을 만큼만 가져가. (주걱으로 푸는 것 살펴본다. 잘 안 퍼지자, 밥을 푸기 쉽게 퍼준다. 다시 원희에게 주걱을 주고 원희가 뜨는 것을 본다. 교사와 기훈이, 원희가 밥을 푸는 것을 바라본다.) 기 훈 : 저도 조금 더 주세요. T : (기훈에게 주걱을 쥐어 주며) 너, 너무 많이 가져가면 다 못 먹는다. 기 훈 : (밥 푸고, 교사 밥통 뚜껑 닫고 옆 의자에 앉아 있다. 교실 내 유아들을 바라본다. 기훈 국그릇 가져온다.) T : 더 줘? 기 훈 : (급식 수레에 국그릇을 넣으며) 아뇨. T : (행주로 수레차에 현성이가 흘린 물을 닦아 준다.) 여 아 : 선생님, 다 먹었어요. (물컵과 국그릇을 수레에 넣는다.) T : 그래? [반응해 준다.] (분단으로 가서 둘러본다.) 기 훈 : (반찬 접시를 가리키며) 이거 더 주세요. T : 국? 기 훈 : 아뇨, 김치. T : (김치를 가져다준다.) 현 성 : (고기산적을 떨어뜨렸는데 주워 먹으려 한다.) T : 이거 떨어졌는데, 먹으면 안 돼. 고기 더 줘? (남은 여분을 확인하고 온다.) 없으니까, 있는 것하고 먹자. 영재, 바르게 앉으세요. (돌아다니며 각 책상을 살펴본다.) 여기 당번 누구냐? 유 아 : 김민섭이요. (김민섭을 찾아 둘러보고 분단으로 돌려보낸다.) T : (자신의 밥과 반찬을 급식 수레차에서 챙긴다. 유아들을 향해) 얘들

시 간	내 용
	아, 너희 선택 활동 시간이니까, 너희가 할 것 계획해. 여 아 : (수레차로 빈 그릇을 들고 오며) 선생님, 다 먹은 것 어디다 놔요? T : (가리키며) 밑에. (유아 서서 고개 숙인다.) 앉아서, 앉아서 해. (인터폰으로 부족한 반찬을 더 주문한다. 주방에서 반찬 더 가져오고, 유아들 밥 먹는 빈자리에 앉는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본다.) (옆의 여아에게) 연정이 맛있게 먹었어? 연 정 : 네. T : 배 아픈 것 괜찮아? 연 정 :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T : (성주에게) 너, 더 먹고 싶은 것 있음 더 먹어. 김치 더 줄까? 성 주 : (고개를 끄덕인다.) T : (김치를 그릇에 담아 준다.) T : (식사하다 음식을 친구에게 던지며 장난치는 기훈 발견하고 그쪽으로 간다.) 기훈이 혼자 먹어야지 같이 못 먹겠다. 현성아, 음식을 누가 먼저 던지자 그랬어? (현성, 선우를 가리키며) 선우, 네가 그랬니? 선 우 : (고개를 저으며) 아뇨. T : (현성과 선우를 가리키며) 너희 둘이 먼저 던졌어? 선 우 : (숟가락을 입에 물고) 응~ 왜냐면은요…. T : 숟가락 빼고 얘기해. 선 우 : (숟가락 빼고) 현성이하고요, 얘가요, T : 얘가 먼저 던지자 그랬어? (현성이를 지목한다.) 선 우 : (고개만 끄덕인다.) T : (현성이를 보고) 먹는 음식인데, 왜 던졌어? 현 성 : 난 안 그랬어요. T : 왜 던졌어? 이게 먹는 음식인데, 아빠, 엄마가 던지면서 먹니? 현 성 : (무반응)

시 간	내 용
	재 희 : (옆으로 와서 부르며) 선생님~.
	T : (심각하게 계속 현성이만 쳐다보고, 재희에게 말로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계속 현성에게) 아니지? 음식은 귀한 거야.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지. 던져도 될까? 대답해 봐.
	현 성 : 아뇨.
	재 희 : (기다리다 가버린다.)
	T : 정규야, 너도 따라 던졌니? (정규, 고개 끄덕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음식을 다 던져 버리면, 그럼 될까? 기훈인 어떻게 생각해?
	선 우 : 선생님~, 근데요~?
12 : 48	T : (선우에게) 조금 기다리세요. (기훈에게) 친구가 던지면 어떻게 해야 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겠니? 어때? 정규는 어떻게 생각해? 친구가 던지면 어떻게 해야겠어? 하지 말라고 해야겠지? 먼저 한 사람이 사과하자.
	현 성 : (자기 분단의 유아들에게) 미안해, 미안해.
	T : 너도, 기훈이, 정규. (반찬을 던지지 않은 나머지 두 남아를 가리키며) 여기 둘한테 특히 미안한 거야.
	기훈, 정규 : 미안해, 미안해.
	T : 선우도 사과해.
	선 우 : 미안해, 미안해.
	T : 그래. [사태를 수습하고, 자리로 돌아가서 식사를 계속한다.]
	유 아 : (다가온다.) 선생님 놀아도 돼요?
	T : 그래. 선택 활동 시간이다. 여기 당번은 누구지?
	재희, 세원 : 이명민!
12 : 55	원 희 : (행주 쟁반에서 행주 꺼내어 자기 분단 행주질한다.)
	T : (치우는 유아들을 바라보며 식사를 계속 한다.)
	성 희 : (교사에게 와서 남은 음식을 보여 주며) 선생님 이거 버려요?
	T : 저기 다 모아놓자. (남은 음식 그릇을 같이 옮겨 담는다.)

시 간	내 용
	T : (식사를 하다가, 정리하다 뛰어다니는 기훈이, 보람이 발견한다.) 기훈이, 보람아! 기훈아, 앉아, 자리 가서 치워라. 너네 정리해야지, 국그릇 갖다놓고. (현성이 밥 안 먹고 장난치자 그리로 가서) 똑바로 앉아. 밥 다 먹고 놀아야지. 가영아, 이거 흘린 것 다 치우고! 의자도 안 치우고, 왜 일어나니? 다 치우고 일어나야지. (컴퓨터 영역에 가서 스피커를 켜 준다.) 가 영 : 선생님, 기훈이 것도 치워요? T : (머리 쓰다듬으며) 아니, 네 것만 치워. 기훈이건 기훈이가 치울 테니까. (열린 문을 닫고 돌아와 다시 식사를 계속한다.) [식사를 하나, 계속 유아들을 주시하고 있다.] 재 희 : (도시락을 보여 주며) 다 먹었어요. T : 잘 먹었다. 도시락 갖다 두자. 보 람 : 듣기 카세트 틀어주세요. (교사 듣기방에 가서 틀어 준다.) T : (기훈에게) 다 치우고 여기 앉아서 친구들 하나 안하나 보고 있다가 이것도(물컵) 치우고 가야지? 급식 당번이잖아? (목걸이를 흔들어 보이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수 민 : (먹고 일어나 정리한다.) T : 송기훈, 넌 여기 앉아 있어야 해. 당번이 이거 치워야지! 역할놀이방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니?
13 : 00	수 민 : (물주전자를 들고) 선생님 이거 가져가요? T : 네가 하는 것 아니야. 기훈이가 치울 거야. 넌, 네가 먹은 것 정리하고, 기훈이 불러 치우게 하고, 행주 가져와. 입에 음식 넣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다른 분단으로 간다. 선우 이리로 와, 선우야, 너 먹은 국그릇 안 치웠어. 국그릇 갖고 가. 현성아, 의자 어떻게 해야 하니? 현성이 다 먹은 것 의자 치우고, 요담에 이것 다 먹어야 해. (감자국, 물컵 쥐어

시 간	내 용
	줌, 같이 들고 가서 남은 반찬들을 모은다.)
	(다른 분단으로 다시 감.)
	T : (여아 한 명과 함께 남아있는 예성에게 손뼉 치며) 오늘 다 먹었구나! 멋있어라. 여기 당번 누구니?
	유 아 : (영재를 가리키며) 재요.
	T : 영재야, 여기 정리하고, 휴지 좀 가져오고, 이거 닦자. (흘린 반찬을 닦는다.)
	(보조 교사 의자를 대그룹 영역으로 갖다 놓는다.)
	(식사를 끝마친 교사, 분단별로 돌다, 의자 갖다 놓고 마지막 책상 정리를 돕는다. 교사 장에서 트라이앵글을 집어 와, 트라이앵글을 치며)
13 : 05	T : 다 정리하고 이름표 넣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한다, 동그라미. (놀이계획표 확인 작업) (수·조작놀이 하는 유아들에게 가서 함께 맞추며 정리를 돕는다. 남아 1명, 여아 1명 함께 퍼즐을 맞춘다.) (재희가 온다.)
	T : 재희, 이거 한 번 해 보겠니? (재희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T : 재희 이리 오세요. (옆에 있는 현우를 보고) 현우도 오세요. (현우도 와서 거든다.
	(한길이 옆에서 이야기나누기 대열 의자를 만든다.)
13 : 09	T : 한길아, 미안하지만, 지금은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다. 다시 의자를 제자리에 놓는다. (거의 퍼즐이 완성되자 일어난다. 컴퓨터 영역으로 간다.) 일어나서 정리하세요. (의자를 정리해 주며) 정리하세요.
	(쌓기놀이 영역으로 간다.) 여기, 여기 다 하고 정리하자. 자리에 앉는다. (의자들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유 아 : (실내화를 들고 와 보여 준다.) 이거 송기훈 거예요.
	기 훈 : (어디선가 와서는) 제거예요. (실내화를 가지고 와 신는다.)
	T : 기훈아, 의자도 정리하고, 신발 신고, (책상 위의 스테이플러, 가위 챙겨 제 자리에 놓는다.) 의자는 가져오지 말고….
13 : 13	(교사 가운데서 트라이앵글 들고 서 있다. 쌓기놀이 영역 쪽을 향해 의자 놓

시 간	내 용
13 : 17	고 앉아 트라이앵글 치며, '씨씨씨를 뿌리고' 노래를 시작한다.) 유아들 : (책상 정리하며 유아들 노래 따라 부른다.) T : 여기 와서 앉아라, 의자 갖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쌓기 영역 쪽으로 유아들을 유도하며, 의자 들고 오는 유아들을 말린다.) 얘들아, 일어나. (다른 영역에서 노는 유아들을 몰아온다.) 의자 다 치우고 저기 가서 앉아라. (쌓기놀이 방의 빈자리를 가리킨다.) 유아들 : (호들갑스럽게) 선생님! 올챙이 쏟았어요! (남아 5명, 여아 3명 과학방에 모여 있다. 올챙이 수조가 엎어져 있다.) 유아들 : 올챙이! 올챙이! (대열 흐트러지며 유아들 과학방으로 몰려온다.) T : (과학방으로 가서) 여기, 여기, 도화지 가져와라. (한 유아 도화지 가져온다.) (교사 올챙이를 도화지로 쓸어 담는다.) (몰려드는 유아들에게) 가서 앉아. 가서 앉아. (대강 정리하고 돌아와 트라이앵글들을 다시 한 번 친다.) T : 손바닥 소리 안 나게 쳐 보세요. 선생님이 소리 안 나게 해볼 테니까, 소리 안 나게 쳐 보세요. (유아들 소리 안 나게 박수치는 흉내를 낸다.) 나이롱 박수야. 다시 한 번 하세요. 손바닥으로 쳐야지. [유아들은 바닥에 여섯 줄로 앉아 있다.] T :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올챙이 쏟지 않았을 텐데, 올챙이가 쏟아졌어요. 가희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빨리 걸어서 의자를 갖다 놓으려 생각하니까, 의자는 안 가져와도 된다고 했는데, 가희는 잘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귀를 기울여야지, 잘 들어야지. T : 자, 당번 나오세요. (유아 몇 명 우르르 일어나 나온다. 당번 아닌 남아를 보고) 너는 아니잖니? (남아 다시 자리로 들어간다.) 1분단–송기훈! 여기 와서 서고, (자신의 옆으로 의자에 앉은 채 세운다.) 민섭이 너는 뭐 하니? 여기 나와 있어야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잘 서야 하겠다. 이명민? 여기 서세요. (자리를 잡아 준다. 실내화 구겨 신

시 간	내 용
	은 것을 보고) 신발 맞게 신어야지. 오늘 당번들은 앞으로 나와, 이렇게 서 있어. (유아들에게) 오늘 당번, 제일 잘한 사람이 있어. 끝까지 잘한 사람이 있어요. (유아 몇 명 손든다.) 너희가 당번이냐? (당번 중에서 손든다.) 그래, 여기 정민이, 영재, 원희. (기훈이도 나선다.) 기훈이, 넌 아니잖아. 넌 몇 번이나 역할놀이 영역에 가 있지 않았니? (다시 유아들에게) 이 세 사람은 너무나 잘했어요, 끝까지 잘하고, 모두 앉으세요. (당번들을 앉힌다.) 이 세 사람만 일어나. (세 사람 일어난다.) 이 세 사람에게 모두 박수를 크게 쳐 주자. (모두 손뼉 친다.)
13 : 20	T : 기훈이한테 물어볼게. 점심 당번하는 게 쉬워? 기 훈 : 어려워요. T : 나현이 생각해 보자, 왜 거기 그러고 있지? (다시 전체 유아에게) 기훈이가 너무 어렵다고 해. 그런데 왜 시킬까? 원 희 : 재밌으라고. T : 원희야, 재밌으라고? 아니야. 유 아 : (산발적으로) 잘하라고, 잘하라고! T : 친구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라고. 저 친구 힘들겠다, 그래서 힘든 것부터 시키는 거야. 잘한 사람부터 나갈 수 있겠다. 똑바로 앉자. 이 세 사람은 점심 당번 이름표 떼고 나가자. 유 아 : 어디 가요? T : 집에 가는 시간이다. 유 아 : 동화는요? T : (융판의 계획을 가리키며) 오늘 없지? 유 아 : 과학은요? T : 씨앗 심는 거 했잖아? 오늘 할 거 다 한 거야.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간다.) T : 앞줄 일어나세요. (유아들 줄 서서 나간다.)

시 간	내 용
	T : (방을 나가 이름표의 출석표 사진 이름표 떼는 것을 바라보며) 두 사람씩, 두 사람씩. (방 안에 줄선 유아들이 옆의 컴퓨터를 만지는 것을 보고) 얘, 거기 컴퓨터 만지지 말고!
13 : 28	(보조 교사가 유아들의 귀가 차량에 따라 복도에 줄 세우는 것을 돕는다. 옆 반 유아들과 교사, 교생도 나온다.)
	T : (이름표 떼는 것 보면서) 승수야, 넌 이거 안했지?
	연 정 : (옷 들고 오며) 이거 해주세요.
	T : 잘할 것 같은데, (옷 입는 것 도와주며) 너 배 아픈 건 어떠니?
	연 정 : 괜찮아요.
	T : (줄이 다 세워지자 맨 앞에 선 재희 손을 잡고 내려간다.)
	보조T : (교실에는 3시에 데리러 오실 부모님을 기다리는 선우와 혜리만 남아 있다.)
	(교사는 현관 입구에서 실내화 벗고 신발 갈아 신는 것 지도한다. 몇몇 학부모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다른 반 유아 : (지나가다 교사를 보고) 원장 선생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13 : 30	원 장 : (웃으며) 네.
	정 현 : 안녕히 계세요.
	T : (손 흔들며) 잘 가!
	유 아 : (삼삼오오 짝을 지어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인사한다.) 안녕히 계세요!
	T : (인사를 받을 때마다 함께 인사한 유아들 그룹 지어 한꺼번에 인사한다.) 잘 가! 안녕히 가세요!
	(버스는 유치원 현관 바로 앞에 코끼리차, 코뿔소차 두 대가 서 있다. 교사는 버스 떠날 때까지 유치원 현관 바로 앞에서 승차하는 유아들과 학부모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며 서 있다가 버스 떠난 뒤 유치원 안으로 들어간다.)

2 유아 행동 관찰 전사본

관찰 장소 노랑유치원 만 3세 삐약반 관찰 일자 2020년 4월 14일 수요일

관찰 시간 09 : 03 ~ 12 : 04 관찰 대상 이명훈(남)(생년월일: 2007. 4. 8)

날 씨 흐린 후 갬

- 진행 중인 생활 주제 : 봄
- 원아 수 : 15명 (결석 없음)
- 교사 수 : 주교사 1명, 부교사 1명, 교생2명(세 번째 실습), 보조 교사 겸 교생 1명(관찰자 본인)
- 일과 활동

9 : 00 ~ 10 : 55 등원, 실내 자유선택활동, 요리

• 미술, 컬러 흙 점토(보라) : 이전에 연두, 보라, 분홍 컬러 점토로 만들기를 한 경험이 있음

9 : 40 ~ 10 : 55 요리 활동 : '과자샌드' 만들기(네 집단으로 나누어 함)

• 유아가 직접 과자샌드를 만들어 보고 간식차에서 컵을 가지고 와서 우유와 함께 먹는다.
  - 한 그룹이 요리를 하는 동안 다른 그룹은 실내 자유선택활동을 한다.
  - 요리를 하고 간식을 먹은 유아들은 조용한 놀이(수·조작놀이, 책읽기, 도장 찍기, 과학 영역 등에서) 3가지를 한 후 실내 자유선택활동을 한다.
    * A 그룹 9:40 ~ 9:55 * B 그룹 9:55 ~ 10:10
    * C 그룹 10:10 ~ 10:25 * D 그룹 10:25 ~ 10:40

10 : 55 ~ 11 : 00 정리 정돈

11 : 00 ~ 11 : 10 새 노래 지도 '누구하고 노나'

11 : 10 ~ 12 : 00 실외 자유선택활동

12 : 00 ~ 12 : 15　귀가 지도

• 내일은 아빠와 함께 유치원에 오는 날, 아빠와 함께 오후 3:00까지 등원함을 알린다.

○ 관찰 시 특이 사항

- 교실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과학 영역과 도장 찍기 장소가 이동되었고, 사탕 모빌(4월 14, 15일에 만들기 한 것)을 교실 내 전등 아래 물결 모양으로 달았다.
- 등원 시에는 날씨가 흐려 난방을 하였으나 실내 자유선택활동을 하면서 기온이 오르자 난방을 중단하였다.
- 개별적으로 등원하기 때문에 08 : 45 ~ 09 : 05 사이(본래 등원 시간은 오전 9시임) 유아들이 등원하였다.
- 교생들이 세 번째 실습을 나오는 날인데 몇몇 유아들은 아직 낯설어하였다(인사를 머뭇거리면서 하였다).
- 요리는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처음 해보는 활동이다.
- 평소 간식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나 관찰일에는 요리 활동을 통해 만든 '과자샌드'와 유치원에서 준비한 간식차에서 가져온 우유를 컵에 따라서 함께 먹었다.

○ 관찰 내용 기록 및 표기의 참고 사항

- 교사들의 이름은 성을 T자 앞에 붙여 표기했다.
- 관찰의 대상이 되는 유아의 이름은 가명으로 '이름'을 진하게 하고 명암을 주어 표기했다.
- 그 밖의 유아의 이름은 가명으로 이름만 표기했다.
- 유아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유아'로 표기했다.
- 대학원 현장 연수생은 '연구생 T' 약어로 표기했다.
- 교생 실습생들은 '교생 1, 2'로 구분하여 표기했다.
- 보조 교사의 경우에는 '보조 T'로 표기했다.
  - [　　]는 관찰자의 의견을 기록할 때 사용했다.
  - (　　)는 관찰 대상의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했다.

○ 본 교사 행동 관찰 전사본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이유진 학생이 '유아 관찰' 시간에 제출한 과제물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시 간	내 용
09 : 03	(명훈이는 오른쪽 손에 당근과 오이가 길쭉하게(세로 5㎝, 두께 1.5㎝ 정도) 썰어져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쥐고 삐약반 입구 문 바로 왼쪽에 있는 자신의 장으로 보폭을 크게 하여 뚜벅뚜벅 걸어온다. 짐승 먹이가 든 비닐봉지 가운데에는 '이명훈'이라고 검은색으로 크게 적혀져 있다. 명훈이는 소매와 목덜미 부분은 흰색, 나머지 부분은 빨간색인 얇은 잠바를 입고 그 안에는 긴 소매 청남방과 노란색 조끼를 입었으며, 아래에는 연한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다.) [키는 대략 100㎝ 정도이며 피부는 아주 흰 편이고 볼에 살이 있어 약간 통통해 보인다.] 김 T :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고 상의에는 분홍색 카디건을 입고 있으며 아래에는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다.] (교실 입구에서 명훈이가 걸어오고 있는 복도의 명훈이 장 앞으로 빠른 걸음으로 나와 명훈이 앞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앉으면서) 어, 명훈이 왔어? (고개를 약간 숙이며 상체를 아래로 기울이면서 상냥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명훈 : (짐승 먹이를 오른손에 쥔 채로 두 손을 배꼽 앞에 모으고 고개를 45도로 숙여 교사를 향해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 T : (복도 쪽으로 고개를 약간 내밀며) 아빠는 오늘 같이 안 왔니? 명훈아, 내일 오신대? 명훈 : (교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오른손에 쥔 짐승 먹이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교사 얼굴 앞으로 내밀며) 아빠가 이름 적어 줬어요. 김 T : (두 손으로 짐승 먹이가 든 비닐봉지를 받아 들면서) 이렇게 명훈이 아빠는 자상도 하시다. (짐승 먹이 비닐봉지를 교사의 오른쪽 바닥에 내려놓고 명훈이 잠바의 지퍼를 두 손으로 내리면서) 겉옷 걸어두고 명훈이 방신 신자. (명훈이는 잠바에서 오른쪽 팔을 먼저 뺀 후 교사가 왼쪽 팔 부분의 잠바 소

시 간	내 용
	매 쪽을 당기자 왼쪽 팔도 빼내어 잠바를 벗는다.) 김 T : (잠바 안쪽의 목에 닿는 부분에 붙어 있는 상표를 두 손으로 잡아서 명훈이에게 내밀며) 자, 잠바도 걸고요. (복도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달려오는 서연이를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의 오른손을 잡고서 서연이 개인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높고, 밝은 톤의 목소리로) 서연이 어서 와라.
09 : 05	(명훈이는 서연이와 교사를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상표 부분을 양손의 집게와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서 장에 붙어 있는 옷걸이에 건다. 자신의 장 앞에서 엉덩이는 바닥에 대지 않은 채 쭈그리고 앉아 장 선반에 있는 흰색 실내화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자신의 앞쪽 바닥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은 장을 잡고 왼손은 가슴 위로 약간 올린 채 들어서 왼쪽 발부터 실내화를 신는다. 바닥에 놓여 있던 짐승 먹이가 든 비닐봉지를 오른손으로 들고 교실 입구로 들어간다.) 나 T : (교실 입구 쪽, 이름 표시를 붙이는 장 앞에서 명훈이를 보고는 명훈이 왼쪽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눈가에 미소를 머금고 두 손을 뻗어 명훈이 두 팔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훈이 왔구나. 선생님하고 인사 좀 하자. (고개를 약간 아래로 숙이며) 안녕하세요. 명훈 : (교사의 인사와 동시에 양손을 배꼽 위에다 모으고 고개를 숙여 조금 작은 목소리로 공손하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T : (왼쪽으로 몸을 돌려 아래 선반에 놓인 병아리 모양의 이름표 3개를 왼손으로 명훈이 몸 앞쪽으로 모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끝을 조금 길게 빼며) 명훈이 병아리는 어디 있나? 명훈 : (자리에 앉아 오른쪽 끝에 있는 빨간색 체크무늬 나비넥타이를 매고 있는 병아리를 바로 찾아 오른손으로 들고는) 요기요. (병아리를 교사에게 보이고는 앞쪽 이름표 붙이는 곳에 붙인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잠시 서서 3초가량 쳐다본 후, 두 손으로 왼쪽 옆에 놓여 있는 바구니에 짐승 먹이가 든 비닐봉지를 담는다. 미술 책상에

시 간	내 용
	서 컬러 흙을 만지며 고개 숙여)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구생T : (점토를 둥글게 말다가 명훈이를 쳐다보며) 안녕, 명훈아. 민 우 : (쌓기놀이 영역에서 노란색 불도저를 타고 오면서 명훈이 옆에 멈추어 서서 명훈이를 위로 쳐다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연구생 T의 인사를 따라 하는 듯이 높은 톤의 목소리로] 안녕! [민우는 고동색 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고 있으며 명훈이보다 몸집이 더 크고 건강한 편이며 얼굴색이 약간 검고, 목소리가 굵고 낮은 편이다.] 명훈 : 말없이 민우를 힐끗 쳐다보고는 양손으로 허리 부분의 조끼를 잡은 채로 걸어서 쌓기놀이 영역으로 가서 바닥에 앉아 있는 교생 1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생1 : (명훈이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쳐다보면서) 그래, 안녕! 명훈 : (역할놀이 영역과 쌓기놀이 영역 사이에 서서 역할놀이 영역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교생2와 연희, 민지, 한수를 잠시 쳐다보다가 다시 쌓기 영역 쪽으로 몸을 돌려 불도저 옆에 앉아 경찰차를 바닥에 굴리고 있는 민우에게 다가가 불도저 옆에 서서 불도저를 만지작거리며) 나 한 번만 타도 돼? 민 우 : (고개를 들어 명훈이를 힐끗 쳐다보고는 시선을 다시 아래로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안 돼. 명훈 : (불도저 위에 올라가 앉으며 조금 작은 목소리로) 내가 탈게. 민 우 : (경찰차를 바닥에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불도저에 타고 있는 명훈이를 두 손으로 밀어내며) 안 돼. (화가 난 조금 큰 목소리로 명훈이를 바라보며) 싫어. 민우가 먼저 타던 거니까 안 돼. 명훈 : (상체를 교실 입구 쪽으로 돌려 인사하는 소리가 나는 곳－현태와 경석이가 등원하여 교실로 들어오고 있다－을 잠시 쳐다본다. 다시 몸을 돌려 아무 말하지 않고 두 발로 바닥을 힘껏 밀어서 앞으로 나아간다.) 민 우 : (명훈이를 쫓아가 불도저를 잡고 온몸으로 명훈이를 밀어내며) 싫

시 간	내 용
	어. 싫다고 했잖아. 교생2 : (역할놀이 영역에서 민우과 명훈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구부리고 앉으며 오른손을 명훈이 왼쪽 어깨에 올려놓으며) 명훈아, 민우가 먼저 타고 있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자. 명훈 : (교생2의 시선을 피하고 자신의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다가 다시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불도저의 흙 파내는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까닥거리기만 반복한다. 말없이 민우를 한번 쳐다본다.) 민 우 : (명훈이의 오른쪽 옆에 서서 명훈이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며 신경질이 난 큰 목소리로) 어서 빨리! 나 T : (조작 영역의 모래 책상에 앉아 있다가 민우와 명훈이를 보며 다가와 민우의 왼손을 잡고) 민우야,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하고 오자. (민우의 손을 잡고 화장실 앞 교사장 쪽으로 함께 걸어간다.) [평소 민우는 노란색 불도저를 혼자 독차지해서 가지고 놀고자 하는 소유욕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종종 다른 유아가 불도저를 타고 있으면 그 유아를 힘으로 밀어내어 뺏어 타기도 하고 다른 유아에게 타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훈 : (교사장 앞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민우와 나T를 잠시 5초가량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불도저의 흙 파는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까닥거린다.)
09 : 08	연 희 : (조작 영역 옆에 있는 모래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명훈이 옆에 서서 얼굴을 명훈이 얼굴 앞에 바짝 대고는 드라마의 대사와 같이 높은 톤의 목소리로) 오빠 무슨 일이야?[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왜 그렇게 시끄러워. [연희는 소꿉놀이를 하면서 명훈이를 종종 오빠 또는 시아버지라고 부른다. 연희는 평소 혼자 가작화하여 드라마에서 들은 대사와 같은 방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시 간	내 용
	명훈 : (혁희를 잠시 쳐다본 후 두 발로 바닥을 밀어 자신이 타고 있는 노란 불도저를 모래 책상과 쌓기놀이 영역의 카펫 사이에서 선호가 타고 있던 파란색 큰 차를 향해 몰고 나가면서 그 차를 가볍게 뒤에서 받는다.) 선 우 : (쌓기놀이 영역에 앉아서 경찰차를 손에 쥔 채 크게 웃으며) 사고 났어. 히히히. 나 T : (민우와 함께 손을 잡고 명훈이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명훈이를 바라보며) 그런데 명훈아 민우한테 타도 되냐고 먼저 물어봤니? 명훈 :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큰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작은 목소리로) 민우는 계속 탔잖아. 교생2 : (명훈이에게 무릎을 구부린 채 다가가) 명훈이 그럼 조금 타다가 민우에게 줄 수 있겠니? 명훈 : (교생2를 쳐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민 우 :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은 채로 두 발을 번갈아 바닥에 굴리며) 아휴 싫어. 명훈 : (두 발을 굴려 파란색 큰 차를 타고 있는 선호의 옆으로 가서 불도저로 또다시 받으며) 꽝 (신나게 명훈이를 쳐다보고 소리 내어 웃으며) 또 부딪혔다. 선 호 : (명훈이를 쳐다보고 같이 소리 내어 웃으며) 또 사고 났어. 히히. (명훈이가 불도저를 타고 선호와 노는 동안 민우는 나T 옆에 서 있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쌓기놀이 영역에 놓여 있는 장 위 앞쪽으로 걸어가 그 위에 진열된 '은하 기차'를 만지작거린다.) 민 우 : ('은하 기차'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명훈이를 바라보고는 '은하 기차'를 자리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 두고 명훈이와 선호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 불도저 앞을 가로막는다. 나 T : (선우와 함께 쌓기놀이 영역에 앉아 있다가 명훈이 옆으로 앉은걸

시 간	내 용
	음으로 다가가 명훈이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명훈이 조금 타고 민우에게 다시 불도저 돌려줄 수 있겠니? 명훈 : (고개를 끄덕인다.) 민 우 : (오른손으로 명훈이의 왼팔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며 큰 목소리로) 싫어, 내가 타던 거란 말이야. 내 거야. 나 ㅜ : (민우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잡아 쥐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건 병아리반 아이들 거야. 민우야 민우가 혼자 타는 게 아니야. 명훈 : (잠시 관찰자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듣다가 두 발로 바닥을 밀어 불도저 흙 파는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위로 들어 올린 채, 파란색 큰 차를 탄 선호와 함께 주유기 앞에서 코코 블록과 동물 모양 고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경석과 성훈이 앞으로 가서 둘이 노는 모습을 한 번 쳐다본 후 선호 차를 뒤에서 박으며) 으하하하.
09 : 12	선 호 : (명훈이를 쳐다보며) 히히히. (명훈이는 불도저를 선호 파란색 큰 차를 타고 나란히 쌓기놀이 영역에서 미술 영역을 지나 조작 영역에 있는 선반 사이를 한 바퀴 지나 다시 쌓기놀이 영역으로 돌아온다.) 명훈 : (쌓기놀이와 역할놀이 영역의 중간쯤에서 불도저에 앉았다 그대로 일어서서 왼손을 눈썹 아래로 올려서 씩씩하고 큰 목소리로 역할놀이 영역에서 놀고 있는 유아들과 교생2를 향해 힘찬 목소리로) 경찰! 선 호 : (명훈이와 똑같이 오른손을 들어 눈썹 아래로 올린 채 씩씩하게) 경찰! 교생2 : (역할놀이 영역의 상 옆에 앉은 채로 명훈이를 바라보며 오른손을 들어 눈썹에 올린 채 경례하여) 경찰! 명훈 : (다시 불도저에 앉아 흙 파는 부분을 들어 올리면서) 출동! (불도저의 방향을 뒤로 돌려 쌓기놀이 영역 쪽으로 나아간다.) 선 호 : (명훈이를 따라 파란차를 몰면서) 출동! 명훈 : (두 발을 바닥에 대고 자리에 멈추어 서서 불도저의 흙 파는 부분을

시 간	내 용
	내렸다 올리며) 끼익! (다시 두 발로 바닥을 밀어 앞으로 나아가 앞에 있는 선호의 파란차를 뒤에서 가볍게 박으며 신나게 웃는다. 차를 몰고 모래 책상과 도서 영역 사이를 지나간다.) 연 희 : (역할놀이 영역에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명훈이 앞으로 걸어와) 오빠 무슨 일이세요? 명훈 : (연희 얼굴을 잠시 쳐다본 후 다시 불도저를 몰고 쌓기놀이 영역으로 선호와 함께 간 후, 불도저의 흙 파는 부분을 까닥거리면서 바닥(카펫)에 앉아 있는 선우를 쳐다보며) 삐, 아저씨 비켜 주세요. 선 우 : (웃으며 경찰차를 바닥에 밀면서 옆으로 비켜 앉는다.) 명훈 : (불도저를 주유기 앞으로 몰고 가서 주유기 옆에 앉아 있는 교생1을 쳐다보며) 기름 넣어 주세요. (불도저를 주유기 앞으로 바짝 다가가 댄다.)
09 : 15	교생1 : (주유기 호수를 뽑아 불도저 뒷바퀴 아래에 넣고) 네, 알겠습니다. (불도저에 앉은 채로 오른손을 뻗어 주유기 앞에 붙여져 있는 숫자(12.5)가 적혀 있는 버튼을 누르며) 삐 – 삐 – 교생1 : (왼손으로 주유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주유기 옆면에 달려 있는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돌린 후 호스를 빼면서) 기름 다 넣었습니다. 명 훈 : (불도저의 흙 파는 부분을 다시 위로 들어 올린 후 고개를 조금 숙여) 고맙습니다. (바닥에 두 발을 힘껏 굴려 조금 앞으로 나가다가 다시 불도저의 흙 파는 부분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며 멈추면서) 끼이익. (다시 미술 책상 쪽으로 불도저를 몰고 나가다가 잠시 멈춰 서서 미술 책상에서 컬러 흙 점토를 가지고 만들기를 하고 있는 유아들과 현장 연구생을 5초가량 쳐다본 후 다시 불도저를 앞으로 밀고 나아가 과학 책상에서 1미터쯤 떨어져 멈춰 서서 과학 책상 위에 놓인 물잔디를 3초가량 물끄러미 쳐다본다.) (불도저를 선호가 탄 파란색 큰 차 뒤에 바짝 다가 대고는) 끼이 (선호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다시 나란히 쌓기놀이 영역으로 차를 몰고 나아간다.)

시 간	내 용
	명 훈 : (쌓기놀이 영역 카펫의 왼쪽 끝부분 구석에 놓인 주유기 앞으로 불도저를 몰고 가서 그 옆에 앉아 경찰차와 모범택시를 양손에 각각 쥐고 있는 선우를 바라보며) 기름 넣을까요? 선 우 : (대답은 하지 않고 명훈이를 바라보며 고개만 두 번 끄덕인다.) 명 훈 : (불도저에서 일어나 주유기 옆에 서서 주유기 앞에 붙여져 있는 숫자가 적힌 버튼을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누른 후 주유기 호수를 경찰차 옆에 두고 주유기 옆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며) 띵띵! (명훈이와 선호는 다시 각각 불도저와 파란색 큰 차를 타고 쌓기놀이 영역에서 미술 책상 쪽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명훈 : (두 발을 바닥에 뒤로 힘을 주어 굴려 불도저를 뒤로 나아가게 하여 선호가 탄 파란색 차와 부딪치며) 휴우우, 끼이. 선 호 : (명훈이를 바라보며 웃는다.) 명훈 : (과학 책상 앞에서 다시 불도저를 앞으로 몰고 나아가 모래 책상 사이를 지나 쌓기놀이 영역과 역할놀이 영역 사이에서 다시 선호의 차를 옆에서 받으며 또 부딪친다.) 히히히, 끼이익 (선호와 큰 소리로 마주보고 웃는다.) 교생2 : (역할놀이 영역에 있는 상 옆에 앉아서 명훈이가 웃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명훈이 너무 신나는구나. 명훈 : (계속 소리 내어 웃으며 교생2 얼굴을 잠시 바라본 후) 다시 불도저를 몰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역할놀이 영역 옆에 놓여 있는 미끄럼 앞에서 선호가 탄 파란색 큰 차를 뒤에서 박으며) 끼이익. 꽝 (선호와 마주보고 웃은 후 피아노 옆에 앉아 도장 찍기를 하고 있는 연희 앞으로 나아가 불도저를 오른손으로 가볍게 치며) 이건 내 차야. 연 희 : (자리에 앉은 채 명훈이를 위로 쳐다보며) 정말? 오빠 차 멋지다. 명훈 : (연희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짓고 다시 불도저를 앞으로 밀며) 출동, 끼이 (모래 책상을 시계 방향으로 돌고 다시 쌓기놀이 영역에 있는 주유기 앞에 불도저를 세워 놓고 앞에서 놀고 있는 성훈이와

시 간	내 용
09 : 20	경석이를 쳐다본다.) 김 T : (교실 입구에 서서 교실 전체를 바라보며 오른손에 머리띠를 위로 들고) 삐약반 잘 봐봐. '이 머리띠가 제 거예요.' 하는 아이 없니? (유아들의 반응이 없자) 이건 우리 반 아이 것이 아닌가 보구나. 명훈 : (김T를 불도저에 앉은 채 쳐다본 후 다시 몸을 돌려 선호와 모래 책상과 조작 영역 선반 사이로 불도저를 몰고 앞으로 나아가며) 끼이익! 선 호 : (두 입술을 붙여 떨면서) 부르르. 명훈 : (선호를 바라보며 선호의 입술을 손으로 가리키며) 히히 (불도저를 몰고 조작 영역과 과학 영역 사이로 두 발로 바닥을 힘껏 굴려 앞으로 나아간다.) 연 희 : (도서 영역에서 뛰어 나오며 명훈이 어깨를 뒤에서 두 손으로 잡고 아주 큰 소리로) 잡았다. 명훈 : (선호와 뒤에 있는 연희를 번갈아 바라보며 큰 소리로) 하하 김 T : (과학 영역의 물잔디 앞에 앉아 상체만 뒤로 돌려 연희를 바라보며) 근데, 연희야. 우리 방 안에서는 너무 큰 소리 내지 않기로 했지? 연희, 명훈, 선호 :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서서 교사 얼굴을 잠시 쳐다본다.) 명훈 : (다시 몸을 앞으로 돌려 도서 영역을 지나 역할놀이 영역 앞에 멈춰 서서 교생2와 유아들이 노는 모습을 약 10초간 응시한 후 다시 선호가 탄 파란색 큰 차를 뒤에서 박으며) 꽝 (선호를 바라보며 함께 소리 내어 웃는다.) 하하! (쌓기놀이 영역으로 불도저를 타고 와 주유기 앞에서 멈춰 선다.) 교생1 : (주유기 호스를 잡고 명훈이를 바라보며) 또 기름 넣으시려고요? 명훈 : (불도저를 주유기 앞으로 바짝 붙여 대며) 네, 이번에는 더 많이 넣어 주세요. (그대로 자리에 서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주유기 옆에 있는 손잡이를 왼손으로 돌리면서) 찌찌직 포옥! 교 생 : (호스를 빼 주유기 옆에 꼽으며) 다 넣었어요.

시 간	내 용
	명훈 : (발을 뒤로 굴려 불도저를 뒤로 뺀 후 다시 앞으로 50㎝ 정도 나아가 선호차를 뒤에서 박으며) 아이고, 하하. (쌓기놀이 영역에서 소방차를 바닥에 굴리고 있는 선우를 보며) 불났습니다. 여기 세워 주세요. (불도저에서 일어나 서서 선호의 파란색 큰 차를 두 손으로 잡아서 자신의 쪽으로 당겨 선우를 쳐다보며) 타세요. 선 우 : (자리에 앉은 채 명훈이의 쪽으로 몸을 돌려 명훈이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 번 좌우로 흔든다.) 명훈 : (선우를 바라보며 조금 작은 목소리로) 왜요? 어서 타서 끄세요. 삐오삐오. 아저씨, 아이~ 어서요. 선 우 : (입가에 미소만 지으며 바닥에 소방차를 굴리면서 명훈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명훈 : (불도저에 앉아 두 손으로 흙을 파는 부분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발을 굴려 과학 영역 쪽으로 불도저를 몰고 앞으로 가며) 삐오 삐오. (과학 영역에서 영진, 미영과 함께 금붕어 밥을 주고 있는 김 교사를 1미터쯤 떨어져 5초가량 잠시 쳐다본 후 다시 불도저를 앞으로 몰고 나가 조작 영역 장 선반에 있는 퍼즐 교구들을 힐끗 쳐다보며 역할놀이 영역 쪽으로 불도저를 몰고 나아간다.) (역할놀이 영역에 있는 유아들과 교생2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눈썹으로 올려 큰 소리로) 경찰! 연 희 : (화장대 앞에서 명훈이를 향해 걸어 나와 명훈이 앞에 서서 양손을 허리에 두고 명훈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명훈 :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를 향해 두 손을 들어 집게와 엄지손가락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쏘는 시늉을 하면서) 부쉬, 빠방! (불도저 옆으로 나와 서서 다리를 벌리고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총 모양을 한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며) 빠바방! 선 호 : (옆에 있는 명훈이를 쳐다보고 똑같은 자세로 연희를 향해 총을 쏘듯이) 빠방!

시 간	내 용
	연 희 : (얼굴을 찡그리며 약간 울먹이는 소리를 내어) 어쩌면 좋아, 오빠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양손을 모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얼버무린다.) 명훈 : (다시 연희를 향해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면서) 탕유, 빠바방. (양손을 주먹 쥐고 왼손을 앞으로 내어 연희를 향해 뻗으며) 탕야. 장장자이야. 선 호 : (명훈이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며) 탕탕이야. 연 희 : (양손을 총 모양으로 만들어 다시 명훈이를 향하여 몇 번 쏜 후 불도저를 타고 도장 찍기 하는 쪽으로 가는 명훈이를 뒤따라가며) 빵이요. 피요. 선 호 : (명훈이와 같은 동작을 취하며 파란차를 타고는 기훈이 옆에 멈춰서서) 빵! 빵! 연 희 : (명훈이와 선호를 쳐다보지 않고 도장 찍기 하는 곳에 앉아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명훈 : (불도저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옆에 있는 선호를 쳐다보며) 경찰! (오른손을 펴서 눈썹 위에 올려 경례하는 동작을 취하며 씩씩한 목소리로) 경찰서! 경찰! 선 호 : (명훈이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명훈이를 향해 경례하는 동작을 똑같이 취하며) 경찰! 명훈 : (앉아서 도장을 찍고 있는 연희를 바라보며 경례하면서) 경찰!
09 : 24	연 희 : (명훈이를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도장 찍기를 계속한다.) 명훈 : (연희 옆에서 도장을 찍고 있던 선희에게 다가가 심각한 일인 듯이 조금 작은 목소리로) 아저씨! 연희는 바보, 나쁜 사람인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선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왼쪽으로요? 오른쪽으로요? 선 희 : (오른손에 도장을 쥔 채 아무 말 없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명훈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시 간	내 용
	명훈 : (선희가 아무 대답이 없자 불도저 위에 다시 타고 앉으며) 알겠습니다. 연 희 :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 영역 쪽으로 걸어간다.) 명훈 : (불도저를 탄 채로 연희의 왼쪽 옆으로 따라 쫓아가며) 삐오삐오. 연 희 : (도서 영역에 있는 소파에 잠시 앉았다 다시 일어서서 빠른 걸음으로 미술영역 쪽으로 기훈이를 피해 걸어가며) 야. 어머. 명훈 : (불도저를 타고 계속 연희를 뒤쫓아 가며) 삐오삐오. 연구생T : (미술 책상에 앉아서 명훈과 연희 선호를 쳐다보며) 어어 포크레인에서 '삐오' 소리가 난다. 명훈 : (미술 책상 앞에서 멈춰 서서 연구생 선생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경례하며) 경찰, 경례! (다시 연희를 뒤따라 불도저를 밀고 가서 연희 바로 뒤에서 일어서서) 경찰! (연희 어깨를 두 손으로 잡으며) 잡았다. 연 희 : (아무 말 없이 명훈이를 쳐다본 후 몸을 틀어 다시 쌓기놀이 영역 쪽으로 뛰어 간다.) 명훈 : (불도저를 타고 연희를 또다시 뒤쫓아 가며 불도저의 흙 파는 부분을 들어 올렸다 놓았다 반복하면서) 삐오삐오 삐뽀삐뽀! (쌓기 영역에서 잠시 불도저에 앉았다 일어서서 앞에 있는 연희를 향해 왼손을 주먹 쥐어 던지는 시늉을 하면서) 빠아앙! (다시 불도저에 앉아 앞에 달려가는 연희를 빠르게 뒤쫓으며) 삐오삐오! 선 호 : (명훈이를 따라서 파란색 큰 차를 같이 몰아 연희를 뒤쫓으며) 삐오삐오. 명훈 : (미술 영역에 있는 책상 앞에서 연희 바로 뒤에 불도저를 세우고 멈춰 서서) 삐이익. (연희 바로 뒤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하며 큰 소리로) 경찰, 경례!
09 : 27	연 희 : (뒤로 돌아 명훈이를 쳐다보고 놀라는 척 두 손을 얼굴 높이로 들고는) 어머! (손을 내리고 도서 영역 쪽으로 뛰어가 소파에 빨리 서둘

시 간	내 용
	러 앉는다.) 명훈 : (연희가 도서 영역 쪽으로 달려가 교생1 옆에 소파에 앉은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연희를 가리키며 선호를 쳐다보며) 어, 저기다. (불도저에 앉으며) 어서 출동하자. (도서 영역에 있는 소파 앞으로 불도저를 몰고 가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 바로 앞에서 경례하며 큰 소리로 단호하게) 경찰, 경례! (경례하던 오른손을 내리고 양손으로 연희 양쪽 소매를 잡으며) 경찰 잡았다. 김 T : (도서 영역 쪽을 지나 걸어가면서 명훈이를 잠시 쳐다보고) 어, 근데 명훈아, 그러면 연희가 좀 불편하겠다. 명훈 : (잠시 김 T를 쳐다본 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 채로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연희를 향해 내밀고, 오른 발을 앞으로 내밀어 벌린 채로) 야아아, 쉬이익! 탕탕! 교생2 : (연희 옆에서 소파에 앉아 다른 유아들에게 책을 읽어 주다가 명훈이를 쳐다보며) 경찰은 도와줘야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지. 명훈 : (잠시 연희 뒤로 세 걸음 정도 뒤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두 손을 주먹 쥐고 오른손을 뺏어 수류탄을 던지듯이) 파스토. 액션! (양손을 주먹을 쥔 채 가슴 앞에서 엑스자로 겹쳐 모으고 웃으면서) 합체, 포즈! 교생2 : (명훈이와 같은 동작으로 두 손을 주먹 쥐고 가슴 앞에서 엑스자로 겹쳐 모으고 웃으면서) 부쉬, 액션! 명훈 : (다시 두 손을 주먹 쥐고 가슴 앞에서 엑스자로 모았다 펼치며) 예스! (연희 앞으로 달려가 연희의 치마를 오른손으로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경찰서! 경찰!
	연 희 : (명훈이 손을 뿌리치며 미끄럼이 있는 쪽으로 뛰어간다.) 명훈 : (연희를 뒤쫓으며) 삐오삐오! 경찰! (다시 연희의 소매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며) 잡았다!
09 : 30	연 희 : (몸을 앞으로 빼내며 약간 짜증 난 목소리로) 놓으세요! 명훈 : (다시 두 손을 주먹 쥐어 연희를 향해 뻗으면서) 액션! 부쉬!

시 간	내 용
	연구생T : (조작 영역 옆에 있는 책상에서 간식 지도를 하고 있다가 명훈이를 쳐다보면서) 명훈아! 근데 팔 뻗다가 친구가 맞으면 아플 것 같다! 명훈 : (두 손을 아래로 내린 후 연구생 T를 바라보며) 친구 때리지 않았어요! 연구생T : (옆에 있는 미끄럼 아래에 들어가 있는 선희를 잠시 쳐다보면서) 선희가 자꾸 아저씨를 부르는데, 명훈이가 정말 경찰이야? 명훈 :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큰 목소리로) 예. 연구생T : 그럼 선희한테 한번 가 봐. 명훈 : (왼손을 높이 들었다 다시 내리고는 선호와 함께 미끄럼 쪽으로 걸어가 바닥에 앉아서 미끄럼 아래에 들어가 있는 선희를 쳐다보며 경례를 하면서) 경찰! 선 희 : (미끄럼 아래에서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명훈과 선우를 쳐다보면서) 어서 출동하자. 선 호 : (파란색 큰 차 위에 올라타며 큰 소리로) 출동! 선 우 :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선호와 동시에) 출동! 명훈 : (불도저를 몰고 쌓기 놀이 영역으로 가서 바닥에 앉아 코코 블록으로 집짓기를 하고 있는 선희에게 다가가 멈춰서서) 민우야, 타. (불도저에서 일어나 옆으로 나와 선다.) 민 우 : (명훈이를 쳐다보며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바닥에 떨구며 불도저에 앉는다.) 명훈 : (옆에 파란 차를 타고 있는 선호의 뒤에 함께 탄 후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출동! (경례를 하며) 경찰! 선 호 : (두 발을 바닥에 힘껏 굴려 파란색 큰 차를 몰고 미술 영역 쪽 앞으로 나아가며) 경찰! 선 우 : (파란색 큰 차 옆에 서서 따라 걸어가며) 어서 출동하자.
09 : 34	김 T : (오른손에 이름 표시가 붙어 있는 판을 들고서 미술 영역 책상에 있는 유아들을 향해) '여기에 자기 이름 표시가 있어요.' 하는 유아는

시 간	내 용
	만들던 것 정리하고 손 씻고 부지런히 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명훈 : (선호와 함께 파란색 큰 차를 탄 채 김 T 뒤를 따라가며 이름 표시가 붙어있는 판을 계속 쳐다본다.) (선호의 차에서 일어나 옆으로 나와 서서 쌓기놀이 영역 쪽으로 뛰어가 양손을 공중에 흔들며) 월드 트릭! (두 손을 주먹 쥔 채로 가슴에 엑스자 모양으로 겹치며 두 발을 벌리고 서서) 파워 셰드 메통! (두 팔을 앞으로 뻗는다.) 선 우 : (명훈이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어서 변신하자! (명훈이 왼쪽 팔 소매를 붙잡으며) 어서 일어나자! 명훈 : (양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앞으로 세 걸음 정도 나아간다.) 슈우~ (큰 소리로) 월드 트릭! 선 우 : (두 팔을 벌린 채 오른손을 앞으로 뻗으며) 파워 액션! 명훈 : (역할놀이 영역의 개수대 앞에 서 있던 연희를 쳐다보며 다가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엑스자 모양으로 하고는) 네버 포복! 연 희 : (역할놀이 영역과 쌓기놀이 영역 중간쯤 앞으로 나와 명훈이와 같이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엑스자 모양으로 모으고 다리를 벌려) 우주의 파워, 액션! (양손을 앞으로 뻗는다.) 명훈 : (선우와 함께 연희를 향해 오른손을 위로 들었다 앞으로 뻗으며) 파워 액션! 연 희 : (음률 영역에서 김 T가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유아들이 악기 연주를 하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옮겨 잠시 쳐다본 후 노래를 따라 흥얼거린다.) 아빠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대요 ♬. 명훈 : (음률 영역을 잠시 쳐다본 후 연희를 바라보다가 오른손을 위로 들어) 셔포 비! (옆에 서 있는 선우와 선호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서 출동하자. (선우의 왼손을 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합체! 선 우 : (큰 목소리로) 어서 출동해! (보폭을 크게 하여 미끄럼이 있는 쪽으로 걸어 나간 후 미끄럼을 탄다.)
09 : 40	명훈 : (선우의 뒤를 따라 미끄럼을 탄다. 미끄럼 위에서 선우의 얼굴을 마

시 간	내 용
	주하고 큰 소리로 웃는다.) 하아아! 선 우 : (미끄럼에서 내리자마자 오른발과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고 큰 소리로) 액션! 명훈 : (선우와 똑같이 미끄럼에서 내리자마자 오른발과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고 선우를 마주 보고 웃으며) 쿵! 액션! 선 우 : (미끄럼 아래로 달려 들어가면서 명훈이를 미소 지으며 쳐다본다.) 명훈 : (선우를 따라 미끄럼 아래로 문을 열고 들어가 선우를 바라보며) 여긴 우리 집이야. 선 우 : (문을 닫으며) 문 잠그자. 명훈 : (미끄럼 안에서 벽 부분에 오른손을 대고 씩씩한 목소리로) 곧 출동하겠습니다. 민 우 : (미끄럼 아래에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며) 여기서 뭐 하고 노는 거야? 명훈 : (민우를 쳐다보며) 의자는? 의자 정리! (선우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문밖으로 나가며) 현우야. 가자! 선 우 : (미소를 지으며 명훈을 따라 문밖으로 나오며) 그래. 명훈 : (도서 영역 옆의 융판에 붙여져 있는 여러 표정을 하고 있는 깐돌이 얼굴을 쳐다보고, 오른손으로 울고 있는 깐돌이 얼굴을 가리키며) 이것 좀 봐봐. 선 우 : (명훈을 향해 소리 내어 웃으며 화를 내고 있는 깐돌이 얼굴 모양을 떼어서 웃고 있는 얼굴 옆에 붙인다.) 명훈 : (책꽂이 앞으로 가서 멈춰 서서 책들을 3초 정도 쳐다보다가 가장 위쪽 선반 왼쪽에 꽂혀져 있던 큰 책을 꺼내어 들고 웃음 섞인 목소리로)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책을 두 손으로 들고 바닥에 내려두고 앉는다.) 선 우 : (명훈이 옆에서 함께 책을 보면서 명훈이가 책장을 넘기자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똥이 그려진 부분을 가리키며 웃으면서) 아휴 더러워!

시 간	내 용
	명훈 : (책장과 선우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산드라 슈루르륵! (웃음 지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계속 내며) 산다. 바우스틱! 아스트라 바우슈~. 선 우 : (명훈이를 바라보며 웃으며 자신이 가져온 책의 겉표지에 그려진 문 부분에 오른손 주먹으로 톡톡 치며) 똑! 똑! 명훈 : (선우가 가져온 책 한 장을 넘겨 그려진 문 부분에 자신도 오른손 주먹을 가져다 대고 치면서) 똑! 똑! 선 희 : (옆에서 선우와 명훈이를 바라보고 있다가 자신의 책을 두 손으로 들어 보이며) 야, 아까 전에 미키 마우스 봤지? 선 우 : (선희를 쳐다보고 웃으며) 나도 봤어. 명훈 : (큰 소리로) 나도 봤어. 선 희 : (자신이 가져온 책을 현우와 기훈이 앞에 펼쳐 책장의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며) 야! 이거 봐! (큰 소리로 웃는다.) 선 희 : (바닥에 누웠다 다시 일어나 앉으며 책장을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야, 이것 좀 봐봐. 똑같이 누웠어. (그 자리에서 카펫 위에 누웠다 다시 일어나 앉는다.) 선 우 : (선희를 오른손으로 가리키고 웃으며) 누웠어. 히히! 명훈 : (자신이 가져온 책의 책장을 넘기며)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을까? 누가 내 머리에 로봇 쌌을까? (선우와 선희를 번갈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웃는다.) 내 머리에 로봇을~ (말을 얼버무리며 웃는다.) 이히히. 선 우 : (책장에 그려져 있는 두더지의 꼬리를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꼬리 좀 봐. (크게 소리 내어 웃는다.) 명훈 : (선우를 쳐다보고 함께 웃다가 책장에 글이 적힌 부분을 오른손으로 빠르게 가리키며) 야큐 발리세이 사르베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빠르게 내며 웃는다.) 민 우 : (책을 두 손으로 들고 가져와 선우와 명훈이 옆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며) 나도 책 읽을래.

시 간	내 용
09 : 50	명훈 : (책장을 덮고 선우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데 가서 놀자. (책을 두 손으로 들어 본래 책꽂이에 꽂혀 있던 곳에 꽂아 둔다.) 왼손 팔목 부분을 눈앞에 가져가 보면서 선우를 향해) 여덟 시야. (선우의 손을 잡으며) 빨리 가자. 선 우 : (자리에서 일어나 명훈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명훈 : (역할놀이 영역에 있는 화장대 앞에 서서 거울을 잠시 바라본 후 화장대 위 빗 통 안에 들어 있는 면도기를 꺼내 턱에 대고 면도하듯이 비벼대면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본다. 면도기는 다시 통에 담아두고 화장대 옆 장에 있던 양복과 빨간 넥타이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다.) 보조T : (명훈이 앞에 다가가 앉으며 양복 상의를 들고) 명훈이 양복 입고 싶니? 명훈 : (보조 교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빠처럼요. (오른손을 양복 소매 안으로 집어넣고 몸을 뒤로 돌려 왼손도 마저 집어넣어 양복 상의를 입는다. 바닥에 있던 넥타이를 오른손으로 잡아들어 보조 교사에게 내밀며) 넥타이도 맬래요. 보조T : (넥타이를 명훈이 청남방 목 부분에 꽂으며) 정말 명훈이가 아빠처럼 멋진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었네. 명훈 : (보조 교사를 쳐다보며 웃는다.) 보조T : (옷이 개어져 있는 선반에 놓여 있는 양복바지를 오른손으로 가리키며) 명훈아 바지는 안 입을 거야? 명훈 : (보조 교사를 쳐다보며) 네. 더워요. (쌓기 영역을 지나 미술 책상에서 점토로 만들기를 하고 있는 철수를 옆에 서서 5초 정도 바라보다가 다시 도서 영역으로 가서 소파 쪽으로 큰 걸음으로 걸어가서 소파에 앉아 있는 선희와 예연이를 쳐다보며) 학생들! 학생들은 어디 갔지? (피아노 앞에 서 있는 선우에게 다가가) 학생들은 경찰서에 보냈어.

시 간	내 용
	선 우 : (명훈이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경찰? 명훈 : (미끄럼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 미끄럼에 올라타며) 휘이이융.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며 양손을 앞으로 내민다.) 선 우 : (명훈이의 뒤를 따라 미끄럼을 타며 웃는다.) 하하하. 명훈 : (도서 영역을 지나 미술 영역에 있는 책상 앞에 서서 의자에 앉아 있는 보조 교사를 바라보며) 나도 할래요. (교사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꺼내어 앉는다.) 보조T : (명훈이를 쳐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근데, 명훈아! 명훈이가 입고 있는 양복하고 넥타이는 다시 소꿉방에다 벗어놓고 오자. 명훈 : (교사를 쳐다보며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의자를 다시 밀어 넣고) 네. (빠른 걸음으로 역할 놀이 영역의 옷들이 개어져 있는 선반 앞에서 혼자 넥타이를 빼고 양복 상의를 재빨리 벗어 바닥에 그냥 두고 미술 책상으로 빠른 걸음으로 돌아온다. 의자를 빼서 자리에 앉는다.) 보조T : (명훈이가 미술 책상 앞으로 다시 온 것을 본 후 자리에서 일어나 명훈이 뒤로 가서 의자를 책상 안으로 밀어 넣으며) 그래 명훈아. 의자는 당겨 앉고(다시 자리에 가서 앉으며 점토 한 덩어리를 명훈이에게 내밀며) 명훈아, 여기. 명훈 : (보조 교사가 건네는 점토 덩어리를 받아 두 손으로 주무르다가 앞에 놓인 나무판에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여 밀대를 하나 집어 밀대 손잡이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점토를 밀면서 보조 교사를 쳐다보며) 이거 보세요. 보조T : (명훈이가 민 점토를 오른손바닥에 펴서 만지며) 정말 밀대로 미니까 이렇게 편편하게 됐네. 서 연 : (점토 위에 앵두 모양의 틀을 대고 보조 교사를 쳐다보면서) 안 돼. 앵두가 안 돼. 보조T : (서연이를 쳐다보며) 서연아, 틀을 대고 (편편한 점토를 틀 위에 다 대며) 이렇게 편편한 점토를 그 위에 대고 손으로 눌러 주면 (손으

시 간	내 용
	로 점토를 틀 위에 대고 누른다.) 이렇게 앵두 모양이 찍혀 나오네. (점토에 찍힌 앵두 모양을 오른손으로 가리킨다.)
09 : 55	명훈 : (옆에 앉은 서연이의 점토에 찍힌 앵두 모양을 슬쩍 쳐다본다. 편편하게 만든 점토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는 가위를 들어 점토의 가장자리부터 약 1㎝ 간격으로 일정한 크기로 자른다. 다 자른 후 가위는 앞에 놓인 흰 쟁반 위에 다시 가져다 둔다. (잘린 점토를 나무판 중앙에 다 모아서 양손의 손가락 끝으로 힘을 주어 꾹꾹 누른다. 혀를 아랫입술에 대고 한 번 돌린 후 잘린 점토를 다시 동그랗게 붙인다. 다시 오른손에 가위를 쥐고 일정한 크기나 모양 없이 점토를 자른다.) 보조T : (명훈이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훈이는 뭐 만들고 있니? 어 가위로 점토를 자르고 있네. 명훈 : (아무 말 없이 계속 점토를 쳐다보며 가위로 자른다.) 서 연 : (밀대로 점토를 편편하게 민 부분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보조 교사를 쳐다보면서) 딱딱해졌어. 보조T : (서연이를 쳐다보며 점토를 한 번 만져 보고) 딱딱해졌어? 점토가? 글쎄 선생님이 보기에는 딱딱하지는 않고 편편해진 것 같은데. 명훈 : (서연이의 점토를 쳐다보며) 편편해요. 보조T : (서연이 앞에 놓인 플라스틱 틀을 오른손으로 들어 보이며) 그래, 서연아. 이렇게 틀을 만질 때 같은 느낌을 '딱딱하다'라고 하는 거야. 점토는 만지면 어떠니? 민 지 : (점토를 새알같이 작게 만들어 손가락으로 주무르며) 부드러워요. 보조T : (민지를 바라보며) 그래, 민지 말처럼 만지면 부드럽고 밀가루 반죽 같이 말랑말랑하기도 하네.
09 : 58	명훈 : (앞으로 몸을 기울여 흰 쟁반 위에 놓여 있는 노란색 플라스틱 소재의 조각칼 하나를 오른손으로 쥐어 잡고 왼손에 점토를 잡아들어 송곳같이 길쭉하게 생긴 조각칼 끝부분으로 구멍을 10개 정도 낸

시 간	내 용
	다. 다시 조각칼을 쟁반에 담고 그 옆 쟁반에 있는 노란색 사람 모양의 틀을 꺼내어 자신의 앞에 두고는 점토 조각을 틀 안으로 눌러 넣는다. 점토가 모자라 사람 얼굴 부분의 틀이 비어있자 다시 옆에 있던 점토 조각을 얼굴 부분의 틀에 두 손으로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눌러 넣는다. 양손으로 점토의 끝부분을 잡고 틀에서 떼어 내다가 점토가 약간 찢어진다.) 보조T : (몸을 기울여 명훈이의 점토를 양손으로 잡고 틀에서 벗겨내며) 명훈아. 선생님이 좀 도와줄게. 명훈 : (점토에 찍힌 사람 모양을 보고 점토를 두 손으로 들어 보조 교사에게 보이며) 얼굴 모양이 나왔어요. 보조T : 그래. (노란색 틀을 명훈이 앞에 들어 보여 주며) 명훈이가 찍은 틀에 있는 모양이 점토에 그대로 찍혀 나왔네. 명훈 : (칼날 모양의 빨간색 플라스틱 조각칼로 사람 모양이 찍힌 점토를 모양에 맞게 자른다.) (모양에 맞게 자르지 못하고 다소 옆으로 삐져나와 사람 모양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다시 점토를 양손으로 하나로 모아 주무른 후 점토를 나무판에 올려놓고 조각칼로 잘게 자른다.) 보조T : (명훈이를 바라보며) 명훈아, 뭘 만들고 있어?
10 : 00	명훈 : (칼로 자르던 것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세 개를 만들고 있어요. (명훈이가 자른 점토 조각이 세 개다.) 보조T : 세 개? 뭐가 세 갠데? 명훈 : (더 작은 목소리로) 네모요. 보조T : (자신의 앞에 있는 점토를 밀대로 밀면서) 명훈아. 선생님처럼 밀어 볼까? 명훈 : (양손으로 밀대의 중간 부분을 세게 힘을 주어 밀면서) 나도 해요. 보조T : (자신이 편편하게 민 것을 명훈이 앞에 내밀며) 선생님이 만든 이 편편한 점토로 한번 만들어 볼래?

시 간	내 용
	명훈 : (고개를 끄덕이며 점토를 건네받아 나무판 위에 올려놓는다.) 보조T : 이번에는 뭐로 찍어 보고 싶어? 명훈아? 명훈 : (앞에 놓여 있는 쟁반 위의 가위를 오른손에 쥐고는) 가위! 보조T : (가위 옆에 놓여 있는 흰 쟁반 위에서 파란색 틀 하나를 들어 보이며) 가위 말고 공룡 모양 틀로 한 번 찍어 보지 않을래? 점토에 찍으면 공룡 모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명훈이가 한 번 봐봐. 명훈 : (오른손에 점토를 들고 왼손에 공룡 모양 틀을 세워 들고는 점토를 틀에 붙이며 보조 교사에게) 이거 보세요! (점토가 틀에서 떨어진다. 다시 틀을 나무판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점토를 주무르다가 가위로 점토를 조금 자른 후 점토를 보조 교사에게 들어 보이며) 백터맨같이 생겼다. 보조T : 정말 백터맨같이 보이기도 하네. 명훈아, 이제 한 번 틀에 찍어 봐! 명훈 : (나무판 위에 놓여 있는 틀에 양손으로 점토를 힘주어 누른 후 왼손으로 점토 누른 부분을 가볍게 톡톡 친 후 점토를 틀에서 떼어 낸다.) 보조T : (명훈이가 떼어낸 점토를 쳐다보고) 어머 공룡 모양이 정말 나왔네. 명훈 :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공룡 모양이 찍힌 부분을 자신에게 바로 보이게 거꾸로 돌려 쳐다본 후 다시 점토를 나무판에 대고 오른손 주먹으로 두 번 내리친다.) 혜 윤 : (점토를 동그랗게 만들어 조각칼 끝에 끼워 들고는 웃으며) 사탕이에요. 보조T : 정말, 막대기에 꽂힌 동그란 사탕같이 생겼네. 명훈 : (혜윤이가 만든 것과 같은 동그란 점토를 조각칼 위에 꽂고는 들어 올리며) 난 더 커요. (동그란 점토가 떨어지려고 하자 왼손으로 잡으며) 어어 더 커요. 보조T : 정말 명훈이가 만든 사탕이 조금 더 크네. 명훈 : (동그란 점토 중앙을 조각칼로 통과시켜 생긴 구멍을 보면서) 구멍

시 간	내 용
	이 났어요. 보조T : 명훈이처럼 조각칼로 구멍을 낼 수도 있네. 명훈 : (동그란 점토를 다시 주물러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서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선생님 산이에요. 보조T : 명훈이가 이번에는 산을 만들었구나. (연희가 가요 이정현의 '바꿔'를 흥얼거리며 부르자) 연희야, 근데 그런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말고 우리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부르자. 명훈 : (점토를 주무르면서 교사를 쳐다보고 큰 소리로) 산토끼요. 보조T : 그래, 명훈이 말대로 '산토끼'를 불러도 되고. 명훈 : (작은 목소리로 산토끼를 흥얼거리면서 두 손으로 주무른다.) 산토끼 토끼야~ (다시 삼각형 모양으로 점토를 빚어) 선생님, 이것도 산이에요. 보조T : 그래, 먼저 명훈이가 만든 산보다 조금 더 큰 산이네. (철수가 음률 영역에서 교사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동산 가는 길' 노래를 흥얼거리자 보조 교사도 함께 작은 목소리로 노래 부른다.) 바람 솔솔 불어오면 우리들은 신이 납니다 ♬ 명훈 : (밀대로 점토를 밀고 난 후 조각칼로 동그랗게 민 부분을 1/2로 반을 가른 후 다시 이것을 반으로 갈라 1/4로 만들고 다시 또 그것을 반으로 가른 후) 선생님 이거 보세요. 친구들 다 줄 거예요. 보조T : 명훈이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점토를 나눠 쓰려고 잘게 잘랐구나. 서 연 : (점토를 만지면서 보조 교사 뒤 사인펜 통 옆에 놓인 분무기를 쳐다보면서) 물 좀 주세요. 명훈 : 나도요. 보조T : (서연이 점토와 명훈이의 점토를 조금 떼어 만져 보고) 근데 애들아! 선생님이 만져 보니까. 점토가 아직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물을 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서 연 : (고개를 흔들며) 아잉, 물 줘! 물 필요해!

시 간	내 용
	보조T : (서연이를 쳐다보며) 서연아, 물은 점토가 말라서 가루가 떨어지고 갈라질 때 뿌리는 거야. 명훈 : 다 만들었어요. (조각칼은 쟁반 위에 담고 점토는 그대로 점토 통에 가볍게 던져 넣은 후 자리에서 일어난다.) 보조T : 그래, 명훈이 그만할래? 그럼 의자 밀어 넣고 다른 놀이 하세요. 명훈 : (의자를 두 손으로 밀어 넣으며 공손하게) 예. (역할놀이 영역으로 걸어가 화장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면서 화장대 위에 있던 둥근 롤 빗을 꺼내 왼손에 들고 머리를 빗는다. 다시 빗을 통에 넣어두고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는 파란색 폴로 향수병의 뚜껑을 오른손으로 돌려 열고는 왼손에 세 번 정도 털어낸 후 양손바닥을 비비고 얼굴에다 바른다. 빗 통에 들어 있던 면도기를 오른손으로 꺼내 턱 주변을 면도하듯이 면도기로 비빈다.) (면도기는 플라스틱 일회용 면도기인데 칼날 부분은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싸져 있다.) (몸을 뒤로 돌려 미끄럼을 타고 있는 선우와 민우를 잠시 쳐다본 후 옆의 옷이 개어져 있는 선반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양복 상의와 넥타이를 꺼내어 교생1에게) 옷 좀 입혀 주세요. 교생1 : (냉장고 앞에서 과일을 꺼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명훈이 앞에 앉으며 양복 상의를 양손으로 들면서) 그래, 명훈이 양복 입으려고? 명훈 : (고개를 약하게 끄덕이며) 네. 교생1 : (양복을 다 입힌 후 넥타이를 들어 명훈의 청남방에 끼우며) 명훈이 넥타이 하니까 근사하다.
10 : 12	명훈 : (교생1에게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인 후 자리에서 일어나 미끄럼 앞에 있는 파란색 차를 타고 있는 선호 뒤에 가서 파란색 큰 차에 올라탄다. 다시 미끄럼에 있는 빨간색 계단 앞에서 멈춰 서서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오르며 앞에서 미끄럼을 올라타고 있는 민지에게 얼굴을 내밀며) 난 스무, 열 살이다. 민 지 : (명훈이를 쳐다보고 웃으며) 난 열 살!

시 간	내 용
	연구생T : (조작 영역 앞에 있는 책상 옆 의자에 앉아 미끄럼에서 내려오는 민지를 바라보며) 민지야. 민지 열 살이야? 민지. 진짜 몇 살인데? 민 지 : (오른손을 입에 물고 연구생 T를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다섯 살! (다시 뛰어 미끄럼을 올라타며 뒤에 있는 명훈이에게) 나 열 살이야! 명훈 : (민지를 뒤따라 다시 미끄럼을 타려고 올라가면서 앞에 있는 민지를 두 손으로 약하게 민다.) 민 지 : (뒤를 돌아보며 신경질이 난 목소리로) 야아~. 명훈 :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 웃으며 민지의 두 팔을 잡으며) 그럼 키를 대 보자. (민지 등 뒤에 가서 선다.) 민 지 : (명훈이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명훈이를 쳐다보고 웃으며) 똑같네. 다섯 살 똑같네. 연 희 : (역할놀이 영역에서 민지 앞으로 걸어 나오며) 우리 키 대 보자. (민지를 마주보고 선 채로 오른손을 들어 머리 위쪽을 휘저으며) 내가 더 크네. (실제 민지가 연희보다 5㎝ 정도 키가 더 크다.) 명훈 : (미끄럼 앞, 승지 옆에 서 있다가 민지의 왼손을 잡으며 연희에게) 우리 결혼할 거야. 민 지 : (명훈이를 마주 쳐다보고 미소 짓는다.) 연 희 : (명훈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랑 키 대 보자. (명훈이와 등을 마주 대고 서서 오른손을 머리 위에 대고 두세 번 흔들며) 내가 더 크다. (명훈이와 연희는 키가 거의 비슷하다.) 명훈 : (몸을 돌려 양손을 주먹 쥐고 연희를 바라보며) 내가 더 힘세. (주먹 쥔 오른손을 연희 얼굴 앞에 내민다.) 연 희 : (명훈이를 쳐다보며 드라마 대사 같은 말투로) 어머, 왜 이러세요? (역할놀이 영역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다.) 명훈 : (민지와 손잡고 피아노 앞 도장 찍기 하는 곳으로 걸어가서 앉아서 도장 찍기를 하고 있는 선우를 내려다보며) 아저씨! 여기서 뭘 하고

시 간	내 용
	계시는 거예요? (선우 오른손을 잡으며) 아저씨, 어서 가세요. (도서 영역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급하게 말한다.) 어서, 어서요. 출동하지 마세요. (선우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경찰 아저씨! 예? 선 우 : (자리에서 일어나며 씩씩하게) 예! 김 T : (왼손에 이름표시가 붙여져 있는 연두색 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자기 이름이 있어요' 하는 아이는 놀던 거 정리하고 김나연 선생님 앞으로 모이자. (옆에 서 있는 명훈이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명훈이 자전거 표시 있니? 명훈 : (이름 표시가 붙여져 있는 판 앞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잠시 쳐다본 후) 아니요. (역할놀이 영역으로 걸어가 화장대 앞에 서서 넥타이를 오른손으로 뺀다.) 나 T : (명훈이에게 다가가 앉으며) 명훈이 옷 벗으려고? 명훈 : (나 T를 바라보며 양복에서 팔을 빼내며) 네. 나 T : (양복을 개어 명훈이에게 내밀면서) 자, 명훈이가 양복 있던 제자리에 두자. 명훈 : (두 손으로 양복을 건네받아 양복이 있던 가장 위쪽 선반 왼쪽 안으로 양복을 밀어 넣고 넥타이도 그 옆자리 표시가 있는 곳에다 놓는다.) 나 T : (명훈이를 쳐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쩜. 명훈인 이렇게 정리도 잘하니. 명훈 : (쌓기놀이 영역에서 서서 명훈이를 바라보고 있는 선우를 향하여 양팔을 벌려 뻣으며 큰 소리로) 로봇! (양손을 주먹 쥐고 가슴에 엑스자로 겹쳐 모아) 합체! 선 우 : (양손을 주먹 쥐고 앞으로 내어 뻗고,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어 두 발을 벌리며) 다 같이 합체! 로봇! (명훈이에게도 두 손을 내민 채 웃으며 달려간다.)

시 간	내 용
10 : 17	명훈 : (선우와 함께 소리 내어 웃으면서 미끄럼을 탄다. 미끄럼에서 내려와 역할놀이 영역에 있는 화장대 앞으로 뛰어간다.) 김 T : (조작 영역 옆의 모래 책상에서 요리 활동을 하고 있다가 명훈이와 선우를 의자에 앉은 채 쳐다보면서) 명훈아! 걸어서! 명훈 : (뛰던 것을 멈추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화장대 앞에 선다. 파란색 폴로 향수를 왼손으로 집어 오른손으로 뚜껑을 돌려 연 후 왼손에다 던다. 옆에 서 있는 선우를 쳐다보면서 선우의 오른손바닥에도 향수를 덜어 주듯이) 자아~ (양 손바닥에 뺨을 치며) 얼굴에다 이렇게 바르고~. 선 우 : (명훈이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으며 두 손바닥을 얼굴에다 비빈다.) 명훈 : (향수 뚜껑을 닫고 옆에 있는 빗 통에서 파란색 롤빗을 꺼내 거울을 쳐다보며 머리를 빗는다. 빗을 다시 통에 꽂고 면도기를 꺼내 턱 아래를 문지르며 면도하는 것처럼 한다. 선우에게 면도기를 내민다.) 선 우 :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으로 면도기를 건네받고 뺨과 턱을 여러 번 문지른다. 명훈이를 쳐다보며 명훈이 턱에다 면도기를 대고 문지른다.) 명훈 : (선우를 쳐다보며 미소 짓는다. 옷이 개어져 있는 장 위 바구니 안에 있는 부케를 오른손에 쥐고 옆에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승우에게 내밀며) 자, 선물이야. 내가 처음에 사 왔어. 승 우 : (아무 말 없이 오른손을 뻗어 부케를 받아들고 미끄럼 앞쪽으로 걸어간다.) 명훈 : (쌓기놀이 영역에서부터 파란색 큰 차를 타고 자신 앞으로 다가오는 선호를 바라보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학생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시 가야 해! (선호가 탄 파란색 큰 차 뒷자리에 앉으며 앞을 바라보며 경례하면서) 충성! 선우, 선호 : (경례를 하면서 서로 마주 쳐다보며 큰 소리로) 충성! 충성! 명훈 : (다시 선우를 쳐다보면서 경례하면서 더 큰 목소리로) 충성! 어디

시 간	내 용
10 : 20	가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옆으로 나와 두 발을 벌리고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가위 표시로 만들어 총을 쏘듯이 선우를 향해 뺏으며) 삐슈! 삐슈! 선 우 : (미소를 지으며 명훈이를 향하여 총을 쏘듯이 가위 표시로 양손을 내밀며) 발사! 삐오! 연구생T : (조작 영역 옆 책상에서 간식 지도를 하고 있다가 총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삐약반에서는 총싸움 하지 않기로 했는데…. 명훈 : (두 손을 내리고 선우를 쳐다보면서) 우리 악기 연주 할래? 선 우 : 그래, 악기 연주하자. (명훈이와 함께 음률 영역으로 걸어간다.) 명훈 : (작은북을 두 손으로 들어 끈을 목에다 걸고 보조 교사가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려고 하자) 아직요! (북채를 양손에 쥐고 미소를 지어 보이며) 됐어요! 준비! 시작! 현 수 : (아코디언을 두 손으로 쥐고 펼쳤다 오므렸다 하면서 노래를 따라 한다.) 하나, 둘, 셋, 넷 발을 맞추어 ♬ 명훈 : (양손에 북채를 쥐고 박자에 맞추어 작은 북 가운데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우리들은 신이 납니다 ♬ (선호가 옆에 서 있자 악기장 아래 선반에 있는 초록색 개구리 모양 캐스터네츠를 두 손으로 쥐어 선호 앞에 내밀고는) 너도 이거 하면 돼. 선 호 : (미소를 지으며 왼손바닥 위에다 캐스터네츠를 올려두고 오른손으로 치면서 악기 연주를 한다.) 명훈 : (작은북을 두 손으로 들어 목에서 끈을 빼내며) 나 그만 할래. 선 우 : (아코디언을 자리 표시가 있던 곳에 내려놓으며) 나도. (명훈이를 쳐다보며) 우리, 출동하자! 명훈 : (작은 북을 자리 표시가 있던 자리에 내려놓고 북채도 옆에 있는 요구르트병에 꽂으며) 그래, 출동! (선우, 선호와 함께 쌓기 영역으로 두 손을 내밀고 뛰어간다.) 출동! (오른쪽 발을 위로 들었다가 바닥

시 간	내 용
	에 다시 내려놓으며) 하이슈! 나 T : (왼손에 유아들의 이름 표시가 붙여져 있는 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자기 이름 표시가 있어요' 하는 어린이들은 놀던 거 정리하고 손 씻고 와라. 선 우 : (이름 표시가 붙여져 있는 판을 보면서) 내 이름이 있다! 명훈 : (이름 표시가 붙여져 있는 판과 선우의 얼굴을 동시에 번갈아 보면서 큰 목소리로) 나도 이름이 있다. (오른손을 들고 외친 후 화장실로 향하여 빠른 걸음으로 달려간다.) 교생2 : (서연이 소매를 걷어 주며 다른 유아들 전체에게) 얘들아! 줄 서서, 소매는 걷고 기다리자. 명훈 : (소매를 걷고 왼손으로 왼쪽 수도꼭지를 돌린 후 물 잠금장치를 위로 올린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두 손을 물에 두 번 휘젓더니 오른손으로 노란색 비누를 쥐어 양손에 문지른 후 다시 비누는 제 자리에 올려 두고 두 손을 물 안에 넣어 두세 번 흔든다. 옆에서 미영이는 손 씻는 것을 돕는 교생2에게) 선생님, 다 했어요. 교생2 : (명훈이를 바라보며) 그래, 명훈이는 세 번 털고 수건으로 닦고 나가면 되겠네. 명훈 : (세면대 위로 손을 들어 세 번 턴 후 뒤로 돌아 수건에 두 손을 닦는다.)
10 : 23	김 T : (모래 책상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며) 명훈이, 선우도 지영이 선생님 따라 자기 장에 가서 작업복 입고 오자. 명훈 : (교실 입구에 있는 나 T 앞에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입구 왼쪽에 있는 자신의 장 앞에 서서 나 T를 쳐다본다.) 나 T : (선우 작업복을 입히고 명훈이에게로 다가와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명훈이 장에 걸려 있는 롯데백화점 종이 가방에 들어 있는 하늘색 작업복을 꺼내 명훈이 목에 작업복을 씌워 입힌다.) 명훈 : (작업복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모래 책상으로 걸어간다.) (명훈, 서연, 선우, 석민, 미영이가 모두 작업복을 입고 모래 책상에 와서 앉

시 간	내 용
	았다.) 서 연 : (흰 쟁반에 놓인 것을 오른손으로 가리키며) 이게 뭐야? 김 T : (쟁반을 전체 유아들이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내밀며) 애들아, 쟁반 위에 뭐가 놓여 있니? 석 민 : (쟁반에 놓인 음식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건 과자! 이건 치즈! 명훈 : (햄을 손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햄! 김 T : (유아들 전체를 번갈아 쳐다보며) 그래, 여기에 있는 치즈, 햄, 과자를 가지고 지금부터 '과자샌드'를 만들 거야. 석민이가 쟁반 위에 놓인 과일칼을 잡으려고 하자 다시 칼을 쟁반 위에 담으며 석민이를 쳐다보며) 칼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쓸 거야. (쟁반에 있는 햄을 유아들 앞에 놓인 하얀 쟁반에 하나씩 덜어 놓으며) 햄을 하나씩 더세요. 명훈 :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오른손으로 햄을 덜어 자신의 쟁반에 가져다 놓고 다시 자리에 앉는다. 쟁반에 있는 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쟁반 위에 놓인 햄을 자르려고 한다.) 김 T : (다른 유아들에게 햄을 덜어 주고 있다가 명훈이가 칼을 들고 햄을 자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명훈아! 아직 기다려! 선생님이 하는 것 보고 자를 거야. 명훈 : (칼을 다시 쟁반에 내려놓고 김 T를 쳐다본다.) 김 T : (자신의 앞에 놓인 흰 쟁반에 놓인 햄을 칼을 가지고 반으로 자르면서) 햄을 이렇게 반으로 한 번만 자를 거야. 자, 조심해서 칼로 햄을 잘라 보자. 명훈 : (왼손으로 햄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의 빨간색 손잡이를 쥐고 햄을 자른다. 햄이 크게 차이가 나게 반으로 잘렸다.) 김 T : (비닐이 덮여 있는 채 반으로 잘려져 있는 치즈가 놓여 있는 쟁반을 앞으로 내밀며) 자! 햄 다 자른 아이들은 쟁반에서 치즈를 하나씩 가

시 간	내 용
	져가 비닐 벗기지 않고 칼로 자를 거야. 명훈 : (치즈를 자신의 쟁반 앞에 가져다 놓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치즈를 자르지만 비닐 때문에 비껴 나가면서 잘 잘리지 않자) 안 잘려요. 보조T : 명훈의 옆자리에 의자를 가져다 들고 앉아서 명훈이의 치즈가 담긴 쟁반을 자신의 앞으로 조금 끌어당기며 칼을 오른손에 쥐고) 명훈아, 선생님이 좀 도와줄게. 김 T : (모래 책상에 앉아 있는 유아들 전체를 바라보며) 치즈를 자른 아이들은 치즈에 있는 비닐을 벗겨 내고 그 비닐은 앞에 있는 쟁반에 담자. 명훈 : (두 손으로 치즈를 들어 오른손으로 치즈 비닐을 벗겨내며) 다 벗겼다. 김 T : (앞에 있는 쟁반에 과자를 하나 놓으며) 자, 이제 이렇게 과자를 맨 밑에 깔고 (반으로 자른 햄과 치즈를 그 위에 얹으며) 그 위에다 반으로 자른 치즈와 햄을 이렇게 얹고 (과자를 그 위에 덮으며) 그 위에 과자를 이렇게 다시 덮으면 (완성된 과자샌드를 두 손으로 들어 유아들 앞에 보이며) 이렇게 '과자샌드'가 다 만들어졌네. 자 이제 과자샌드를 만들어 보자. 명훈 : (앞에 놓인 쟁반에서 과자를 두 개 같이 한 손에 쥐고 자기 쟁반에 놓으며 과자를 왼손으로 들고 그 옆에다 치즈와 햄을 오른손으로 붙이다가 햄과 치즈가 쟁반에 떨어진다.) 보조T : (명훈이를 쳐다보며 과자 하나를 명훈이 쟁반에 내려놓고) 명훈아 손에 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햄하고 치즈가 잘 떨어지니까 이렇게 쟁반에 내려 두고 그 위에 햄하고 치즈를 하나씩 올려 두면 된다. 명훈 : (교사를 쳐다보며 오른손을 약간 위로 올렸다 바로 내리며) 내가요! 김 T : (명훈이가 만든 과자샌드 하나를 조금 큰 쟁반에 같이 담으며) 명훈이하고 선우, (그 옆의 유아들을 잠시 쳐다본 후) 서연이는 선생님하고 원장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께 자기가 만든 '과자샌드' 하나

시 간	내 용
	씩 갖다 드리고 오자. 삐약반 아이들이 만든 과자샌드가 얼마나 맛있는지 어른들께도 드시라고 갖다 드리는 거야.
10 : 30	명훈, 서연, 선우 : (자리에서 일어나 과자샌드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는 김 T를 따라 교실 문 쪽으로 따라 나간다.)
	명훈 : (교실 입구에서 모래 책상에 있는 자기 자리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와 앉으며 김 T를 쳐다보며) 이제 먹어도 돼요?
10 : 34	김 T : (명훈이를 향해 미소 지으며 명훈, 선우,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자, 원장실 갔다 온 사람들도 간식차에서 컵 가지고 와서 우유랑 같이 과자샌드 먹자.
	명훈 : (자리에서 일어나 간식 차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다.)
	김 T : (명훈이를 쳐다보며) 어, 명훈아! 의자 밀어 놓고 갔다 오자.
	명훈 : (다시 자리로 걸어와 의자를 두 손으로 밀어 넣고 간식차로 가서 두 손으로 하얀색 컵을 꺼내 들고 와서 책상으로 돌아와 쟁반 위에 컵을 올려놓고 의자를 빼서 앉는다.)
	김 T : (책상 위에 있던 우유가 들어 있는 통을 오른손으로 들고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여 유아들의 컵에 우유를 컵의 1/3 정도 따르며) 우유 더 먹고 싶은 아이는 선생님께 이야기해.
	명훈 : (쟁반에 있는 자신의 만든 과자샌드 하나를 두 손으로 들고 조심스럽게 먹는다. 쟁반에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지자) 어, 과자가 떨어져요.
	김 T : (명훈이가 말하는 것을 쳐다보고 듣다가 유아들 전체를 바라보며) 그래, 얘들아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지니까 쟁반을 자기 앞으로 당겨서 먹어야겠다.
	보조T : (명훈이를 쳐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훈아, 명훈이가 만든 과자샌드 맛있니?
	명훈 : (과자샌드를 한 입 입에다 넣으며 입가에 미소를 짓고서) 네!
	김 T : (유아들 전체를 쳐다보며) 얘들아, 과자샌드만 먹지 말고 목메니까

시 간	내 용
	우유랑 같이 먹어. 꼭꼭 씹어서 천천히. 명훈 : (두 손으로 과자샌드를 먹다가 안에 들어있던 치즈와 햄이 쟁반 아래로 떨어지자 다시 과자 사이에 햄과 치즈를 끼워 먹는다.) 보조T : (명훈이의 쟁반 위에 놓여 있는 컵을 들여다보면서) 근데, 명훈아! 명훈이 우유도 부지런히 먹어야겠다. 목메지 않니? 명훈 : (보조 교사를 쳐다본 후 오른손으로 컵의 손잡이를 쥐고 우유를 두 모금 마신다) 과자랑 우유랑 같이 먹어야지 튼튼해져요. 힘도 세지고. 보조T : 맞아, 명훈이 말처럼 과자하고 우유랑 다른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튼튼해지지. 석 민 : (보조 교사를 쳐다보며) 채소도 많이 먹어야 해요.
10 : 40	명훈 :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 먹었어요. (의자를 밀어 넣고 두 손으로 컵이 놓인 흰 쟁반을 들고 간식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간다.) 보조T : (명훈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명훈이 어깨를 감싸며 간식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상체를 굽히며) 컵하고 쟁반은 맨 아래 칸에 두고. 명훈 : (간식차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간식차 맨 아래 칸 오른쪽에 컵을 밀어 넣고 흰 쟁반은 왼쪽에 이미 정리되어 있는 쟁반들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보조T : (명훈이 뒤에 서연이가 쟁반을 들고 오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서연이 쟁반을 두 손으로 같이 잡으며) 서연아, 다 먹었니? 자, 맨 아래 칸이다 정리하자.
10 : 42	명훈 : (역할놀이 영역에 있는 화장대 앞으로 가서 파란색 폴로 향수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뚜껑을 연다.) 보조T : (명훈이 뒤에서 오른손으로 명훈이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근데, 명훈아! 조용한 놀이 세 가지 먼저 한 후에 소꿉방에서 놀자. 명훈 : (폴로 향수병을 화장대 위에 다시 올려놓고 조작 영역 쪽으로 걸어간다. 조작 영역의 교구들이 있는 장 앞에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둘째 선반에 놓여 있는 '백설 공주'가 그려져 있는 종이 퍼즐을 두 손

시 간	내 용
	으로 잡고 모래 책상으로 걸어가 책상 위에 퍼즐을 올려두고 의자를 빼서 앉는다. 퍼즐을 뒤로 뒤집어 책상 위에 퍼즐 조각들을 다 떼어놓은 후 다시 퍼즐 판을 바로 놓은 후 백설 공주의 검정 머리카락과 얼굴 부분이 있는 제일 큰 퍼즐 조각을 제 위치에 맞춘다. 백설 공주 손과 새 모양이 그려져 있는 퍼즐을 이곳저곳에다 가져다 대 보고는 보조 교사를 쳐다보며) 선생님, 도와주세요. 보조T : (백설 공주 손과 새 모양이 그려져 있는 퍼즐을 퍼즐판 왼쪽 제자리에 대 보고는) 이렇게 하면 백설 공주님 손이 보이네. 그 위에 예쁜 새도 있고. (처음 맞춘 퍼즐의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훈아, 백설 공주 얼굴 밑에는 무슨 모양이 올까? 명훈 : (보조 교사를 쳐다보며) 목이요. 보조T : 그래, 목이 그려져 있는 조각을 찾아보고 그 밑에다 맞추면 되겠네. 김 T : (과학 영역과 모래 책상 사이에 서서 카메라를 들고) 명훈아, 여기 좀 봐봐! (명훈이가 퍼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는다.) 명훈 : (다시 오른손에 퍼즐 조각을 쥐고 퍼즐 판 위에 대어 이곳저곳에 맞추어 본다.) 보조T : 명훈아! 백설 공주 다른 팔도 한번 찾아봐. 명훈 :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팔뚝을 치며) 여기 팔요? 보조T : (명훈이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조각들 중에 백설 공주의 소매와 팔이 있는 것을 찾아 판에 맞추며) 여기 넣으면 팔이 되겠다. 명훈 : (두 손에 퍼즐 조각을 각각 하나씩 쥐고 퍼즐판에 대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맞추지 못하고 헤맨다.) 보조T : (백설 공주 몸과 치마 모양의 퍼즐을 맞추며) 명훈아, 나머지 남은 것 명훈이가 한번 다 맞춰 보자. 명훈 : (남은 퍼즐 조각 4개 중의 하나를 제 위치에 맞추며 곧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천천히 다 맞춘 후) 선생님, 이제 다 됐어요! 보조T : (퍼즐판과 명훈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머, 정말 명훈이가 다

시 간	내 용
	맞췄네. 백설 공주님이 다 보이고.
10 : 47	명훈 :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밀어 넣고 퍼즐을 두 손으로 들고 장 앞으로 걸어가 본래 빈자리에 퍼즐을 놓고는 그 옆에 있는 토끼가 당근을 찾아가는 길을 잇는 놀잇감이 든 쟁반을 두 손으로 들고 다시 모래 책상으로 와서 앉는다. 왼손으로 매직펜을 잡고 오른손으로 뚜껑을 열어 매직펜 뒤에 끼우고 오른손에 펜을 쥐어 한 번에 길을 따라 선을 다 긋는다. 뚜껑을 다시 닫고 지우개로 이은 선을 다 지운 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의자를 밀어 넣고 다시 제 자리에 놓는다. 모래 책상에서 호빵맨 입체 퍼즐을 하고 있던 선희 옆에 다가가) 나 해도 돼? 선 희 : (호빵맨 퍼즐을 명훈이게 내밀며) 해. 명훈 : (호빵맨 퍼즐을 자기 앞으로 당겨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으며) 이것만 하면 되겠네. (보조 교사를 쳐다보며 호빵맨 조각 퍼즐을 오른손에 잡은 채) 우리 아빠가 사 줬어요. 호빵맨 사 줬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조금 큰 목소리로 양손을 벌리며) 더 큰 거요. 선 희 : (명훈이를 쳐다보고 다시 보조 교사에게 시선을 돌려) 우리 아빠도 사 줬어요. 제일 큰 거요. 보조T : (명훈이와 선희를 쳐다보고 미소 지으며) 그래? 명훈이하고 선희 아빠는 참 자상도 하시네. 근데 꼭 큰 거라고 좋은 것만은 아니야. 명훈 : (호빵맨과 세균맨 조각 퍼즐을 통 안으로 차례로 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생님, 세 개 다 했어요. 보조T : 그래, 명훈이 호빵맨 정리하고 다른 놀이 해도 되겠다. 명훈 : (미소를 지으며 호빵맨을 두 손으로 들어 조작 영역 선반 맨 위 칸 왼쪽에 놓고 역할놀이 영역으로 빠른 걸음으로 급히 걸어간다. 옷들이 개어져 있는 장 앞에서 옆에 앉아 있는 교생을 쳐다보며) 양복 입을래요. 넥타이도요. 교생1 : (양복 상의를 꺼내 명훈이 뒤로 가서 소매를 벌리며) 명훈이는 아빠

시 간	내 용
	처럼 옷 입는 거 좋아? 명훈 : (양복 소매에 팔을 집어넣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교생1 : (넥타이 자리 표시가 있는 장의 선반을 보고 쌓기놀이 영역에 있는 현태를 쳐다보며) 근데, 넥타이는 현태가 매고 있네. 현 태 : (교생1의 말을 듣고 교생1과 명훈이 앞에 서서) 선생님, 왜요? 교생1 : (현태를 쳐다보며) 음, 명훈이도 넥타이 매고 싶대. 현태야. 현태가 매고 나서 명훈이한테 줄래? 현 태 : (넥타이를 오른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음, 내가 하다가 음~ 싫어지면, 음~ 명훈이한테 줄게요. (다시 쌓기놀이 영역으로 돌아간다.) 명훈 : (보조 교사를 쳐다보며) 현태가 약속했어요. 교생2 : (양복바지를 꺼내며) 명훈아, 바지는 안 입을 거야? 명훈 : (교생을 쳐다보며) 예. 교생2 : (바지를 개어 현태에게 내밀며) 그럼, 바지는 다시 넣어 놓자.
10 : 50	명훈 : (두 손으로 바지를 들고 양복 표시가 있는 선반에 양복바지를 밀어 넣고는 쌓기놀이 영역에 있는 현태에게 다가가 옆에 있는 주유기를 끌어 호수를 현태가 타고 있는 노란 불도저에 꽂으며) 기름 넣어 줄까요? 현 태 : (명훈이를 바라보며 불도저의 흙 파는 부분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보이면서) [오른쪽 흙 파는 부분과 불도저의 연결 부분이 떨어졌다.] 근데요, 차가 망가졌어요. (다시 오른쪽 흙 파는 부분 손잡이를 까딱거리며) 이게 안 돼요. 명훈 : (자리에서 일어나 흙 파는 부분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놓으며) 다시 고쳤어요. (주유기의 호수를 빼며) 요것만 하세요. 이제 내리세요. (주유기 옆 바구니에 담겨 있는 보라색 컬러 블록(지붕을 만드는) 하나를 오른손으로 들어 보이며 현태를 쳐다보면서) 차 닦아 줄게요. 현 태 : (불도저에 앉은 채 오른손으로 넥타이를 만지며) 나는 넥타이를 하

시 간	내 용
	고 있으니까 음~ 경찰이에요. 명훈 : (보라색 컬러 벽돌을 오른쪽 바닥에 내려놓으며 오른손을 눈썹 위에 가져가 경례하며) 경찰! 현 태 : (경례는 하지 않고 명훈이를 쳐다보며) 경찰! 명 훈 : (다시 보라색 컬러 벽돌을 오른손에 들고) 나는 차 닦는 사람! ('잘 치우는 아이는 누구냐?' 노래의 음을 따라서) 차 닦는 사람, 누구 있을까? (파란색 큰 차를 타고 있는 선호 앞에 서서) 내리세요. 차 닦아 줄게요. 선 호 : (파란색 큰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명훈이를 쳐다보며 미소 짓는다.)
10 : 55	명훈 : (보라색 컬러 블록을 오른손에 들고 머리 위에서 한 바퀴 돌리며) 부우웅, 사야! (보라색 컬러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유기 앞으로 가서) 휘발유 넣을 사람 어디 있을까? ('잘 치우는 아이는 누구냐' 노래의 음을 따라서 노래 부르듯이 한다. 선호가 타고 있는 파란색 큰 차 창문에 주유기 호수를 꼽은 후 주유기 옆에 달린 손잡이를 돌리며) 몇 천 원이요? 선 호 : (명훈이를 쳐다보고 미소 지으며) 6천 원이요. 명훈 : (선호를 쳐다보며) 육천 원이요? (입술을 앞으로 내밀며 바람소리를 내어) 슈우~ 슈우~(주유기 앞에 붙여져 있는 숫자들을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누르며) 땡! 땡! 됐습니다! 선호와 현태를 쳐다보며 불도저의 옆면을 오른손을 펴서 만지며) 이건 LG 차에요. (불도저 뒷바퀴 옆면에 새겨진 완구 회사 상표 이름 'Little Tikes'를 가리키며) 이거 보세요. 선호, 현태 : (명훈이가 가리키는 부분을 쳐다본다.) 선 호 : (파란색 큰 차를 타고 미술 책상 쪽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명훈 :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휘발유 넣을 사람, 어디 있을까? (자기 쪽으로 돌아오는 파란색 큰 차를 타고 있는 선호를 보며) 이리 오세요.

시 간	내 용
	(주유기 앞에 앉아 호수를 창문에다 꽂고) 쉬이~ 몇 천 원이요?
	선 호 : 6천 원!
	명훈 : (선호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6천 원이요? 또요?
	선 호 : (잠시 있다가 큰 목소리로 명훈이를 쳐다보며) 4만 원이요.
	명훈 : (주유기 앞에 붙여져 있는 숫자 버튼을 누른 후 주유기 옆면에 달려 있는 손잡이를 두 바퀴 돌리며) 기름 넣었어요. (선호가 탄 차 옆에 있는 노란 불도저에 올라타며) LG 차 갑니다. (두 발로 바닥으로 굴려 50cm 정도 앞으로 나아가다가 앞에 앉아 있는 민우를 쳐다보고 그 자리에 불도저를 멈춰 서서) 끼익! (민우를 바라보며) 아저씨! 저는요, 차 닦는 사람인데요. LG 차가 빠져나갈 거예요. 왼쪽으로 빙 돌아서 빠져나가면 돼요? (1미터쯤 떨어져 있는 자주색 컬러 블록을 오른손으로 가리키며) 저 빨간 거에서요? (민우 얼굴을 한 번 쳐다본 후 고개를 약간 숙이며) 고맙습니다.
	민 우 : (아무 말 하지 않고 명훈이의 손짓에 따라 시선만 옮기며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명훈 : (노란 불도저에 올라타 두 발로 바닥을 힘차게 밀면서) 기름 넣어 줄 휘발유 아저씨! (미술 책상을 지나 도장 찍기를 하는 곳에 앉아 있는 현태 앞으로 불도저를 빠르게 몰고 가서는) 아저씨! 기름 넣어 줄 휘발유는 어디 가야 있나요?
	현 태 :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정면을 오른손으로 뻗어 가리키며) 어, 저기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명훈 : (현태 얼굴을 쳐다보며) LG마트로 쭉 가면요?
	현 태 : (명훈이의 얼굴을 쳐다보며) 네, 산 쪽으로요.
10 : 57	명훈 : (노란색 불도저에 앉아 흙 파는 부분을 위로 들어 올리며) 네, 고맙습니다. (불도저를 몰고 조작 영역 장 사이로 지나 쌓기놀이 영역으로 가서 종이 벽돌이 있는 곳 앞에 멈춰 조작 영역 장 사이로 지나 쌓기놀이 영역으로 가서 종이 벽돌이 있는 곳 앞에 멈춰선 후) 윙~ 박

시 간	내 용
	스 (바닥에 있는 초록색 종이 벽돌을 오른손으로 가리키며) 저거요. 주세요. (옆에 있는 선호를 쳐다본다.) 선 호 : (초록색 종이 벽돌을 주워들며) 공사하게요? 명훈 : (투명한 기차를 불도저 흙 파는 부분에 올려놓으며) 떨어뜨리면 안 돼요. (선호를 쳐다보며) 아저씨, 박스 여기 주세요. (선호에게 초록색 종이 블록을 두 손으로 건네받아 투명 기차 옆에 올려놓으며) 공사 가야지. (불도저를 앞으로 조금 밀고 나가니 초록색 종이 블록과 투명 기차가 바닥에 떨어진다.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며) 로봇! 변신! (손을 내리고 역할놀이 영역으로 가서 양복 상의를 벗어 개지 않고 구겨서 양복 표시가 있던 자리에 밀어 넣고 다시 불도저 위에 올라탄다.) 민 우 : (쌓기놀이 영역에서 명훈이 앞에 다가와 서서 불도저의 흙 파는 부분을 두 손으로 잡는다.) 명훈 : (아무 말 없이 정면을 응시하며 두 손으로 흙 파는 부분을 올리고 세게 발을 굴려 앞으로 나간다.) 민 우 : (명훈이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빌려주기로 했잖아? (명훈이를 어깨로 민다.) 나 T : (역할놀이 영역에 앉아 있다가 민우와 명훈 앞으로 나가와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민우야, 좀 친절하게 물어보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훈아, 나 좀 타도 돼?
11 : 00	민 우 : (명훈이를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나 좀 타도 돼? 명훈 : (불도저에서 일어나 옆으로 나온다. 미끄럼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서 빨간 계단으로 올라가 미끄럼 위에서 유치원 마당이 보이는 창문을 3초 정도 가만히 바라본 후 두 손으로 미끄럼을 잡고 내려온다.) (명훈이 뒤를 따라 다경, 명은, 선호가 차례로 미끄럼을 탄다.) 명훈 : (미끄럼 위에서 뒤에 서 있는 다경을 쳐다보고 미소 짓는다.)

시 간	내 용
11 : 05	명훈 : (빠른 걸음으로 미끄럼 계단을 올라가면서) 휘익! (미끄럼 위에서 앞에 있는 명은이가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지 않고 앉아 있자 명은이 어깨를 두 손으로 약하게 밀며) 어서 내려가야지. 못 내려가잖아. 명 은 : (웃으며 조금 더 앉아 있다가 미끄럼 아래에 있는 보조 교사와 눈이 마주치자) 미끄럼을 타고 내려온다. 나 T : (나무로 치는 것을 양손에 들고 지나가며 미끄럼을 타고 있던 유아 전체를 바라보며) 얘들아, 조금 있다가 다 치울 거야! 놀던 거 정리하자. 명훈 : (다시 미끄럼 계단으로 올라가 미끄럼을 타고 내려온다.) 나 T :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과일들을 상 위로 가져다 놓으며 치우는 유아들을 쳐다보면서) 잘 치우는 아이, 누구냐? 랄랄랄랄 라랄라, 잘 치우는 아이, 홍다경, 김선희~(서 있는 명훈이를 보면서 도시락을 내밀며) 명훈아, 도시락 좀 제 자리에 넣어 주자. 명훈 : (도시락 통을 두 손으로 들고 개수대 아래 선반 앞으로 걸어가 상체를 숙여 도시락 표시가 있는 부분에 도시락을 놓는다.) 김 T : (쌓기놀이 영역에서 역할놀이 영역을 향해) 소꿉방 다 치운 사람은 쌓기 놀이 영역에 와서 좀 도와주자. 명훈 : (쌓기놀이 영역으로 걸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 블록을 두 손으로 들어 장에 넣고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본다.) (다른 유아들과 선생님들은 계속 치우고 있다.) 나 T : (조작 영역 장 옆에 의자를 두고 앉으며 전체 유아들을 향해) 다 정리한 사람은 쌓기놀이 영역에 와서 모여앉자, 먼저 온 사람은 의자 두 손으로 갖고 오세요. (두 손을 들어 손유희를 하면서) 엄지야! 엄지야! 이리 와~. 명훈 : (모래 책상으로 달려가 의자를 두 손으로 들다가 다른 유아들이 의자를 먼저 들고 많이 가 버리자 자리에 서서 쌓기놀이 영역을 멍하

시 간	내 용
	니 쳐다보고 서 있다.) 나 T : (뒤를 돌아 아직 자리에 앉지 않은 유아들을 쳐다보며) 지금 오는 사람들은 의자 놓고 와서 바닥에 얼른 앉으세요. (두 손을 돌리며) 아이참, 재미가 있구나. ♬ 명훈 : (의자를 내려놓고 뛰어서 교사 앞을 가로질러 걸어오다가 보조 교사가 손짓을 하는 자리로 걸어가 바닥에 앉아 나 T를 쳐다본다.) 나 T : (키티 얼굴 모양의 손인형을 왼손에 끼고 까닥거리면서 유아들 전체에게 귀여운 목소리로) 너희들 참 재미있게 놀더라.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그럼 개구리는 누구하고 놀지? (오른손에 초록색 개구리 캐스터네츠를 들어 까닥거리며 굵고 낮은 목소리로) 개굴! 나는 개구리하고 놀지! 명훈 : (허리를 펴고 앉아 두 손을 잡고 손가락을 주물럭거리며 나 T를 열심히 쳐다본다.) 나 T : (키티 손인형과 개구리 캐스터네츠를 바닥에 있는 쟁반에 내려 두고 보자기를 덮으면서) 근데 얘들아, 이런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것이 있대. (자세를 바로 하며) '나는 어떤 노래인지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는 아이는 바르게 한번 앉아 보자. 명훈 : (허리를 펴고 양팔을 어깨에 붙이며 바르게 고쳐 앉고 나 T를 쳐다본다.) 나 T : (유아들 전체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면서) 그래 이제 모두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럼 선생님이 먼저 한 번 불러줄게, 어떤 노래인지 한 번 잘 들어 봐.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김 T가 반주를 하자 가볍게 몸을 좌우로 흔들며 미소를 계속 지으며) 개굴개굴 개굴이, 누구하고 노오나 ♬ 명훈 : (교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만 따라한다. 뒤에 의자에 앉은 명은이가 노래를 따라 부르자 고개를 돌려 명은이를 잠시 쳐다본다.)

시 간	내 용
	[명은이는 교사가 노래하는 동안 따라 노래를 부른다. 명은이는 이전에 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있어 노래를 많이 알고 있는 편이다.] 나 T : (미소를 지으며 유아들 전체를 훑어 쳐다보며) 잘 들어 보았니? 유아들 전체(명훈 포함) : 네! 나 T :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네. (명은이를 잠시 쳐다본다.) 그럼 이번에는 피아노 소리만 한번 들어 보자. 명훈 : (고개를 피아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려 피아노를 치고 있는 김 T를 5초가량 쳐다본 후 다시 나 T를 바라본다.) 나 T :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앞부분을 먼저 부를 테니까 너희들이 뒤 한번 불러 줘. 명훈 : (교사가 부르는 앞부분도 조그만 소리로 따라 흥얼거리며 뒤 조금 큰 소리로) 개굴개굴 개구리, 개구리하고 노올자. (옆에서 노래를 함께 부르는 보조 교사를 잠시 쳐다보면서 노래 부른다.) 나 T : 너희들 처음 새 노래 불러 보는 사람도 많은데 참 잘 불러 주었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바꿔서, 너희들이 먼저 앞부분을 부르면 선생님이 뒷부분을 부를게. 명훈 : (전주가 나오자 가볍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오른쪽 옆에 앉아 있는 영진이와 마주 보게 되자 미소 짓는다. 큰 소리로 노래 부른다.) 나 T : 그럼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불러볼 거야. 명훈 : (몸을 가볍게 흔들며 큰 소리로 노래 부른다) 개굴개굴, 개구리~. 나 T : 참 잘 불러 주었다. 그럼 이번에는 노랫말을 바꿔서 불러 볼 건데, 노란 오리 모양의 캐스터네츠를 들어 보이며 '꽤액꽤액' (명훈 및 앉아 있던 유아들 몇 명이 '오리' 하고 대답한다) 나 T : 그래, 오리는 그럼 누구하고 노나? (명훈 및 거의 전체 유아들이 큰 소리로 '오리' 하고 대답한다.) 나 T : 그럼, 이번에는 개구리 대신에 '꽤액꽤액 오리'를 넣어서 한 번 불러 보자.

시 간	내 용
	명훈 : ('꽤액꽤액' 하는 부분은 더 크게 노래 부른다) 보조T : (교실 입구 바구니에 담겨져 있던 '상자'가 든 종이봉투를 가져와 나T 뒤에 두고 뒤로 돌아서 명훈이 옆에 앉는다.) 나 T : (상자가 든 종이봉투를 가슴 높이로 들어 보이며) 애들아, 아침에 이렇게 상자를 모아온 아이가 있는데, 상자 가져온 아이는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선 우 : (의자에서 일어나 나 T 왼쪽 옆에 바른 자세로 서서 유아들을 쳐다보고 서 있다.) 나 T : 그럼, 얘들아 선우가 왜 상자를 가지고 왔는지 다 같이 물어보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유아들의 소리에 맞춰) 선우야! 왜 가지고 왔어? 명훈 : (선우를 쳐다보며 두 손을 모아 만지작거리면서) 선우야. 왜 가지고 왔어? 선 우 : (조금 머뭇거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같이 쓸려고. 나 T : (선우를 쳐다보며) 그래, 선우가 친구들과 같이 나누어 쓰려고 상자를 모아 가지고 왔대. 그럼 다 같이 '선우야! 잘 쓸게' 하고 대답하자. 명훈 : (나 T 말을 따라서 선우를 쳐다보며) 잘 쓸게. 나 T : 다 같이 선우한테 '친구 사랑하는 아이' 노래 불러 주자.
11 : 00	명훈 : (다른 유아들이 몇 명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같이 아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보조T : (명훈이 옆에서 명훈이 귀에 속삭이며) 명훈아, 조금 작은 소리로, 고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자. 명훈 :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보조 교사를 미소 지으며 쳐다본다.) 보조T : (고개를 끄덕이며 명훈이를 쳐다보고 미소 짓는다.) 나 T : (선우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자아 선우는 이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자. 선 우 : (무표정한 얼굴로 앞으로 걸어 나와서 자기 자리에 앉는다.)

시 간	내 용
11 : 13	나 T : [조금 속상한 얼굴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치우기 시간에 보니까 치우는 사람만 치우고 딴짓하고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논 건 누가 치우는 거야? 전체 유아들 : (조금 작은 목소리로) 자기가. 현 태 : (큰 목소리로) 자기가 갖고 놀던 사람이 치워야 해요. 나 T : 이렇게 대답은 잘 하면서, 입으로만 치우나? 몇 명 유아들과 교생 및 연구생 선생님 : 아니요. 명훈 : (조금 늦게 대답한다.) 아니요. 나 T : 그럼 내일부터 모든 아이들이 치우기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다 잘 치울 수 있겠니? 전체 유아들 : (큰 소리로) 네. 나 T :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세워 앞으로 내어 보이며) 그럼 모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새끼손가락을 세운 채 노래를 부르며) 새끼손가락 ♬ '꼭꼭 약속해' 부분은 크게 부른다.) 나 T : (오른손을 내리고 문 쪽, 의자에 앉아 있는 유아들을 쳐다보며) 그럼 선생님이 이름 부르는 아이부터 의자 정리하지 않고 자기장에 가서 옷 입고 마당놀이 하러 나갈 거야. 채서연(교사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로 유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명훈 : (옆에 있는 효진이가 일어나자 자기 이름이 불리기 전에 따라 일어나 장으로 걸어간다. 병아리 이름표들이 붙여져 있는 곳 앞에 서서 복도에 있는 연구생 선생님을 쳐다보며) 선생님, 병아리 떼요? 연구생T : (명훈이를 쳐다보며) 아니, 떼지 않아도 돼. 명훈이 어서 와서 옷 입자. 명훈 : (진달래 반 입구 문 왼쪽에 있는 장 앞에 서서 오른손은 장을 짚고 서서 방신(흰 실내화)을 벗고, 몸을 기울여 운동화를 오른손으로 잡고 꺼낸다. 방신을 아래쪽 선반에 놓고 왼손으로 잠바를 꺼내 들고 옆에 있는 보조 교사에게) 선생님, 입혀 주세요.

시 간	내 용
	보조T : (무릎을 구부린 채 앉아 잠바를 양손으로 펼쳐 들고) 그래, 명훈아. (잠바를 다 입히고 옆에 놓인 운동화를 오른손으로 집어 명훈이에게 내밀며) 그래, 명훈이 운동화 들고 나가자. 명훈 : (운동화를 오른손에 쥐고 뛰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 문 앞에 빨간 선을 따라 줄을 서서 기다린다. 뒤에 앉은 세아를 쳐다보며 미소 짓는다. 문 앞에 다다르자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운동화를 놓으며) 포켓몬스터예요. 교생2 : (마당을 등지고 명훈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신발을 신겨 주면서) 정말, 명훈이 운동화에 피카추가 있네. 철 수 : (명훈이 옆에서 신발을 신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내 신발도 포켓몬스턴데. 보조T : (그네 옆에 서서 두 손으로 그네를 잡고 흔들며) 그네 타고 어디로 갈까? 명훈 : (가장 먼저 큰 소리로 대답하며) 에버랜드요. 보조T : (명훈이를 쳐다보며) 네 그럼 에버랜드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1 : 15	명훈 : (그네를 잡아 멈춰 세우며) 에버랜드에 다 왔습니다. (다시 그네를 밀며) 이번에는 어디로~. 경 수 : (교사 뒤에서 교사의 옷을 잡아당기며) 나도 타고 싶어요. 보조T : (그네를 계속 밀면서 고개를 돌려 경수를 쳐다보며) 근데, 경수야, 지금은 그네에 자리가 없네. 다른 놀이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자리 나면 경수 부를게. 경 수 : (고개를 흔들며 교사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어어, 싫어요. 지금 탈래요 지금이요. 보조T : (경수를 쳐다보고 다시 그네를 타고 있는 유아들을 보면서) 애들아, 경수가 지금 그네를 타고 싶다는데, 양보할 사람 누구 있을까? 명훈 : (조금 멈칫하다가 오른손을 들며 큰 소리로) 저요!

시 간	내 용
	보조T : (그네를 세우며) 우리 명훈이가 착하게 친구에게 양보도 잘하네.
11 : 20	명훈 : (보조 교사가 손을 잡아 주자, 그네에서 내려와 작은 목소리로) 명훈이는 양보 잘해요. (종합 놀이 기구에 있는 밧줄타기 하는 곳에서 놀고 있는 선우와 선호, 철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며) 야, 같이 놀자. (위에 있는 유아들을 쳐다보며 밧줄을 두 손으로 잡고 올라간다.)
	선 우 : (명훈이가 올라오자 소리 내어 웃으며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로 들어와.
	명훈 : (선우를 따라 선호, 철수, 현태와 함께 웃으며 터널 안으로 뛰어간다.)
11 : 23	교생1 : (밧줄타기 아래에 서서 터널 안을 쳐다보며) 애들아, 그 안에서 뭐해? 마당놀이 재미있니?
	명훈 : (터널 안에 몸을 구부리고 서서 옆에 있는 유아들을 쳐다보며 소리 내어 웃으며) 마당놀이? 히히! (터널을 통과하여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 다시 밧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슈우웅. (위에 올라서서 밧줄을 타고 올라오는 선우를 쳐다보며 두 손을 높이 들며) 어! 합체! (빨리 터널을 빠져나와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서 앞에 뛰어가는 연희의 오른팔을 두 손으로 잡으며) 잡았다. (연희 앞에 서서 두 발을 벌리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합체!
	연 희 : (얼굴을 찡그리며) 나 합체, 나는 싫어!
	나 T : (그네 옆 모래밭에서 걸어오며) 근데, 명훈아. 연희가 그러면 좀 불편하겠다.
	명훈 : (앞에 있는 민우를 향해 오른손을 앞으로 뻗으며) 슈퍼 게임 선 보드! (손을 내려 밧줄을 타고 올라가며) 난 이쪽으로 갈게 너도 와.
	선 우 : (웃으며 밧줄을 타고 명훈이를 쳐다보며 올라가며) 알았어. 출동!
11 : 27	교생2 : (철수가 밧줄을 잡지 않고 올라간 것을 보고) 철수야, 철수는 밧줄 안 잡고도 올라가네. 무섭지 않니?
	철 수 : (웃으며) 아니요.
	명훈 : (밧줄을 안 잡고 올라가며) 나도요. 나도 안 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시 간	내 용
	봐 봐요. 선 우 : (명훈이 따라 밧줄을 안 잡고 올라가며) 나도! 현 태 : (밧줄을 안 잡고 올라가며) 나는 더 안 잡고 갈 수 있어요. 더요. 명훈 : (터널을 지나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 밧줄을 안 잡고 몸을 구부리며 올라가서 두 다리를 벌려 흔들면서) 나! 2층에 있다! 오주 트리~! 선 우 : (명훈이를 쳐다보며 똑같이 다리를 흔들며 웃는다) 윙윙! 명훈 : [미끄럼에서 내려와 다시 위로 올라가 터널을 빠져 나오는데 선호가 미끄럼에서 멈춰 앉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 버리자 가만히 미끄럼에 앉아서 먼저 미끄럼을 타고 내려간 선호를 잠시 쳐다본다.] (미끄럼에서 내려가 앞에 있는 굴곡이 심한 쇠로 된 작은 미끄럼에 울다 혼자 타고 내려온다. 모래밭으로 달려가 뒤를 바라보며) 여기에 와! (선호, 선우가 자신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오자 다시 밧줄타기 하는 곳으로 달려가 밧줄을 두 손으로 잡고 올라가며) 쉬이이!
11 : 47	김 T : (사진기를 두 손으로 들고 위를 쳐다보며) 선우와 명훈이는 선생님 따라와서 사진 찍자. 명훈 : (교사를 쳐다보며) 나도 재밌어요. 선생님!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 밧줄을 잡지 않고 올라가며) 선생님! 하나 두울(위에 올라서서 웃으며) 안 잡고 올라갔어요. 교생2 : (명훈이를 쳐다보며) 와, 명훈이 안 잡고 올라가고, 용감하네. (그네 옆 모래밭으로 걸어간다.) 명훈 :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 다시 밧줄을 안 잡고 올라가며 보조 교사에게) 선생님, 보세요. (위로 올라와 자리에서 두 발을 바닥에서 떼고 위로 한 번 뛰며) 헤이, 얏! (터널 안으로 들어가며) 선생님, 이것 보세요. (두 팔을 앞으로 뻗어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면서) 쉬이잉! (앞에 뛰어가는 선우에게) 합체했어? 선 우 : (옆에서 밧줄을 잡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명훈이에게) 합체!

시 간	내 용
	명훈 : (위에 올라와 두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팔짝 한번 뛰며) 합체! 선 보드 레인파워! 선 우 : (터널 안으로 뛰어 들어가) 여기 있다! 명훈 : (선우를 따라 터널 안으로 들어가 선우를 쳐다보고 웃으며) 나도 여기 있다. 으흐흐흐. 재밌다. (터널을 통과하고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 다시 밧줄을 잡지 않고 위로 올라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 선우와 철수, 선호에게) 허허! 너무 힘들다. 조금 쉬었다 해. (오른손을 가슴에 가져가 대고 숨을 몰아쉰다. 땀이 나서 이마와 머리카락이 조금 젖었다.) 선 우 : (뒤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웃으며 앞으로 달려가 미끄럼을 타고 웃으면서) 히이히. 명훈 : (선우를 뒤따라 미끄럼을 타고 자신 뒤에도 선호가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 미끄럼에서 세 사람이 멈춰 앉아 있게 되자 앞뒤를 쳐다보며) 하하하, 멈췄다! 연구생T : (영진이와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미끄럼에 있는 선호와 명훈, 선우를 쳐다보며) 줄줄이 기차네. 명훈 : (다시 미끄럼에서 내려와 밧줄을 잡지 않고 위로 올라가 미끄럼 위에 앉아 내려가지 않고 뒤를 돌아본다. 선호, 선우가 차례로 미끄럼에 앉아 뒤를 보며 큰 소리로 웃는다.) 하하하, 기차다! 선 우 : (큰 소리로 웃으며) 정말! 명훈 : (대답하지 않고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 김 T에게 달려간다.) 김 T : (명훈이는 오른손, 선우하고는 왼손을 잡고 손을 앞뒤로 흔들며 네스팅 브리지 뒤에 있는 나무 밑에 있는 '라난큐러스' 꽃이 핀 곳에서 멈춰 서서 선우와 명훈이를 가까이 앉게 하며) 이렇게 둘이. (뒷걸음질 치며 사진기를 들고) 명훈아, 선우야 웃어. 명훈 : (어색하게 웃는다.) 선 우 : (무표정하게 사진기를 쳐다본다.)

시 간	내 용
	명훈 : (사진을 다 찍자, 다시 밧줄타기 하는 곳으로 선우와 함께 달려가며) 빨리 가자! 출동! 선 우 : (뛰어 가면서 큰 소리로) 출동! (명훈이와 밧줄타기 앞에서 가볍게 부딪치자 명훈이를 쳐다보고 웃으며) 부딪쳤다! 히히! 명훈 : (선우를 쳐다보고 웃으며 이번에도 선호, 선우와 줄이어 미끄럼을 타고 웃으며 내려온다.) 쉬이잉! 하하! 연구생T : (미끄럼 아래에 서서 위를 쳐다보고 웃으며 밧줄을 두 손으로 잡고 올라가 터널 안으로 뛰어 들어간 후 재빨리 미끄럼을 타고 내려온다. 다시 밧줄타기를 하려고 손을 댔다가 유아들이 모두 모래밭에 가서 놀고 있자 몸을 돌려 모래밭으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이리와! (오른손으로 손짓을 한 후 유아들이 달려오자 다시 밧줄타기 하는 곳으로 달려간다. 밧줄을 타고 올라가 오른손으로 이마를 닦으며 숨을 몰아쉬면서 터널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아아! (터널에 기대어 쪼그리고 앉아) 쉬자! (오른손 소매로 이마의 땀을 한 번 닦아 낸다.) 선 우 : (명훈이를 마주 보고 허리를 구부린 채 서서) 허허! 쉬자! 명훈 : (약 15초 정도 터널 안에서 앉아 있다가 다시 터널 안을 뛰어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며) 쉬이이! 백터맨 이글! (두 손을 앞으로 내민다.) 철 수 : (명훈이를 힐끗 쳐다본 후, 밧줄을 타고 올라가며) 나는 백터맨 타이거! (올라가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올라오는 게 대장! (터널을 향하여 앞으로 재빨리 달려가 미끄럼을 타고 내려온 후, 밧줄을 잡지 않고 서둘러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대장이야!
11 : 55	명훈 : (터널 안에서 철수를 쳐다보며) 내가 아까 올라왔으니까 내가 대장이지! (미끄럼을 타고 재빨리 내려간다.) 나 T : (오른손에 탬버린 들고 흔들면서) 얘들아, 이제 놀던 거 다 치우고 모일 거야. 어서 내려와서 치우자.

시 간	내 용
	명훈 : (다시 밧줄을 잡고 올라가 한 번 더 미끄럼을 타고 내려온다.) 연구생T : (오른손에 모래가 묻은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명훈이를 쳐다보며) 명훈아, 이제 그만 놀고 이리 와서 치우자. 명훈 : (연구생 T 앞으로 달려가며) 예. (그네 옆 모래밭에 서서 유아들과 선생님들이 치우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김 T가 명훈이 손에 삽을 쥐어 주자) 이거 어디에 놔요? 김 T : (그네 옆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가리키며) 저기 넣으면 돼. 명훈 : (오른손에 삽의 손잡이 중 모래가 묻지 않은 부분을 가볍게 잡고 바구니 앞으로 가서 던져 넣는다.) 나 T : (탬버린을 두 번 흔들며 평균대 옆에 서서) 다 치운 아이는, 나 T 앞으로 와서 줄 설 거야. 명훈 : (유아들이 나 T 앞으로 뛰어가자 재빨리 뛰어가 줄을 서지 않고 앞으로 가서 서 있는다.) 교생2 : (명훈이 오른팔을 뒤로 잡아끌며) 명훈아, 뒤로 가서 차례차례 줄 서자. 명훈 : (교생을 따라 태현이 뒤로 가서 줄을 선다. 줄을 따라 정자 쪽으로 걸어가며 '동산 가는 길'을 다 함께 부르자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듯 노래 부른다. 벤치에 앉아 있는 어머니들을 쳐다보며 걸어간다. 나 T의 왼쪽 안쪽 의자 오른쪽 끝에 앉는다. 발을 가볍게 흔들며 나 T를 쳐다본다.) 나 T : (짐승 먹이가 든 바구니 옆에 있는 달력을 앞으로 들어 보이며) 얘들아, 오늘은 며칠이야? (아무 대답이 없자 14에 있는 빨간색 하트를 손으로 집으며) 오늘은 4월 14일, 그럼 내일은 4월 15일인데 (15자에 있는 아버지 얼굴 표시를 가리키며) 근데 얘들아, 내일은 누구랑 같이 유치원에 오냐면…. 명훈 : (다른 유아들과 함께) 아빠! 나 T : (유아들 전체를 쳐다보며) 그래, 내일은 아빠랑 같이 유치원에 와서

시 간	내 용
	놀 거야.
	김 T : (명훈이를 쳐다보고 다시 유아들 전체를 쳐다보며) 그래, 명훈이 아빠는 학교에 가시고 다른 아이들 아빠는 회사에 가시지. 그래서 내일은 아빠 회사 갔다 오시면 같이 오기 때문에 아침에 말고 세 시에 올 거야. 몇 시라고?
	명훈 : (큰 소리로) 세 시요!
	김 T : 아침에 오는 거라고?
12 : 00	명훈 : (고개를 흔들며) 아니요.
	김 T :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래, 내일 아빠하고 같이 (큰 소리로 오른손 세 손가락을 펴서 보이며) 세 시에 유치원에 오는 거야.
	나 T : (짐승 먹이가 든 바구니를 무릎 앞에 두고 짐승 먹이가 든 비닐들을 하나씩 들어 보이며) 아침에 짐승 먹이 가져온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름 부르는 사람은 선생님 옆으로 와서 서자.
	명훈 :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명훈이요. 명훈이 짐승 먹이 가져 왔어요.
12 : 15	김 T : (뒤에서 명훈이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로) 선생님이 이름 불러 주실 거야. 명훈아!
	명훈 :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나 T가 건네주는 짐승 먹이를 두 손으로 받아 쥐고 민지 옆에 서서 앞을 바라본다.)
	나 T : (유아들 전체를 바라보며) 짐승 먹이 가져 온 아이들에게 '짐승 사랑하는 아이' 노래 불러 주자. (간주를 입 반주하며 머리를 가볍게 왼쪽 오른쪽으로 까닥거리며 미소 짓고서). 랄랄랄랄라~ 짐승 사랑하는 아이, 누구냐 ♬
	명훈 : (자리에 서서 정면을 쳐다보며 속삭이듯 노래 부른다. 명훈이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부를 때 가볍게 미소 짓는다.)
	나 T : (짐승 먹이를 가져온 유아들을 고개를 돌려 쳐다보며) 자, 제자리

시 간	내 용
	가서 앉자. 김 T : 얘들아, 부지런히 '갈 때 부르는 노래' 부르자. (손뼉을 치며 입 반주를 하면서) 랄랄랄랄라~ 아이 참, 재미있어요 ♬ 명훈 : 손뼉을 치며 뒤를 돌아 김T를 한번 쳐다본 후 큰 소리로 노래 부른다.) 아이참~. 나 T : (노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얘들아, 선생님이 이름 부른 아이는 선생님한테 와서 편지 받아 들고 집에 갈 거야. 명훈 : (다리를 흔들며 봉투를 받아 가는 유아들을 쳐다본다. 정자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들을 잠시 쳐다본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짐승 먹이'가 든 비닐봉지를 오른손에 들고 나T 앞으로 가서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 다시 왼손에 봉투를 쥔다.) 김 T : (뒤에서 명훈이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앞으로 걸어가며 정면을 쳐다보면서) 명훈이는 아주머니 오셨네. 명훈이 잘 가라. 명훈 : (정면을 쳐다보고 걸어가면서 조금 작은 목소리로) 네! 안녕히 계세요. (아주머니에게 걸어간다.)